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22~2031

문화체육관광부

목차

제1장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역할	1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계획의 범위 및 성격	5
제2장 관광여건과 동향 분석	7
제1절 관광개발기본계획 성과 평가	9
제2절 관광여건 분석	25
제3절 관광동향 분석	29
제4절 관광수요 및 공급 분석	44
제5절 종합분석	47
제3장 계획의 미래	53
제1절 계획의 접근	55
제2절 비전 및 목표	58
제3절 관광권역 구상	63
제4장 추진 전략	67
제1절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69
제2절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82
제3절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93
제4절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105
제5절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113
제6절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124
제5장 권역별 개발방향	133
제1절 관광권역 기본 구상	135
제2절 권역별 추진 계획	141
제6장 계획 추진 체계	169

| 표 차례 |

〈표 1〉 계획의 내용적 범위	5
〈표 2〉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주요 내용	9
〈표 3〉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결과	10
〈표 4〉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주요 내용	11
〈표 5〉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결과	12
〈표 6〉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주요 내용	13
〈표 7〉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 현황	15
〈표 8〉 연도별 관광지 지정 현황	15
〈표 9〉 연도별 관광지 국고지원 현황	15
〈표 10〉 연도별 관광단지 지정 현황	15
〈표 11〉 연도별 관광단지 국고지원 현황	16
〈표 12〉 연도별 관광특구 지정 현황	16
〈표 1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 개요	17
〈표 14〉 연도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지정 현황	17
〈표 15〉 연도별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정 현황	17
〈표 16〉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목표 성과 달성도	18
〈표 17〉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6대 개발 전략 성과 달성도	19
〈표 18〉 협의의 관광개발 법제	26
〈표 19〉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투자계획 연평균 증가율 비교	27
〈표 20〉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27
〈표 21〉 연도별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29
〈표 22〉 대륙별 관광수입 및 관광객, 관광객당 소비	29
〈표 23〉 2015~2019년 국가관광경쟁력 지수 결과	30
〈표 24〉 국민 국내여행 실태조사 결과	31
〈표 25〉 2019년 국민 국내여행조사 결과	31
〈표 26〉 방한 외래 관광객 수 및 성장률	32
〈표 27〉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32
〈표 28〉 전 국민 조사 설계	37
〈표 29〉 가장 선호하는 관광활동	39
〈표 30〉 전문가 조사 설계	40
〈표 31〉 청년참여단 주요 미션 내용	42
〈표 32〉 국내외 관광 수요 예측 결과	44
〈표 33〉 국내관광객 여행일수 예측 결과	45

〈표 34〉 지역별 관광 수요 예측결과	45
〈표 35〉 시설 유형별 입장객 통계	46
〈표 36〉 SWOT 분석	52
〈표 37〉 5대 광역연합관광권 특징	65
〈표 38〉 메타버스의 4가지 시나리오	72
〈표 39〉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현황	140
〈표 40〉 전략1.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추진 주체 설정	171
〈표 41〉 전략2.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추진 주체 설정	172
〈표 42〉 전략3.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추진 주체 설정	173
〈표 43〉 전략4.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추진 주체 설정	174
〈표 44〉 전략5.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추진 주체 설정	175
〈표 45〉 전략6.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추진 주체 설정	176

| 그림 차례 |

[그림 1] 계획의 목적	4
[그림 2] 계획의 성격	6
[그림 3] 시대별 주요 관광정책 변천과 특징	25
[그림 4] 가장 고려해야 할 가치	37
[그림 5] 10년 후 가장 선호할 것 같은 관광시설	38
[그림 6] 10년 후 가장 방문하고 싶은 지역	39
[그림 7]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방향	41
[그림 8] 가장 고려해야 할 가치	41
[그림 9] 계획의 접근 방식	57
[그림 10] 비전, 목표, 6대 추진전략	58
[그림 11] 2031 관광개발 계획 지표	60
[그림 12] 우리나라 관광권역의 변화 추이	63
[그림 13] 관광권역 설정방향 및 개념	64
[그림 14] 종교 및 순례관광의 단계별 구상(안)	81
[그림 15] 주민제안형 지역관광사업 단계	107
[그림 16] 5대 메가관광권 구축도	115
[그림 17] 광역연합관광권별 메가관광권 개념도	116
[그림 18] 4×3 관광축 구축도	118
[그림 19] 테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관광개발 방향 설정 체계	131



[그림 20]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TDSS) 고도화	132
[그림 21] 광역연합권역 기능과 역할	135
[그림 22] 시·도 권역 기능과 역할	135
[그림 23]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협력대권별 개발방향	137
[그림 24]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17개 시·도 개발방향	139
[그림 25]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현황	140
[그림 26] 수도권·강원·제주권 개발방향	142
[그림 27] 충청권 개발방향	149
[그림 28] 전라권 개발방향	155
[그림 29] 대경권 개발방향	160
[그림 30] 부울경권 개발방향	164



제1장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역할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계획의 범위 및 성격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 배경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만료와 새로운 계획 기준 요구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2021년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획 기준 요구
- 새로운 계획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의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을 넘어 미래 관광 발전과 국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개발과 지역관광 지향

■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대응한 국가 관광개발계획 수립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기간 동안 국내·외 여건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광개발기본계획 방향 모색
- 인구구조,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혁신적 국가 관광개발 전략과 국민 삶의 질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관광발전 전략 제시
- 국제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여 국제관광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관광개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

■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연계

- 기본계획의 구체화 계획, 권역 특성화 계획, 관광(단지) 지정 근거계획의 성격을 갖는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2~2026년)이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과 동일한 시기에 수립됨에 상호 연계·협력적 계획 수립 필요

관광진흥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 계획 수립

⇒ 국가 관광개발 위상을 정립하는 종합계획, 과학적 증거기반 정책계획, 이해관계자의 연계협력에 기반한 협력계획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필요

2. 계획 목적

■ 사람과 지역 중심의 미래 국가관광개발 비전 제시

-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적 내용적 범위를 기준으로 사람(관광객)과 지역(관광목적지) 중심의 관광개발 비전 제시

■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관광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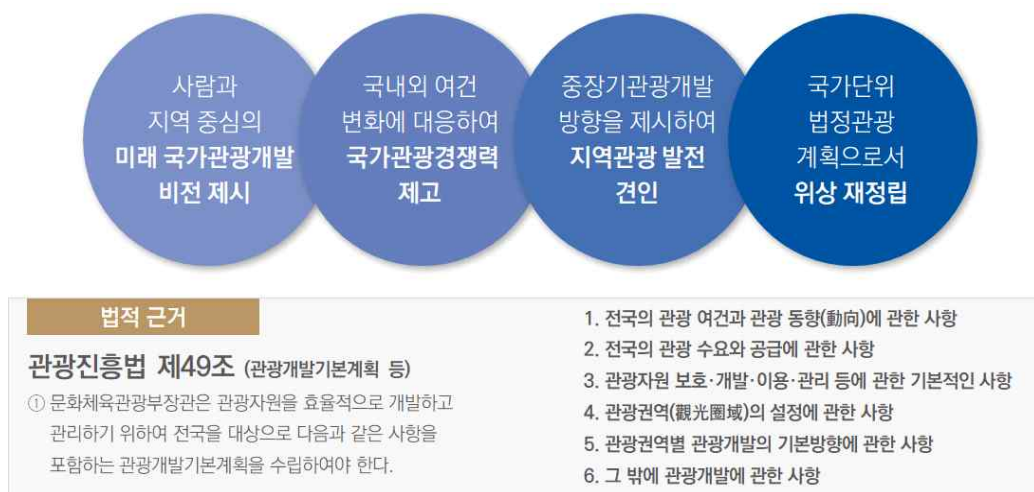
- 계획 기간 동안 인구구조, 생활양식, 가치관, 지역 및 국제관계 등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국가 및 지역 관광개발 방향을 모색하여 국가관광경쟁력 제고

■ 중장기 관광개발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관광 발전 견인

-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관광을 누릴 수 있고, 관광발전을 희망하는 모든 지역이 관광개발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지역관광 균형 발전을 추진하며, 자율적이고 협력적이며 혁신적인 지역관광 발전 견인

■ 국가단위 법정관광계획으로서 위상 재정립

- 관광개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타 분야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광개발과 지역관광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관광계획의 위상 재정립



[그림 1] 계획의 목적

제2절 계획의 범위 및 성격

1. 계획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 시간적 범위

- 계획 기간 : 2022 ~ 2031년 (10년)

■ 내용적 범위

- 「관광진흥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 관광여건과 관광동향, 관광 수요와 공급,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관광권역설정 등을 포함

〈표 1〉 계획의 내용적 범위

구 분	범 위
비전편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역할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평가 - 여건 및 동향 분석 - 수요 및 공급분석 -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과제편	- 전략 설정 - 전략별 추진계획
권역편	- 권역 설정 - 시·도 권역별 관광개발 방향

2. 계획의 성격

■ 행정계획이면서 법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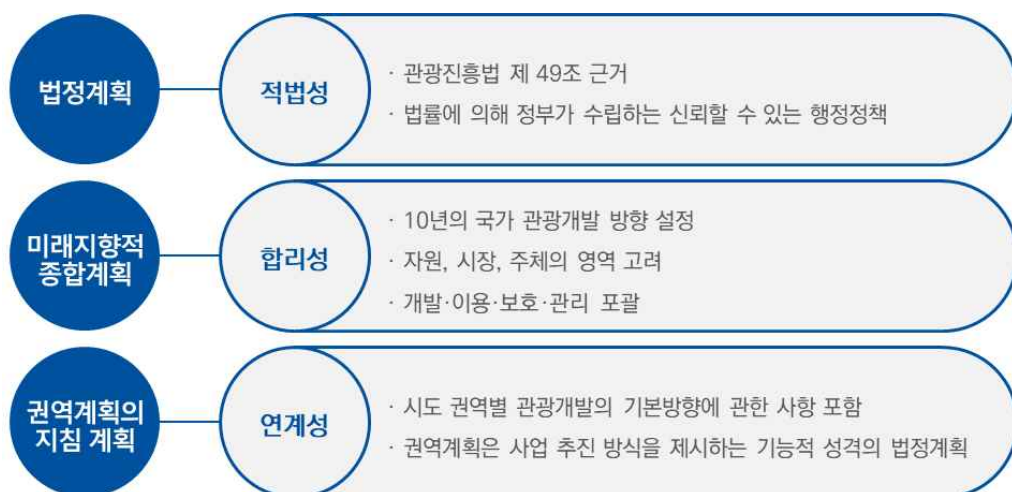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근거하여 법률에 따라 국가관광개발의 위상을 정하고 있는 법정계획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계획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적 범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계획이 취할 수 있는 정책영역에 한정된 계획

■ 미래지향적 종합계획

-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10년 후 국가 관광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이며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 목표와 지향점은 무엇인가를 규정
- 관광개발의 주요 요소인 관광자원, 시장(관광객), 관광개발 주체(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이용, 보호, 관리를 포괄하여 전략 제시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지침계획

- 권역별 사업추진 방식을 제시하는 기능적 성격의 법정계획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지침 계획으로서 전략별 지침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 유도
- 시·도별 관광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포함





[그림 2] 계획의 성격



제2장

관광여건과 동향 분석

- 
- 제1절 관광개발기본계획 성과 평가
 - 제2절 관광여건 분석
 - 제3절 관광동향 분석
 - 제4절 관광수요 및 공급 분석
 - 제5절 종합분석
- 

제1절

관광개발기본계획 성과 평가

1.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관광개발 추진 현황

가.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1) 계획 주요 내용

-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년)은 직접적인 비전 및 목표 등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전 국토의 관광지화 구상', '관광개발 체계 설정'의 방향성 제시
- 4대 추진 과제는 '국토이용개념의 개발 체계 확립', '관광수요와 부합하는 균형적 개발', '개발·관리체계 형성', '개발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설정
-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권역을 5대권 24개발 소권으로 설정하고 자원 특성에 따른 권역 설정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성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행정권과 관광자원의 불일치로 인하여 집행력 확보에 한계

〈표 2〉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국토의 관광지화 구상 	
4대 추진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이용개념의 개발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이용개선과 조화된 개발 • 권역 설정에 의한 개발·관리의 매력성 증대 • 자원성을 감안한 전국 루트 개발 2. 관광수요와 부합하는 균형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주변 관광위락시설 확충 • 체재형 관광지의 공급 확대 • 대단위 관광거점과 도시수용력의 개발 및 확충 • 소규모 특성관광지 개발 추진 • 기존 관광지정비 및 신규 관광지 공급 확대 3. 개발·관리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관리주체의 다양화 • 투자 재원의 다양화 4. 개발추진을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기능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 • 민간참여 추진을 위한 지원 	<p>권역 설정 (5대권 24개발 소권)</p>

2) 관광개발 추진 현황

■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등이 진행

- 1990년 이후 관광지구 지정 및 개발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관광지 195개소, 관광단지 9개소, 관광특구 20개소 지정
- 관광시설은 관광호텔 463개소, 가족호텔 19개소 등 563개소의 관광숙박시설이 개발되었고, 국제회의시설 90개소, 전시시설 15개소(78,419㎡) 등의 컨벤션 시설이 개발되었으며 27개소의 휴양업체, 243개소의 유원시설업체 설립 및 개발
 - 특히, 2000년 10월 석탄 산업 쇠퇴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진 강원도 태백 및 정선 일대의 경제 발전을 위해 내국인들이 입장 가능한 '강원랜드' 개장
- 관광상품은 1995년부터 문화관광축제를 선정·지원하기 시작하여, 2000년 25개 문화관광축제를 선정·지원하였으며 관광기념품, 각 지역마다 지역특산품과 향토음식을 지정·육성
- 문화관광부의 예산은 1996년 4,591억 원에서 1999년 8,840억 원으로 93% 증가하였고, 관광부문의 예산은 1996년 145억 원에서 1999년 800억 원으로 450% 증가
-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예산은 1996년 568억 원에서 1999년 1,25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0.36%에 불과한 수준

〈표 3〉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결과

구분		주요 내용
관광지구 개발	관광지	1990년 119개소에서 2000년 195개소로 64% 증가
	관광단지	1990년 3개소에서 2000년 9개소로 증가
	관광특구	1994년 5개 지역이 지정된 이후 2000년 20개 지역 지정
관광 사업체 개발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463개소(49,754실), 가족호텔 19개소(2,603실) 등
	컨벤션시설	국제회의시설 90개소(회의장 443개), 전시시설 15개소(78,419㎡)
	관광객이용시설	전문휴양업 16개 업체, 종합휴양업 11개 업체, 유원시설업 243개 업체
	안내편의시설	관광안내소 261개소, 관광지 표지판 1,642개, 관광안내정보시스템, 중저가 여관음식점 예약센터, 관광안내전화1330, 공중화장실 설치 등
	카지노 시설	외국인 전용카지노 13개 업체, 내국인 출입 카지노 1개(강원랜드) 업체
관광상품 개발	축제	문화관광축제 25개(2000년)
	기념품, 지역특산품	지역특산품 75개, 향토음식 54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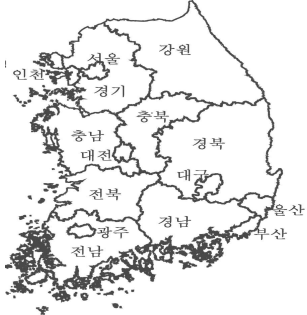
자료: 문화관광부(2000),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나.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1) 계획 주요 내용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년) 비전은 열린 한반도 시대를 구현하고, 관광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지식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을 제시
- 정책과제는 국제, 지역, 문화자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식기반형 관리체계, 생활관광 기반확충, 남북 및 동북아 등 7개 부문으로 구체화하여 제시
-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권역을 16개 시·도로 제시하였으며 행정권 중심의 한 권역 설정으로 집행력은 확보되었으나, 광역관광 네트워크 형성 부족과 중복투자 등이 발생

〈표 4〉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는 관광대국 실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관광한국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한국 • 관광자원의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기반형 관광한국 •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참여형 관광한국 •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개방형 관광한국
정책 과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시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의 관광숙박시설 확충 • 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 • 시장별 특화 관광지역 개발 • 관광교통체계 구축 2. 지역 특성화와 연계 통한 관광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관광자원화 • 농산어촌의 관광자원화 • 지역간 통합 연계체계 구축 3. 문화자원의 체계적 관광자원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 문화관광자원의 발굴 육성 • 문화관광권의 개발 강화 4.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 5. 지식기반형 관광개발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정보 관리체계 구축 • 관광자원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 관광 전문인력 관리체계 구축 </div> <div style="width: 45%;">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생활관광 향상을 위한 관광개발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생활관광 기반 확충 •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기회 확대 7. 남북한 및 동북아 관광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 남북한 관광개발 협력기반 구축 • 동북아 관광 협력체계 구축 </div>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p>지역 설정 (16개 시·도)</p> </div>

2) 관광개발 추진 현황

■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양적으로 증가

- 지구단위 관광개발은 관광지 232개소, 관광단지 32개소, 관광특구 27개소가 지정되었으며, 7대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2개 사업,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 자원 개발사업 1,500개 등이 추진
- 관광시설 개발은 관광호텔 630개소, 가족호텔 55개소, 한국 전통호텔 2개소, 휴양콘도미니엄 174개소의 관광숙박시설이 개발되었고, 국제회의시설 183개소, 외국인 전용카지노 16개소와 내국인 출입 카지노 1개소가 운영
- 문화관광축제는 1997년 10개에서 2010년에는 44개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010년부터 전통공연예술을 상설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원

〈표 5〉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결과

구분		주요 내용
관광지구 개발	관광(단)지	관광지 232개소, 관광단지 32개소
	관광특구	13개 시·도 27지구
	광역권 관광개발계획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지리산권 관광개발, 3대문화권 관광개발,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 등 7대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 진행
	관광레저형기업도시	태안, 영암·해남(서남해안) 2개 지역 추진
	문화관광자원	총 1,099개 사업 추진
	생태녹색 관광자원	총 51개 사업 추진
관광 사업체 개발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630개소(68,583실), 가족호텔 55개소(6,150실), 한국전통호텔 2개소(42실), 휴양콘도미니엄 174개소(37,251실)
	컨벤션시설	컨벤션센터 9개소(28,100석), 호텔회의장 131개소(96,946석), 준회의장 43개소(43,577석) 등 총 183개소(168,623석)
	관광휴양시설	전문휴양업 41개 업체, 종합휴양업 20개 업체, 자동차야영장업 4개 업체, 관광유람선업 38개 업체, 관광공연장업 6개 업체,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 169개 업체, 유원시설업 241개 업체
	안내편의시설	관광안내소 400개소, 관광안내전화 1330, 관광정보 포털사이트, 관광안내 애플리케이션 등
	관광안내편의시설	관광유희음식점업 231개, 관광극장 유희업 41개,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 348개, 관광식당업 1,899개, 관광펜션업 225개, 한옥체험업 320개 등 총 3,126개 업체
	카지노 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 업체, 내국인 출입 카지노 1개 업체
관광상품 개발	문화관광축제	1997년 10개에서 2010년 44개의 지역축제 선정
	상설관광상품	총 20개의 전통공연예술을 상설 관광상품으로 개발



자료: 문화관광부(2010),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다.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1) 계획 주요 내용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년) 비전은 글로벌 녹색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개방적 사고와 통합된 힘으로 고품격 선진 미래관광이 이루어 질 것을 고려하여 ‘글로벌 녹색 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으로 설정
- 정책 과제는 관광개발 정책, 관광자원, 창조관광, 생활관광,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관광 등 6개 부문으로 구체화하여 제시
- 제3차 기본계획 권역은 5+2 광역경제권 체계를 ‘광역관광권’으로 수용하여 계획권역을 설정하고 초광역 관광벨트를 설정하여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 및 보완

〈표 6〉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있는 선진관광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관광 ●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천하는 공정관광
정책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 정책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재생 정책 추진 ● 관광개발 민간참여 확대 ● 관광개발 R&D기능 강화 2.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관광개발 영역 발굴 ● 복융합관광개발 확대 ● 관광산업 활성화 3.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가 흐르는 도시관광 구축 ● 지역문화에 기반한 신관광공간 창출 ● 한국문화의 브랜드화 4.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 ● 국민생활관광 활성화 ● 취약계층의 관광확산을 위한 관광여건 조성 5.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 저탄소 녹색관광의 실현화 확산 6.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연계 관광개발 기반 확충 ● 동아시아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p>광역관광권 (시·도 관광권 포함)</p>  <p>초광역 관광벨트 (계획권역 보완)</p> </div>

2) 관광개발 추진 현황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 광역권 관광개발은 동일한 특성을 가진 자연·문화자원이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이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자원의 개발·이용·관리 측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역권역의 관광개발
- 정부는 지역별로 특성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유기적으로 연계 개발하여 관광개발의 효과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
 -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2000~2009년),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2000~2010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2010~2017년), 지리산권 관광개발(2008~2017년),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2008~2017년),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2009~2018년) 등 6개 사업이 완료
- 2020년 12월 기준, 추진 중인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5개 사업

■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 관광거점도시는 서울 및 제주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방한 외래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촉진시키고,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 관광도시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관광 혁신 정책
- 2020년 1월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도 강릉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북도 안동시 선정
- 국제 인지도 향상 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도시별로 국비를 약 500억 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지원 예정

■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은 지역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관광 기반시설(인프라) 조성 및 관광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되, 세부 계획 수립부터 관리·운영까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는 사업
- 2019년 시범사업으로 2개 지자체, 2020년에 8개 지자체, 2021년에는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기간은 지자체별로 4~5년, 국비는 60억 원 이내에서 지원 예정

〈표 7〉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선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9	2020	2021
대상 지역	2 (경남 합천, 충남 서천)	8 (강원 정선, 충북 제천, 경기 수원, 충남 아산, 전남 강진, 전북 남원, 경북 포항, 경남 사천)	5 (강원 삼척, 충북 단양, 전북 진안, 경남 남해, 경북 영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 2000년 이후 관광개발은 선택과 집중, 네트워크화, 지방분권형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2005년 4월 시·도지사로 이양
- 관광지 지정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정 후 2년 이내 조성 계획 승인신청이 없거나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관광지의 지정 또는 조성 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면서 일부 관광지의 지정 해제

〈표 8〉 연도별 관광지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규	3	4	2	5	-	1	2	-	1
취소	11	4	-	2	4	4	-	-	-
계	227	227	229	232	288	225	227	227	2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9〉 연도별 관광지 국고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관광지	63	47	47	34	32	36	35	42	47
국비	53,976	40,654	40,314	23,024	22,073	20,186	30,044	31,019	40,314
지방비	61,493	43,085	36,310	19,754	19,162	18,979	29,210	31,019	36,310
계	115,469	83,739	76,624	42,778	41,235	39,165	59,254	62,038	76,62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10〉 연도별 관광단지 지정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규	2	2	1	-	3	4	2	1	3
취소	-	-	-	1	1	-	1	1	-
계	34	36	37	36	38	42	43	43	4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표 11〉 연도별 관광단지 국고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관광단지	4	3	1	3	3	1	1	2	1
국비	2,750	2,450	1,750	2,599	15,600	200	400	4,304	1,000
지방비	2,500	2,450	1,750	2,599	15,600	200	400	10,064	5,000
계	5,250	4,900	3,500	5,198	31,200	400	800	14,368	6,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관광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 관광활동을 촉진하고자 1993년에 도입
- 정부는 2004년 10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특구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특구제도 실효성을 확보
- 1994년 5개 지역이 최초 지정된 이래, 2019년까지 지정된 관광특구는 총 32개소이며, 2019년에는 총 4곳에 11억 원을 지원

〈표 12〉 연도별 관광특구 지정 현황

(단위: 개소, 억 원(개소))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관광 특구	27	28	28	29	31	31	31	31	32
국비(지원)	45(5)	40(5)	-	40(5)	36(7)	28(8)	26(6)	14(3)	1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특정지역에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배치하여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공간으로 기존 관광단지와 달리 주거기능을 포함한 기업도시의 한 유형
- 무주, 태안, 영암·해남 등 4개 지역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중 태안은 2006년 개발계획 승인, 2007년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가장 먼저 착공
-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개발계획 승인(삼호지구 2009.11., 구성지구 2010.1., 삼포지구 2010.10.) 후 구성지구는 2012년, 삼호지구는 2014년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삼포지구는 실시계획을 추진
- 무주는 개발계획이 승인(2007.9.21.)되어 편입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가 진행(75%) 되었으나,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개발구역이 지정 해제

- 산업 및 기능 간 융·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의 통·폐합(기업도시특별법 개정, 2015.6.22)이 진행

〈표 13〉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사업 개요

(단위: m², 년, 억 원)

구분	태안	영암·해남
위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전남 영암군 삼호읍, 해남군 산이면
면적	1,546만	2,954만
기간	2007~2025년	2009~2025년
투자비	12,201	19,917
시행자	(주)현대도시개발	서남해안레저(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 문화관광자원개발은 독특한 역사·문화, 레저·스포츠 자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자본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1999년부터 지원한 사업
- 정부는 국내·외 관광객의 선호도가 단순관람 위주의 관광에서 체험형 관광으로 변화함에 따라 레저·스포츠 활동 및 역사문화 체험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수준 높은 테마형 관광 상품을 개발·육성

〈표 14〉 연도별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지정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 수	193	224	184	179	176	192	234	244	225
국고 지원액	1,755	1,633	1,526	1,332	1,178	1,288	1,584	1,833	1,7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 생태자원을 보존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관광개발을 통해 생태·녹색관광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에서 분리하여 사업 추진
-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예산의 연차적 확대와 지원으로 전국을 균형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획일적 개발 지양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표 15〉 연도별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정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 수	52	38	32	29	33	32	34	34	31
국고 지원액	291.55	217.77	189.65	256.95	230.51	181.40	196.80	219.14	196.4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성과평가

가. 성과달성도 평가

1) 비전 및 목표 달성도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인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통 이상(3.33점)을 달성했다고 평가
- 5대 목표 가운데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항목 달성도를 3.7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공정관광’ 항목 달성도는 3.17점으로 성과 달성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의 정책 성과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의 관광활동이 일상화되고, 관광의 영역이 마을과 골목 등 일상생활 공간으로 확장된 것으로 평가
 - 관광개발 주체가 다양화되었으나 관광영역에서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공정관광’ 달성도는 보통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으나 실제적 성과 달성도는 보통

〈표 16〉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비전, 목표 성과 달성도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내용	성과 달성도
비전	글로벌 녹색한국을 선도하는 품격 있는 선진관광	3.33
5대 목표	한국문화가 생동하는 창조관광	3.43
	관광자원의 보전과 재생을 유도하는 녹색관광	3.20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생활관광	3.70
	책임과 참여로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공정관광	3.17
	성장동력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관광	3.33

2) 6대 개발 전략 달성도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6대 개발 전략 중에서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3.70점)’,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3.40점)’ 전략은 성과가 높다고 평가
- 반면,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정책 효율화’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전략에 대한 성과 달성도는 보통 수준(3점 내외)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표 17〉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6대 개발 전략 성과 달성도

(단위: 점(5점 만점))

구분	내용	성과 달성도
6대 개발 전략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정책 효율화	2.97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3.23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3.40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3.70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3.03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2.97

나. 추진과제별 성과 평가

1) 품격관광을 실현하는 관광개발정책 효율화

■ 추진 성과

- 추진 과제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재생정책 추진’, ‘관광개발 민간참여 확대’, ‘관광개발 R&D기능 강화’ 제시
- 체계적인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지원을 통해 지역 관광개발사업의 중복 투자를 예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유도
 -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총 452건의 지역관광개발사업 진단·평가 및 컨설팅 업무 수행
- 관광개발사업 추진 단계 및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가 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 시스템(TDSS) 구축으로, 국가 관광개발사업의 종합적 관리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
- 노후 관광지를 대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여 변화된 관광트렌드를 반영하고 관광객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관광시설로 전환
 - 2018년부터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통해 기존 시설들을 리모델링하여 체험·체류형 거점으로 변화하고 관광취약계층(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Barrier-Free) 시설 등 설치, 노후 시설 개보수,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자원화 등 추진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일 사업 공모 체계에서 기초지자체 주도로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됨.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유희·노후시설에 특화된 소재 및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체계를 마련
 - 2019년 2개, 2020년 8개, 2021년 5개 기초지자체 사업 계획이 선정

■ 한계 및 시사점

- 체계적 관광개발 지원을 강화하고자 계획하였던 관광자원 등급제와 「관광진흥법」 분법화는 계획 기간 내에 실행하지 못함. 그러나 「관광진흥법」 분법화는 관련 연구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 관광개발 시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자 민자 유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였으나, 경제저성장에 따라 민간자본 투자 여건이 위축되면서 적극적 민간 참여 여건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
- 미래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개발 R&D 예산 확대 및 전문조직 설립 등을 계획하였으나, 2011년과 비교하여 2019년 국가 R&D 예산 중 관광 R&D 예산 비중은 0.3%에 머물고 있어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 전문 조직 설립도 지연
- 관광개발의 질적 성장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관광개발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개발 수단을 마련하고, 법·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 관광수요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면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2) 미래 환경에 대응한 명품 관광자원 확충

■ 추진 성과

- 추진 과제로 ‘新관광개발의 영역 발굴’, ‘복·융합 관광개발 확대’, ‘산업관광 활성화’가 제시
-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개발,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등 해양관광자원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양수산부는 제2차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2014~2023년) 수립 및 해양레저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울진·창원·여수·안산 등에 거점형 마리나 건설 추진
- 복·융합 관광개발 확대를 위해 MICE,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부문의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기반 마련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및 국제회의집적시설 조성으로 MICE산업과 연계한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8년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고시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2020년 3개소, 국제회의집적시설 조성 2020년 12개소
 - 2018년 7개 지역(경북, 광주, 울산, 서울, 울산, 인천, 충남)을 의료관광 클러스터로 선정·육성, 웰니스 관광클러스터(협력지구) 추진 등 의료관광 특화 기반 마련

- 항만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였고, 2015년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5.2.)·시행(2015.8.)하였으며, 2016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업체, 산업단지 및 지역 특화산업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문화를 배우는 체험형 산업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희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자원을 창출
 - 2012년부터 산업관광 육성사업으로 매년 2~6개소를 발굴·육성하였고 유희시설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관광진흥법 개정, 2016.2.3.), 폐선철로·간이역·폐산업시설 등을 활용하는 사업 추진

■ 한계 및 시사점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관광개발 영역으로 포함된 항공·우주 부분은 박물관 및 과학관 등이 개관하고 일부 체험자들이 우주관광을 하고 있으나 대중적 체험관광으로 확장되지 못했으며 항공우주산업 발달 속도를 과도하게 판단
- 새로운 관광개발 영역 발굴 및 융복합 관광개발이 개별 부처 단위로 추진함에 따라 통합적 관점에서 시너지 효과와 종합적, 연계·협력적 정책 추진은 다소 부족
- 관광과 접목 가능성, 매력성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관광영역을 발굴하며, 자원별로 부처 간 연계·협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방식, 사업의 고민이 필요

3) 문화를 통한 품격 있는 한국형 창조관광 육성

■ 추진 성과

- 추진 과제로 ‘문화가 흐르는 도시 관광 구축’, ‘지역문화에 기반한 신 관광공간 창출’, ‘한국의 브랜드화’가 제시
- 관광도시, 문화도시, 관광거점도시 등의 정책 추진과 시티투어버스·관광패스, 축제 등의 프로그램 확대로 도시 인프라에 문화적·디자인적·관광 편의적 요소를 결합하고, 도시의 관광잠재력을 증대
 -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추진. 콘텐츠·상품개발,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목적지로 육성하고, 2014년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추진
 - 2020년부터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지역관광도시에 강원 강릉,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북 안동 등 총 5개 지역을 선정해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추진
 - 2016년부터 서울, 전북, 부산, 강원 등에서 관광패스를 운영해 관광객 편의 증진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 모델로서 “관광두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지역 고유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관광 사업을 창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소비가 주민 소득, 일자리로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80개 주민공동체 발굴 및 110개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 사업체 창업 및 경영개선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주민사업체 누적매출액 426.4억 원(투입 사업비 270억 원 대비 약 1.6배), 2019년 850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
- 궁중 문화축전(2015년~), 고궁 야간 관람, 가이드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고궁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등 국가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3대(유교·신라·가야) 문화권 등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권역별로 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을 마련하고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효과 확산

■ 한계 및 시사점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을 기반으로 역사문화자원에 특화된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나, 완료 이후 지자체들의 운영·관리 역량 부족으로 일부 대규모 시설들의 운영 적자 문제가 제기되었고 관광 특성화 노력이 미비
- 신규 시설 조성뿐 아니라 기존 시설 및 자원의 이용·활용과 관리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며 지역 고유자원의 체계적 활용 및 차별화·특성화 노력을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에 부합하고 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필요

4) 국민이 행복한 생활관광 환경 조성

■ 추진 성과

- 추진 과제로 ‘관광객 수용태세 확충 및 개선’, ‘국민 생활관광 활성화’, ‘취약계층의 관광향유를 위한 여건 조성’이 제시
- 관광호텔,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안형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전통한옥 체험시설을 브랜드화 하는 등 다양한 수요층을 위한 숙박시설을 마련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법제도 마련(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2.7.27.), 소형호텔업 허용(「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3.11.29.)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법제화(「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광객 편의시설업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추가(2011.12.30.개정),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 추가(2015.2.3.개정)
- 관광부와 교통부가 협력하여 역내 관광교통수단 확충, 관광도로 개발, 관광교통수단의 확대 등 관광교통 인프라 구축
 - 2013년부터 관광자원과 권역별 철도 네트워크를 연계한 5대 철도(중부내륙, 남도해양, 평화생명, 서해안골드, 동남블루) 관광벨트 구축·운영하고 관광지 순환노선 구축, 철도역 중심으로 카 셰어링, 시티투어 픽업존 설치 등으로 관광교통 접근성 강화

- 대체공휴일 제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제약을 완화하는 등 생활관광 문화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생활관광 참여를 촉진
 - 2014년부터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통과)하고 2018년부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지원 규모를 확대
-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무장애(Barrier free) 관광환경 확충

■ 한계 및 시사점

- 관광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광역 및 도시 간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관광객 입장에서 지역 내 관광지 간 교통 연계성 및 접근성은 불편. 무장애 관광인프라 조성, 여행바우처 지원 등 신체적·경제적 개선 노력을 하였으나 계층 간 관광향유 수준 격차가 존재
- 국내·외 관광객이 관광활동 전 과정(이동, 숙박,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에서 관광정보와 수단, 콘텐츠 등을 더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 필요

5)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확산

■ 추진 성과

- 추진 과제로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저탄소 녹색관광의 실현과 확산’ 제시
-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생태관광명소의 보전과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2013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가 명문화되었고, 2020년까지 전국 26개소가 지정
-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걷기여행길 활성화, 코리아둘레길 구축 등을 통해 친환경 선형관광 루트인 걷기여행길이 구축되고 있으며 ‘두루누비(코리아 모빌리티)’로 걷기여행길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

■ 한계 및 시사점

-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나 관광산업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탄소배출관리 전문조직 구성 등 관광부문의 탄소배출 관리체계 구축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 기반은 다소 부족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 관광객, 관광사업자, 정부, 지역주민 등의 참여가 중요

6)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추진 성과

- 추진 과제로 ‘남북한 연계 관광개발 기반 확충’, ‘동아시아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
- ‘남북한 연계’는 DMZ, 남북접경지역 일원에 평화생태공원, 걷기여행길, 폐군사시설 활용 복합공간 조성 등을 통해 평화관광 기반 마련. ‘동아시아 연계’는 저비용 항공사 취항, 국가 간 무비자제도 확대 등 역내 접근 편의성을 증진하여 2018년 10월부터 미얀마 무비자입국 허용, 인도네시아·베트남·필리핀 관광객에 대한 단체 전자비자 제도를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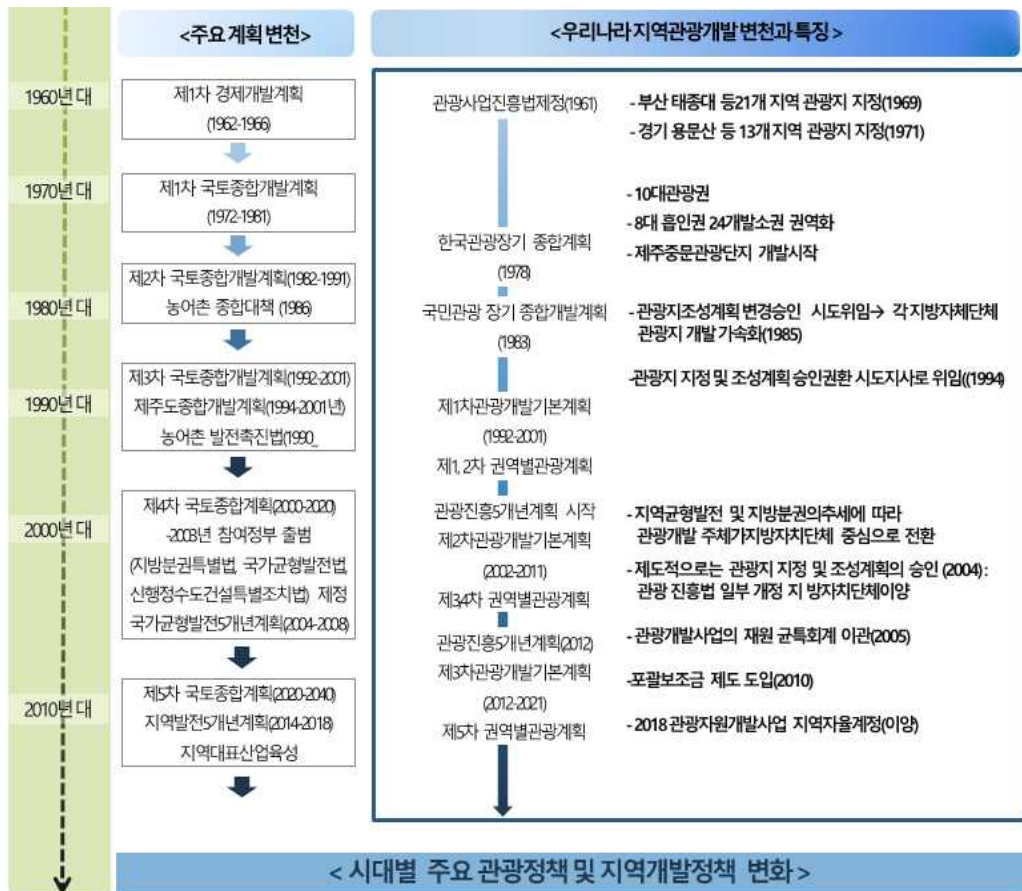
■ 한계 및 시사점

- 북한관광 거점 육성, 한반도 공동 관광개발 등은 남북관계 및 국제 정세의 영향에 민감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동아시아 관광협력 역시 한계
- 국제관광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K-Pop, K-Food 등 한류 콘텐츠와 DMZ, 평화관광 콘텐츠로 교류와 협력 기반을 마련

제2절 관광여건 분석

1. 시대별 관광개발 정책 변화와 특징

-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이후 점차적으로 관광개발 역량이 축척되면서 정부 주도에서 지자체 주도로 변화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콘텐츠와 연계·협력 기반 사업 추진



[그림 3] 시대별 주요 관광정책 변천과 특징

2. 관광개발 법·제도 현황

가. 협의의 관광개발 법제

- 협의의 관점에서 관광개발 법제는 관광활동 및 관광개발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법제를 근거로 정책 및 사업 추진
-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등이 협의의 관광개발 법제 포함

〈표 18〉 협의의 관광개발 법제

구분	주요 내용
관광기본법	● 관광진흥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친선 증진 및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계획 수립, 관광 여건 조성, 관광자원 보호,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임
관광진흥법	●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사업, 관광사업자단체, 관광지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임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 유치에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국제회의 산업육성기본계획 수립,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국제회의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전담조직 설치 등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설치 및 재원, 기금 용도,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기금 운용계획, 회계 등임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관광숙박시설 건설과 확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 용적율에 대한 특례, 자금지원, 공동 관리·운영의 지원,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임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나. 광의의 관광개발 법제

- 광의의 관점에서 관광개발 법제는 관광개발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포괄하며, 관광개발 추진을 위해 토지이용과 건축규제, 영향평가 등 일반적 도시 및 지역 개발에 적용되는 법률을 포함
- 국토계획 법제는 관광개발이 가능한 토지용도 등 입지관련 물리적 형태, 규모, 용도 등의 내용을 포괄하며 관광사업 법제는 「관광진흥법」 내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도입시설 종류와 기준, 운영관리 등을 규정
- 건축 법제는 시설물의 구조·안전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영향평가 법제는 관광개발에 대한 환경·교통·재해 등 측면에서 입지성 검토, 부정적 영향 최소화 또는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세제 법제는 공공 및 민간 재원 조달과 세제 및 부담금 부과,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관광개발 재정 현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 투자 현황

- 관광개발은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의 파급효과를 동반하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관광분야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속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살펴보면 관광 관련 분야의 국가 재정 투자계획은 약 2.4% 상승하여 문화·예술, 체육, 문화재 등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

〈표 19〉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투자계획 연평균 증가율 비교

(단위 : %)

구분	전체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계	문화·예술	관광	체육	일반	문화재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2	3.4	4.1	1.7	5.0	0.5	4.2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5.7	4.2	5.0	4.1	2.8	4.8	3.7

자료: 기획재정부(2020), 국가재정운용계획(2009~2013) 및 국가재정운용계획(2020~2024)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 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7개 세부사업이고 2019년까지 국비를 지원했던 관광자원개발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

〈표 20〉 문화체육관광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분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증감
지역자율 계정	관광진흥기반 확충	관광자원개발	243,516	지방이양	-
지역지원 계정	광역관광자원 개발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84,611	103,112	▲17.9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8,600	5,818	▲47.8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15,205	9,186	▲65.5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15,340	19,932	23.0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3,120	11,988	74.0	
	관광레저개발 육성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20,664	19,934	▲3.7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기초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개발 - 관광지개발, 문화관광자원개발,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16,611	지방이양	-
		제주관광진흥지원	2,407	2,287	▲5.2
세종특별자치시 계정	기초 관광자원개발	관광자원개발 - 관광안내체계 구축,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145	지방이양	-
계			410,219	172,257	▲138.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0),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4. 관광개발 조직 현황

가.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 부처의 관광조직은 1954년 교통부에 설치된 관광과가 시초이며, 1994년 교통부 산하의 '관광국'이 문화체육부로 이관. 1998년에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중앙 부처 명칭에 처음으로 '관광'이 등장하였으며 2008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은 관광정책과, 국내관광진흥과, 국제관광과, 관광기반과 등 4개 과와 관광산업정책관을 두고 있으며 관광산업정책관은 관광산업정책과, 융합관광산업과, 관광개발과 등 3개 과로 구성
- 관광개발과에서 다양한 관광개발사업들을 추진 중이나 관광자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타 부서 및 유관 부처와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

나.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라는 설립 목적으로 '여행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글로벌 관광선도기관'으로 미래상을 설정
- 한국관광공사 조직은 관광디지털본부, 관광산업본부, 국민관광본부, 국제관광본부, 경영혁신본부의 5개 본부, 16실, 54센터·팀, 34개 해외지사, 10개 국내지사로 구성
- 관광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부서는 국민관광본부 내에 지역관광실이며, 지역관광개발팀, 지역관광콘텐츠팀, 레저관광팀 등 3개 팀으로 구성

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 「문화기본법」 제11조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연구, 조사, 평가를 진행
- 주요 기능 및 사업으로 문화예술 진흥, 문화 및 관광산업 육성, 문화 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보·통계의 생산·분석 등을 수행
- 세부 조직은 경영기획본부, 문화연구본부, 관광연구본부의 3본부·6실·2센터(문화산업 연구센터·정책정보센터)로 구성되며 관광개발 관련 부서는 관광연구본부 관광산업연구실에서 담당
-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관광공사, 관광개발공사, 관광재단 등이 설립 및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광 관련 조직이 설립되면서 지역주도의 관광 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제3절 관광동향 분석

1. 관광시장 동향

가. 국제 관광시장 동향

■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의 양적 성장

- 국제관광객은 2011년 997백만 명에서 2019년 1,460백만 명으로 연평균 4.9% 증가하였고, 관광수입은 2011년 10,800억 달러에서 2019년 14,780억 달러로 연평균 4.0% 증가하여 국제관광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
- UNWTO(2011)는 2030년 세계관광객 수를 1,809백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그 중 유럽 관광객이 832백만 명, 아시아·태평양 관광객 수가 541백만 명으로 예상됨.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률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

〈표 21〉 연도별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단위 : 백만 명, 10억USD,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가율
관광객	997	1,043	1,095	1,142	1,197	1,243	1,333	1,409	1,460	4.9
관광수입	1,080	1,117	1,204	1,274	1,223	1,254	1,347	1,457	1,478	4.0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재정리

■ 대륙별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

- 대륙별 관광객 및 관광수입은 증가하였으나 관광객 1인 기준 소비는 2011년 1,083USD, 2019년 1,012USD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 중 미주, 중동지역의 관광객당 수입이 증가하여 중동지역은 2011년 대비 2019년 관광객당 수입은 63.16% 증가

〈표 22〉 대륙별 관광수입 및 관광객, 관광객당 소비

(단위 : 10억USD, 백만 명, USD, %)

구분	2011년			2019년		
	관광수입	관광객	관광객소비	관광수입	관광객	관광객소비
세계	1,080.0	997.0	1,083.2	1,478.0	1,460.0	1,012.3
유럽	464.7	516.0	900.6	572.9	745.2	768.8
아시아/태평양	301.5	218.6	1,379.2	443.1	360.7	1,228.4
미주	198.5	156.0	1,272.4	341.7	219.4	1,557.4
아프리카	32.7	49.6	659.3	38.4	73.1	525.3
중동	44.8	54.6	820.5	82.2	61.4	1,338.8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재정리

■ 기술 발달, 코로나 발생 등으로 관광산업분야 고용이 축소

- WTTC(세계여행관광협회)는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179백 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예측하여 동년 4월에 추정한 101백만 개보다 높은 수치 제시
- 여행&관광업계 국내총생산(GDP) 손실 전망도 세계 여행 및 관광 부문에서 총 12,110 만 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세계 GDP는 34,350억 달러의 손실 예상

■ 우리나라 국가관광경쟁력지수(WEF)는 2019년 기준 16위를 차지

- 2년마다 발표한 WEF(World Economic Forum)의 국가관광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기준으로 16위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 19위, 2015년 29위, 2013년 25위, 2011년 32위를 차지하여 점진적으로 관광경쟁력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이 높게 평가된 항목은 정보통신기술(ICT) 준비 수준(7위), 문화자원 및 비즈니스 여행(12위)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격 경쟁력(103위), 자연자원(102위) 분야가 하위권으로 평가 받아 관광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

〈표 23〉 2015-2019년 국가관광경쟁력 지수 결과

(단위 : 위, 점)

분야	부문	2015년		2017년		2019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환경조성	비즈니스 환경	69	4.4	44	4.7	42	4.8
	안전 및 보완	61	5.5	37	5.8	30	5.9
	보건 및 위생	16	6.4	20	6.4	17	6.4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40	4.8	43	4.9	36	5.0
	정보통신기술(ICT) 준비수준	11	6.0	8	6.2	7	6.3
	소계	28	5.4	24	5.6	19	5.7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관광 우선순위	71	4.5	63	4.6	53	4.9
	국제 개방성	53	3.6	14	4.6	17	4.3
	가격 경쟁력	109	4.1	88	4.7	103	5.0
	환경 지속가능성	90	3.9	63	4.2	27	4.7
	소계	82	4.0	47	4.4	31	4.7
인프라	항공 운송 인프라	31	4.1	27	4.3	24	4.6
	육상 및 항만 운송 인프라	21	5.1	17	5.0	15	5.2
	관광서비스 인프라	70	4.3	50	4.6	23	5.6
	소계	40	4.5	27	4.6	16	5.1
자연·문화 자원	자연자원	107	2.3	114	2.3	102	2.4
	문화자원 및 비즈니스 여행	12	4.9	12	4.9	11	4.8
	소계	22	3.6	22	3.6	24	3.6

자료: WEF(2015-2019),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9 재구성

나. 국내 관광시장 동향

■ 국내여행 참가자 수 등 관광 관련 지표가 상승 추세

- 국내여행 참가자수, 참가횟수, 총비용, 이동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17년 국민 국내여행 참가자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약 4,048만 명이며, 참가 횟수는 전년 대비 17.9% 증가한 2억 8,496만 6천 회로 조사. 총비용과 이동총량은 각각 29.5조 원, 4.8억 일로 각각 전년 대비 11.4%, 16.3% 증가

〈표 24〉 국민 국내여행 실태조사 결과

(단위: 만 명, 천회, 조원, 억일, %)

구 분	참가자수		참가횟수		총비용		이동총량	
	만 명	성장률	천 회	성장률	조 원	성장률	억 일	성장률
2013년	3,780	2.4	231,034	8.2	23.2	-2.9	3.89	6.6
2014년	3,805	0.7	227,815	-1.4	24.9	7.3	3.98	2.3
2015년	3,830	0.7	238,300	4.6	25.3	1.6	4.06	2.1
2016년	3,929	2.6	241,750	1.4	25.7	1.6	4.12	1.5
2017년	4,048	3.0	284,966	17.9	29.5	11.4	4.80	16.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각 년도. 국민여행실태조사

주) 조사방식 변경으로 변경 전(~2017년)의 조사 결과와 변경 후(2018년~)의 조사결과 간의 비교는 불가함

■ 2019년 국민 10명 중 9.2명은 국내여행 경험자

- 2019년 국내여행 경험률은 92.4%이며, 여행횟수는 344,750천 회, 여행일수는 585,710천 일, 여행지출액은 44,183십억 원

〈표 25〉 2019년 국민 국내여행조사 결과

(단위: %, 천회, 천일, 십억 원)

구 분		국내여행	관광여행	기타여행
여행경험률(%)		92.4	85.0	69.5
여행횟수 (천 회)	국내여행	344,750	263,257	81,492
	숙박여행	162,376	129,603	32,772
	당일여행	182,374	133,654	48,720
여행일수 (천 일)	국내여행	585,710	453,051	132,659
	숙박여행	403,336	319,397	83,939
	당일여행	182,374	133,654	48,720
여행지출액 (십억 원)	국내여행	44,183	38,015	6,168
	숙박여행	30,041	26,580	3,460
	당일여행	14,142	11,435	2,70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여행조사

1) 국내여행 총량은 우리나라 국민의 여행행태를 나타내는 주요 항목들을 수치로 표현한 것

2) 행정구역상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여행을 의미하며 일상적이며 규칙적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 제외

■ 방한 외래관광객 양적 성장세였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급감

- 2019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2018년 대비 14.0% 증가한 1,75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나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 금지, 자가 격리, 항공운항 중단 등이 지속되면서 2020년 방한 외래관광객은 85.6%가 급감

〈표 26〉 방한 외래 관광객 수 및 성장률

(단위: 천 명,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원	11,140	12,176	14,202	13,232	17,242	13,336	15,347	17,503	2,519
성장률	13.7	9.3	16.6	-6.8	30.3	-22.7	15.1	14.0	-85.6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 외래관광객 관광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외래관광객의 전반적 만족도는 2019년에 93.4%로 2018년 대비 다소 증가(0.3%)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 항목별로는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치안(안전성)’(91.8%), ‘쇼핑’(89.7%), ‘대중교통’(89.4%) 순이며,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언어소통’(62.5%), ‘길 찾기’(75.2%), ‘여행 경비’(77.4%) 순으로 조사

〈표 27〉 한국 여행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출입국 절차	87.7	87.7	87.2	88.3	87.7	89.0
대중교통	87.5	87.7	87.3	89.1	87.0	89.4
숙박	88.7	90.1	90.7	89.9	86.9	88.9
음식	85.5	85.8	86.6	87.1	84.9	84.9
쇼핑	89.6	90.1	92.5	92.0	89.8	89.7
관광지 매력도	84.1	86.4	88.3	87.0	85.9	86.4
여행경비	74.3	71.9	77.2	77.3	73.7	77.4
치안(안전성)	90.0	90.9	92.5	93.3	91.3	91.8
모바일/인터넷 이용 편의	-	-	-	-	87.9	86.6
언어소통	62.5	65.8	68.1	66.2	60.5	62.5
길 찾기	-	-	-	-	76.0	75.2
관광안내서비스	80.1	82.9	85.6	83.5	81.7	81.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년도), 외래관광객조사

2. 관광환경 변화 분석

가. 사회적 변화

■ 삶의 질을 중시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관광활동 확대

- 일이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일과 여가 균형'을 이룬 워라밸이 핵심가치로 인식되면서 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
 -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향후 하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 '관광'(7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취미 및 자기계발'(46.7%)순으로 조사
- 관광객들이 인파와 교통체증을 감수하는 대신 집과 가까운 시설, 좋은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하는 어반 힐링(Urban Healing) 현상 확대
 - 어반 힐링은 도심에 위치하고 관광객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갖추어진 호텔을 선택해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호캉스(호텔+바캉스의 합성어)의 개념 부각
- 코로나19로 밖에 나가기보다 집에서 영화시청, 음악 감상, 독서 등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머물다(stay)'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인 스테이케이션(Stacycation)이 활성화

■ 고령인구 증가 및 출산율 감소로 지역의 성장동력과 관광역량 감소 예상

-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세계적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2018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에 이르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를 의미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등장하여 노령 관광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많은 노령층은 경제적 빈곤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예상
- 2020년 시작된 인구 감소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20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으며, 전국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46%(2021년, 관계부처 합동)에 이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요구

나. 기술적 변화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로 관광서비스의 디지털화 가속

- 2016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면서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등이 중요 이슈로 제시

-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은 물론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고, 나를 대신하는 존재(아바타)와 연결된 메타버스형 관광에 대한 관심 고조
 - 메타버스는 가공이라는 의미의 메타(meta)와 세계, 우주 등의 의미인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가상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3의 공간을 의미
- 관광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융합되면서 그동안 집계가 어려웠던 관광객 이동과 소비 패턴을 신용카드와 네비게이션 등의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관광지 조성 및 코스 개발 사업 등이 진행

■ 맞춤형 이동수단 및 항공도심교통 등 교통 체계 개선으로 접근성 강화

- 대중교통과 자가 차량에 한정되었던 이동수단들이 다양화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은 물론 드론과 관광용 무인항공기가 상용화를 준비하는 등 교통체계의 혁신적 변화 예상
- 정기 노선 및 시간에 따라 운행되던 대중교통이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교통체계로 변화되면서 이용객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이 가능해져 관광객들에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편의성 제공
- 교통 체증과 탄소 배출 등이 지적되었던 육상 교통체계는 대기업들 참여로 도심항공교통(UAM)으로 변화되는 등 관광, 여가, 업무 목적의 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편리함, 안전성, 신속성 등 다양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교통수단 등장
-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관광산업의 탈 경계화가 가속화되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관광분야를 창출하는 융합관광의 확대 예상

다. 경제적 변화

■ 전염병 위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형태 변화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으로 여행과 모임이 제한되는 등 지역간 이동을 전제로 하는 관광산업 성장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
- 기술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은 디지털화와 비대면 서비스를 확산시켰고, 이로 인한 관광산업 생태계 변화 및 고용시장의 혁신적 변화 요구 증가
 - 세계여행관광협회(WTTC)는 코로나19로 관광 분야 일자리가 1억80만 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아시아는 가장 많은 6,340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20.5월 기준)

■ 관광사업체의 서비스 기반이 대규모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

- 여행사, 호텔 등 전통적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사업체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관광

객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관광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고 코로나19를 겪으며 전통적 관광사업체의 사업 다각화, 온라인 여행업체 인수합병 등 다각적 투자 확산 - 개별여행객 비중 확대로 관광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구매가 가능한 관광서비스 플랫폼들이 구축되고 있으며 ‘야놀자’(통신판매업 및 관광사업), ‘여기 어때’(통신판매업 및 관광사업) 등 관광서비스에 특화된 환경으로 변화

- 온라인 여행사(OTA: Online Travel Agency)가 급성장하며 기존 대리점 중심 여행사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며 공유형 서비스인 우버, 그랩 등 차량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공유형 숙박 서비스 활성화

라. 환경적 변화

■ 코로나19 계기로 안전·위생 강조 및 비대면 사회의 부상

- 안전은 관광서비스의 기본 요소이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가치와 중요성이 증가하여 관광목적지 선택의 결정적 요인으로 부상
-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면 접촉을 기피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이 발달하여 대면 서비스 비중이 높은 관광분야에서도 예약, 안내, 체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전망
- 실내보다는 저밀도 청정지역 중심의 실외관광지 선호도가 증가하여 건강을 추구하는 여행수요나 아웃도어형 또는 자연친화적 여행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캠핑, 차박, 골프, 등산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관광지의 밀집도와 관광객 수용 여부가 중요해져 관광수용력 개념이 강조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보호와 공정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 증가

- 탄소 중립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 관광에서 국가의 위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나, 탄소중립을 당장 실천에 옮기거나 자신에게 직접 연관되는 사항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관광사업자와 관광객의 인식개선 필요
-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존 관광지 등은 시설 및 구조를 저탄소로 전환해야 하며, 관광교통 분야 등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직접적 영향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으로 확정('15.6.)되었고 관광분야에서 타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시범 사례 또는 대상지 조성 필요
- 기업의 재무적 지표보다는 ESG 등 사회적 역할이 중시되면서 MZ세대들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관광기업들이 증가

마. 정책적 변화

■ 지방분권 가속화 및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추진

- 중앙정부 지방 분권 추진으로 주요 관광개발사업의 지방 이양이 완료되었고, 국가관광 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역주도형’ 관광정책을 추진
- 지자체간 관광역량의 격차를 완화하고 관광개발의 기획-개발-운영-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위한 범부처 정책 추진 확대

■ 관광취약계층 참여 정책 지원 확대 및 공정관광 가치 강조

- 정부는 편리한 관광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관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열린 관광지 사업을 진행 중이며, 고령층 뿐 아니라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관광지 조성 추진
- 관광지에 점자 촉지도 및 음성안내 서비스를 설치하고, 픽토그램으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며, 계단과 문턱을 최소화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이 편리하도록 유도
- 관광목적지로서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생태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편익을 개발하고, 도덕적 차원에서 관광을 소비하는 관광객과의 관광사업체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는 공정관광의 가치 강조

3. 의견조사 분석

가. 전 국민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 전 국민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69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0년 후 관광에서 고려해야 할 가치, 선호 관광자원 및 관광활동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표 28〉 전 국민 조사 설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 설계	조사대상	전국 만18~69세 일반 국민
	표본설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비율 기준 비례배분
	표본크기	1,000명 (오차 95% 신뢰수준, ± 3.1% point)
	조사방법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설문 주요 내용	10년 후 관광 예측	- 10년 후 관광에서 고려되어야 할 가치 - 10년 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시설 - 현재, 5년 후, 10년 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활동 - 10년 후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내 지역

2) 주요 결과

■ 10년 후 가장 고려해야 할 가치는 ‘친환경’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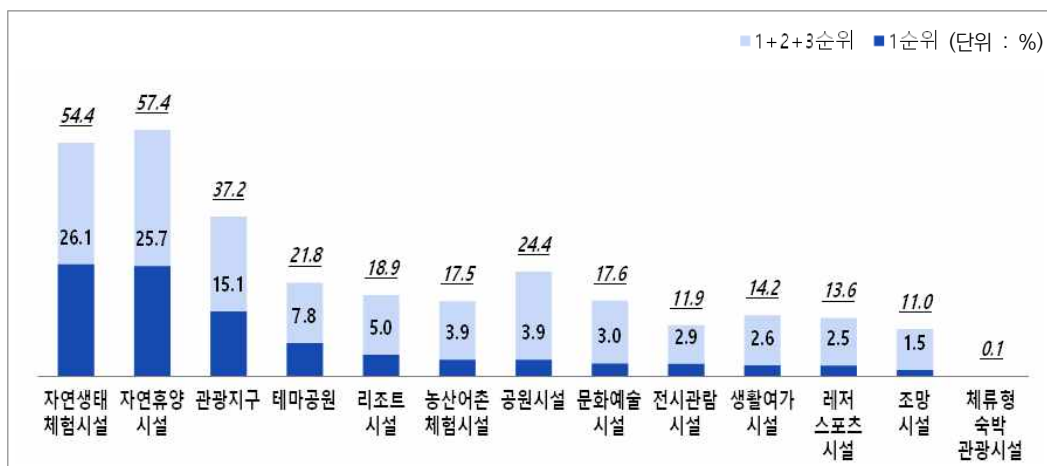
- 10년 후 관광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가치는 1순위를 기준으로 ‘친환경’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질’(12.8%), ‘안전’(8.7%), ‘소통’(7.4%) 순으로 조사
- 1, 2, 3순위를 합한 결과도 ‘친환경’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질’(33.5%), ‘안전’(24.0%), ‘행복’(21.5%)의 순으로 조사



[그림 4] 가장 고려해야 할 가치 (1순위 기준 상위 10개)

■ 10년 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광시설은 ‘자연 관련 시설’

- 10년 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광시설은 1순위를 기준으로 ‘자연생태 체험시설’이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휴양시설’(25.7%), ‘관광지구’(15.1%), ‘테마공원’(7.8%), ‘리조트 시설’(5.0%) 순으로 조사
- 1, 2, 3순위를 합한 결과는 ‘자연휴양시설’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생태체험시설’(54.4%), ‘관광지구’(37.2%), ‘공원시설’(24.4%), ‘테마공원’(21.8%) 순으로 조사



[그림 5] 10년 후 가장 선호할 것 같은 관광시설

■ 10년 후 가장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는 관광활동은 ‘자연체험’

- 가장 선호하는 관광활동 조사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현재는 ‘맛집/먹거리/식도락/음식’이 25.1%, 5년 후는 ‘맛집/먹거리/식도락/음식’이 21.8%, 10년 후는 ‘자연/자연체험’이 17.2%로 나타남
 - ‘맛집/먹거리/식도락/음식’은 5년 후까지는 중요 테마로 활용이 가능하며, 1순위에 대한 집중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다양한 관광활동을 추구할 것으로 분석
- 1, 2, 3순위를 합한 결과 현재는 ‘맛집/먹거리/식도락/음식’이 55.8%, 5년 후는 ‘맛집/먹거리/식도락/음식’이 50.5%, 10년 후는 ‘맛집/먹거리/식도락/음식’이 42.7%로 조사
- ‘쇼핑’의 선호도 분석 결과, 현재는 18.4%이나 5년 후에는 8.7%, 10년 후에는 6.7%를 나타내 현재는 비중이 높으나 점차 선호도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표 29〉 가장 선호하는 관광활동 (중복응답/1순위 기준 상위 5개)

(단위 : %)

현재			5년 후			10년 후		
관광활동	1 순위	1+2+3 순위	관광활동	1 순위	1+2+3 순위	관광활동	1 순위	1+2+3 순위
맛집/먹거리/식도락/음식	25.1	55.8	맛집/먹거리/식도락/음식	21.8	50.5	자연/자연 체험	17.2	26.7
쇼핑	18.4	45.1	자연/자연 체험	16.2	26.6	여가/휴식/휴양	14.2	21.2
자연/자연 체험	12.9	21.4	여가/휴식/휴양	8.8	15.9	맛집/먹거리/식도락/음식	13.6	42.7
여가/휴식/휴양	6.0	14.1	쇼핑	8.7	30.6	레저스포츠/운동	7.6	22
레저스포츠/운동	5.4	20.4	레저스포츠/운동	8.6	26.4	쇼핑	6.4	25.9

■ 10년 후 가장 방문하고 싶은 지역은 ‘제주도’

- 10년 후 가장 방문하고 싶은 국내 관광지역은 1순위 기준으로 ‘제주도’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13.1%), ‘서울특별시’(8.2%), ‘전라남도’(7.6%), ‘부산광역시’(5.3%) 순으로 조사
- 1, 2, 3순위를 합한 결과 역시 ‘제주도’가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56.1%), ‘전라남도’(34.0%), ‘부산광역시’(29.4%), ‘서울특별시’(24.0%) 순으로 조사



[그림 6] 10년 후 가장 방문하고 싶은 지역

■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요구

- 10년 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정책은 1순위 기준으로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테마 숙박, 쇼핑, 음식자원 개발’(18.4%),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광지 조성’(17.7%) 순으로 조사
- 1, 2, 3순위를 모두 합한 결과는 ‘다양한 테마 숙박, 쇼핑, 음식자원 개발’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매력적인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62.6%)로 조사

나. 전문가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 전문가 설문조사를 관광, 지역, 지역개발 등 관광개발과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방향, 가치, 비전 및 전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표 30〉 전문가 조사 설계

구분		주요 내용
조사 설계	조사대상	관광개발, 지역, 지역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표본설계	학계, 지역연구기관, 업체 등의 전문가
	응답자 수	100명
	조사방법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설문 주요 내용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이 가져야 할 방향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안)의 평가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대전략의 적정성

2) 주요 결과

■ 민간사업체 투자유치 부진을 중요 원인으로 인식

- 편협성과 관련한 설문에서 관광개발 분야 문제점은 ‘민간사업체의 투자 부진으로 사업 장기화’가 4.32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관광지 관리/운영 노하우 부족’(4.28점), ‘고용 등 관광개발의 지역파급효과 미비’(3.93점), ‘자연 및 문화 자원 중심의 관광개발’(3.00점) 순으로 조사

■ 하드웨어 시설 중심의 관광개발 추진으로 인한 한계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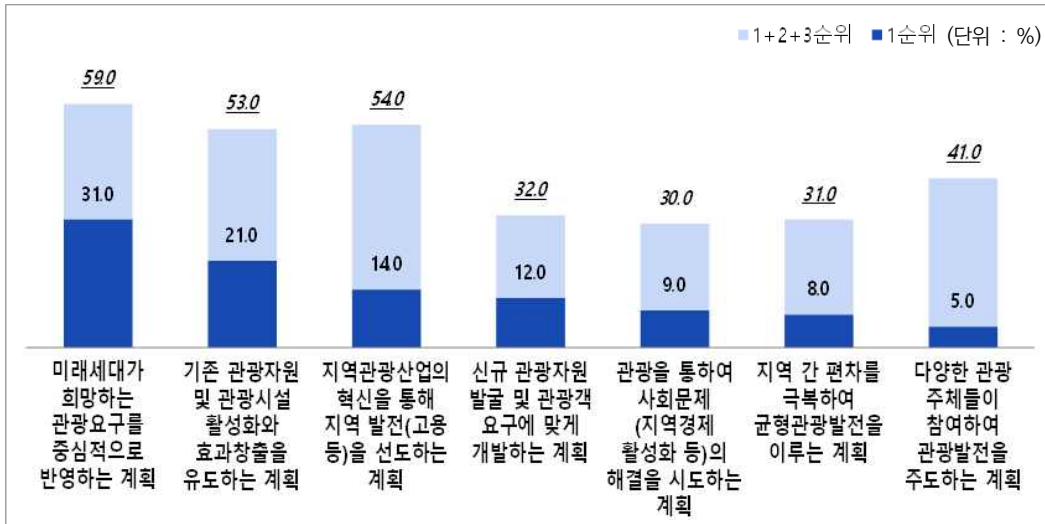
- 편중성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하드웨어 시설 중심의 사업 내용’이 4.08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일부 시/도에 관광객 집중’(3.90점), ‘관광사업체, 교통시설 등의 지역 편차’(3.89점), ‘단일 기능만 가능한 시설 도입’(3.56점) 순으로 조사

■ 수요자를 고려한 시설과 콘텐츠를 보완

- 단절성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관광객 요구를 고려하지 못한 시설과 콘텐츠’가 4.44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자치단체 간 유사시설 중복’(4.31점), ‘지역자원 활용 등 지역사회와 연계 부족’(4.22점), ‘특정 부처 중심 개발 진행’(3.63점) 순으로 조사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은 ‘미래 세대의 요구 반영’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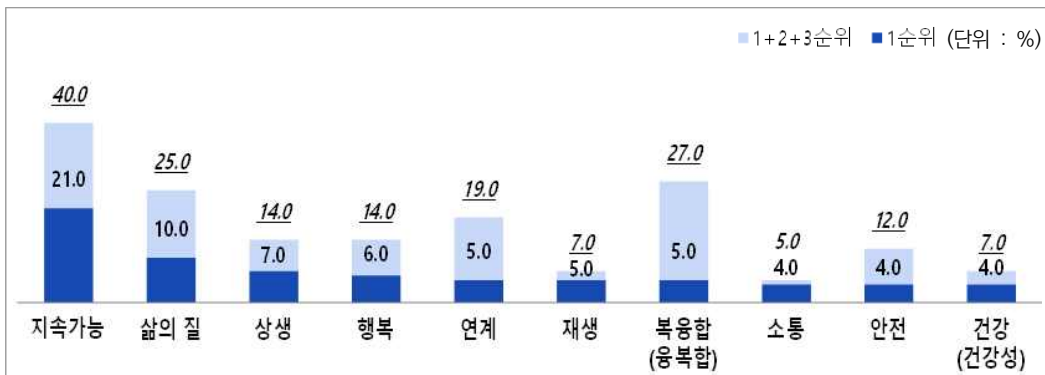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은 1순위 기준으로 ‘미래 세대가 희망하는 관광요구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계획’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활성화와 효과 창출을 유도하는 계획’(21.0%), ‘지역관광산업의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계획’(14.0%) 순으로 조사



[그림 7]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추진 방향

■ 10년 후 가장 고려해야 할 가치는 ‘지속가능’

- 10년 후 관광 부문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가치는 1순위를 기준으로 ‘지속가능’이 2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삶의 질’(10.0%), ‘상생’(7.0%), ‘행복’(6.0%) 순으로 조사
- 1, 2, 3순위를 합한 결과도 ‘지속가능’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복용합’(27.0%), ‘삶의 질’(25.0%), ‘혁신’(22.0%), ‘연계’(19.0%) 순으로 조사



[그림 8] 가장 고려해야 할 가치 (1순위 기준 상위 10개)

다. 청년참여단 운영 및 의견 수렴

1) 청년참여단 운영 개요

■ 계획 수립 단계에서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참여단 운영

- (추진 배경)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상시 참여하여 청년이 함께 만들고 공감하는 관광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 및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
- (홈페이지 운영) 청년참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 (TDSS)' 내에 대국민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수립 과정 및 행사 일정 공유, 청년참여단 미션 수행 및 의견 교류 게시판을 운영
- (청년참여단 구성 및 활동) 10년 후 관광의 핵심 소비계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광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대학에서 추천 받아 108명의 대학생 청년참여단을 구성하고 주요 질의 내용을 미션 형태로 수행

〈표 31〉 청년참여단 주요 미션 내용

미션	내용
1	가장 인상 깊었던 국내 관광지와의 이유는?
2	당신이 10년 후 하고 싶은 국내 관광활동과 그 이유는?
3	국내관광을 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4	당신이 최근에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미래지향적인 관광형태는 무엇인가?
5	당신은 북한관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
6	현재 살고 있는 지역 또는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
7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
8	당신은 아래 제시한 전략별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술

2) 주요 결과

■ 10년 후 하고 싶은 국내 관광활동은 '휴양관광'

- 10년 후 희망 관광활동은 힐링 목적의 휴양관광(28.0%), ICT기반의 스마트관광(17.0%)이 다수를 차지하고, 생태 및 해양관광, 스포츠관광, 음식관광 순으로 응답

■ 국내관광을 하는데 가장 불편한 점은 '교통'

- 국내 관광 활동하면서 제약요인으로 교통 문제인 교통수단, 지역 접근성, 혼잡, 바가지요금 등 교통 관련 불만이 39.0%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관광지 획일성 및 유명관광지 편중(11.0%), 편의시설과 무장애 관광시설 미흡(10.0%) 순으로 응답

4. 관광 빅데이터 분석

1) 분석 개요

■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동 및 목적지 등의 추세 분석

- 한국관광데이터 랩(<https://datalab.visitkorea.or.kr>)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목적지 검색어를 분석¹⁾

2) 주요 결과

■ 관광객의 광역지자체 외부 이동보다 내부 이동 증가

- 지역별 관광객 이동행태를 분석한 결과,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모든 광역지자체에서 전년 대비 외부방문자가 감소하였고, 서울특별시가 -28%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고, 인천광역시가 -26%, 제주도가 -20%로 나타나 변동이 심한 지역은 관광객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예측

■ 실외 관광활동 및 식·음료 검색 결과 증가

-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목적지를 분석한 결과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음료'로 2018년에 49.8%, 2019년에 52.1%, 2020년에 55.6%로 분석
-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쇼핑'으로 2018년에 11.2%, 2019년에 11.5%, 2020년에 12.3%로 나타났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다른 관광활동이 제한되면서 쇼핑 항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 비중이 줄어든 항목은 '공연/행사'로 2018년에 3.1%, 2019년에 3.0%였으나 2020년에 1.4%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
- 광역지자체 기준 목적지 검색 증감률 분석 결과, '레포츠'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7.7%, 36.2%, 20.6%로 나타났으며, '자연관광지'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21.7%, 23.7%, 19.9%로 지속적으로 상승
- '쇼핑', '식·음료' 항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휴양관광지', '공연/행사', '문화시설' 항목은 검색 건수가 201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

1) 이동통신, 신용카드, 네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자료 구축 시점이 다양하고 해석 시에는 절대 값보다 추세치에 근거하여 결과 분석

제4절 관광수요 및 공급 분석

1. 관광수요 분석 결과

가. 국내관광 수요

■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반영한 수요 제시

- 내국인 국내관광 수요 예측 결과, 2026년에는 2019년 대비 약 10% 성장한 3.8억 명, 2031년에는 4.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관광이 감소했지만, 2023년 국내관광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시나리오에 기초
 - 국내관광 회복 시점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국내관광이 시나리오보다 빠르게 혹은 보다 느리게 회복된다면 실제 국내관광 수요와 예측치는 상이
- 외래관광객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관광 시장의 충격으로 국제관광객이 2024년에 도달해셔야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시나리오에 기초(Livinec and Adjiman, 2021; UNWTO, 2021a, 2021b)하여 예측
- 2026년 외래관광객은 1,962만 명, 2031년 외래관광객은 2,694만 명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수치는 2010년과 비교하면 약 2.2배, 3배 성장한 것이며, 2019년 대비로도 각각 약 1.1배, 1.5배로 성장한 수치

〈표 32〉 국내외 관광 수요 예측 결과

(단위: 만 명)

연도	계	외래관광객	국내관광객		
			소계	숙박관광객	당일관광객
2016	26,220.7	1,724.2	24,496.5	10,378.3	14,118.3
2017	30,226.2	1,333.6	28,892.6	11,640.9	17,251.7
2018	32,650.0	1,534.7	31,115.3	16,320.4	14,794.9
2019	36,225.3	1,750.3	34,475.0	16,237.6	18,237.4
⋮	⋮	⋮	⋮	⋮	⋮
2026 (예측치)	39,859.9	1,961.8	37,898.1	21,019.4	16,878.7
2031 (예측치)	46,734.7	2,693.9	44,040.8	25,378.4	18,662.4

- 2026년 국내관광객 여행일수는 6억 8,834만 일이며, 숙박관광객 여행일수는 5억 1,956만 일이며, 당일관광객은 여행일수는 1억 6,879만 일로 전망
- 2031년 국내관광객 여행일수는 8억 1,393만 일로, 숙박관광객 여행일수는 6억 2,730만 일, 당일관광객 여행일수는 1억 8,662만 일로 전망

〈표 33〉 국내관광객 여행일수 예측 결과

(단위: 만 일)

연도	계	숙박관광객	당일관광객
2026	68,834.7	51,956.0	16,879.7
2031	81,393.0	62,730.6	18,662.4

나. 지역별 관광수요

■ 지역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관광수요 제시

- 지역별 관광수요는 국내관광 예측치 및 방한관광 예측치를 합산한 수치에 국민여행조사와 외래관광객조사 방문 지역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단, 지자체별 예측은 중복치를 고려하여 산출함으로써 각 지자체별 합계는 전체 수요 예측결과보다 상회하여 산출

〈표 34〉 지역별 관광 수요 예측결과

(단위: 만 명)

구분	2026년				2031년			
	외래 관광객	국내 관광객	숙박 관광객		외래 관광객	국내 관광객	숙박 관광객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숙박 관광객	당일 관광객
서울	1,535.30	2,173.2	793.3	1,379.8	2,108.25	2,483.4	957.9	1,525.5
경기	281.71	4,984.7	1,764.0	3,220.8	386.84	5,690.7	2,129.8	3,560.9
부산	253.46	2,332.8	1,604.7	728.1	348.05	2,742.5	1,937.5	805.0
제주	265.63	1,690.8	1,578.3	112.5	364.75	2,030.0	1,905.6	124.4
인천	154.20	1,432.2	595.9	836.3	211.74	1,644.1	719.5	924.7
강원	145.57	5,083.4	3,855.4	1,227.9	199.89	6,012.6	4,655.0	1,357.6
대구	46.69	823.8	399.0	424.8	64.11	951.4	481.8	469.6
경북	51.01	3,317.3	1,822.2	1,495.1	70.04	3,853.1	2,200.1	1,653.0
경남	44.34	3,487.5	1,876.7	1,610.8	60.88	4,046.8	2,265.8	1,780.9
전북	28.64	2,336.0	1,162.2	1,173.8	39.33	2,701.0	1,403.2	1,297.7
대전	27.86	1,016.3	502.1	514.1	38.25	1,174.7	606.3	568.4
충남	25.11	3,072.5	1,579.9	1,492.6	34.48	3,557.8	1,907.5	1,650.3
충북	15.30	1,541.2	861.3	680.0	21.01	1,791.7	1,039.9	751.8
광주	18.44	543.8	315.7	228.1	25.32	633.4	381.2	252.2
울산	20.40	541.4	269.9	271.6	28.02	626.1	325.8	300.2
전남	19.23	3,292.5	1,943.1	1,349.4	26.40	3,838.0	2,346.1	1,491.9
세종	6.28	229.7	95.7	134.0	8.62	263.7	115.5	148.1

2. 관광공급 분석 결과

■ 수급 분석의 한계점 극복을 위하여 수요분석과 공급분석 분리

- 기존 관광공급 분석은 원단위 개념을 차용하여 시설 유형에 따라 별도 이용 가능한 인원을 설정하고 이를 공급능력(명)으로 환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같은 분석은 국제적으로 권장 되는 관광공급 통계 가이드라인과 불일치(UNWTO, 2000; European Union, 2014)

■ 공급측면에서 관광시설들 간의 편차를 고려한 공급방식 적용

- 관광공급의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적정수용력에서 관광시설 당 기대 사용 인원’ 제공으로 공급분석 기준과 방향 변경
 - 제1-3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적정수용력 = 공급능력’ 가정 아래 공급분석 추진 하였으나 적정수용력과 공급능력은 불일치하는 개념(공급능력 > 적정수용력)이고 과학적 근거 없이 면적당 수용력을 시설별로 다르게 산정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는 실제 관광지점의 방문인원 데이터에 근거, 민간·지역의 자율적인 추가 관광지점의 공급증가에 따른 기대 사용 인원 제시
- 1,249개 관광지점의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72개월의 관광객 분포를 분석하여, 신규 관광지점 공급 시 기대 관광객을 도출

〈표 35〉 시설 유형별 입장객 통계

(단위: 명)

시설 유형	주요 관광지점 소분류	평균	중위수
관광지구	관광단지(C0101), 지정관광지(C0103), 유원지(C0803), 해수욕장(C0804)	463,838	115,446
테마공원	동물원(C0305), 수영장(C0404), 테마공원(Thema Park) (C0802)	560,578	207,858
전시체험시설	박물관(국립·사립)(C0302), 미술관(C0303), 전시관(장)(C0308), 국제회의장(C0309), 수족관(C0316), 문학·영화·드라마 배경지(C0317), 학습·체험시설(C0817)	189,755	55,825
자연생태체험 시설	숲·수림(B0308), 오솔길·동산·산책로(B0308), 갯벌(B0407), 식물원(C0306), 수목원(C0807), 테마길(C0813), 오솔길·동산·산책로(B0311)	271,286	111,096
자연휴양시설	자연휴양림(C0806), 야영·캠핑장(C0506), 자동차야영장(C0507)	80,228	46,183
농산어촌체험 시설	농촌체험마을(A0405), 관광농원(C0808), 농·어촌휴양지(C0809), 관광목장(C0819), 부두(C0703), 유람선선착장(C0708), 나루터(C0709)	192,375	31,187
숙박시설	관광호텔업(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활용)	47,882	22,451
리조트시설	온천지구(C0805), 골프장(C0406), 스키장(C0410)	163,640	113,275
레저 스포츠시설	체육시설기타(C0401), 수영장(C0404), 자동차 경주장(C0412), 요트장(C0413), 레프팅장(C0415), 낚시터(C0419), 관광승마장(C0423), 레일바이크(C0424),	192,482	88,204
조망시설	전망대·조망시설(B0503), 케이블카(B0707), 출렁다리	341,724	125,164
생활여가시설	체육관(C0402), 운동장(C0403), 수련장(C0812)	86,149	25,951
공원시설	공원기타(C0201), 도시공원(C0205), 야외조각장(C0304)	391,075	165,529
문화예술시설	출생지·생가터(A0103), 마을 기타(A0304), 마을 기타(A0401), 전통문화마을(A0403), 도예촌·예술촌(A0404), 민속촌(B0810), 공연장·소극장(C0310), 문화예술회관(C0311), 문화원(C0312)	233,833	74,224

제5절

종합분석

1. 관광개발 주요 변화와 이슈

가. 관광객이 관광개발을 주도하는 시대 도래

■ 관광의 일상화와 일상의 관광자원화

- 일과 여가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벨(WLB)이 보편적 사회문화로 확산되고 주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어 국민들의 관광 수요가 확대되면서 관광의 일상화가 보편화
- 관광경험의 보편화로 보다 차별적이고, 세분화된 관광경험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타인의 일상 공간을 관광목적지로 방문하는 일상의 관광자원화가 확대
- 자연과 역사문화 자원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관광자원에 머무르지 않고 타 영역과의 융합, 콘텐츠 연계,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등 관광자원 영역이 확장되고 관광자원과 비관광자원의 경계가 사라지는 현상 증가

■ 관광객이 주도하는 관광개발로 패러다임 전환

- 일률적인 테마보다는 SNS를 기반으로 개성 있는 경험소비를 추구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직접 발굴하고 생산하며 소비하는 관광객 증가
- 능동적 관광소비와 생산을 병행하는 관광객들이 프로슈머로 성장하여, 정해진 관광지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자연스럽게 관광지가 되는 시대 즉, 관광객이 관광지를 규정하는 시대 도래
- 디지털로 무장한 관광객이 관광의 일상화와 일상의 관광자원화를 주도하였고, 선호와 취향을 앞세운 개성 있는 관광객의 자발적 관광 행태는 향후 관광개발의 방향과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공동화에 대한 관광개발의 선제적 대응

■ 관광행태 다변화와 지역관광 양극화 전망

- 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 고령화, 인구감소 및 그에 따른 지역의 공동화, 개인화 심화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관광행태 다변화는 물론 지역간 관광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편중의 문제점 심화

- 인구 고령화는 국내관광 수요의 축을 급격하게 고령층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서도 액티브 시니어가 새로운 관광 수요시장을 형성하면서 관광개발에서 안전하고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요구 증가
- 인구 감소는 전반적으로 국내 관광시장 규모를 축소시키며, 그 중에서도 경제력 있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역관광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감소하며 지역공동화로 지역관광 추진 제약 전망

다. 관광개발의 지속가능성 제고

■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보편적 과제로서 지속가능개발 목표의 설정과 이행

- 지속가능개발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개발, ESG 등을 포함하는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슈를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평가하며 기후환경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도록 요구하는 이슈가 증가

■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 관광의 실천적 수단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탄소중립 지향의 새로운 글로벌 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관광부문에서는 전향적 사고와 능동적 혁신을 통해 관광객, 민간기업,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 등이 동참하는 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지속가능한 관광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물질적, 문화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관광과 자연환경, 지역사회 등을 조화시켜 관광자원 확충과 지역사회 발전이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 미래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관광 발전 기회를 유지하는 관광을 의미
- 지속가능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진흥법」을 통해 지속가능관광 관련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천 수단 마련 필요

라. 지방분권화, 지역중심 관광개발 정책 지향

■ 지방분권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역량 강화 확산

- 지방분권 정책의 핵심은 국가주도의 성장과 개발에서 탈피하여 국가지원 사업 지방이양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 발굴 및 추진 요구
- 지방분권 시대의 관광개발과 지역관광의 목적은 관광객의 만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

- 2020년 관광지, 관광특구, 관광자원개발사업 등 관광개발 관련 사무가 지방이양 완료 되었고 지역 관광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준비와 노력이 진행 중이나, 코로나19 등 다양한 위협 요인 발생
- 국가 관광 사무와 예산, 조직 등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광개발 정책 추진에 과도기적인 상황을 발생시켜 자율과 책임의 범위와 새로운 관광개발 추진체계,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필요

■ 관광추진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 연계 정책으로 전환 필요

- 기존 지자체 주도 관광개발은 매력적인 관광시설 조성 또는 관광자원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되어 관광추진 역량 제고 및 여타 지역발전 정책과의 연계협력 필요
- 매력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관광시설과 지역주민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생, 연계, 융합 등 다양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 지방분권의 방향 하에서 관광은 자율과 책임의 영역을 관광시설 조성 이후의 시설 운영, 평가, 환류의 영역까지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필요
- 성공적인 관광분권은 중앙과 지방, 지자체간, 다양한 지역관광 주체간 협력적이고 유연한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며,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조직 전문성 극대화 요구

마.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청정하고 안전한 관광 추구

■ 뉴노멀에 따른 안전한 관광자원 등 관광자원의 새로운 기준 요구

- 코로나 19 발생 이후 3밀(밀집, 밀접, 밀폐)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인기여행지보다 덜 변화한 곳, 밀폐되지 않은 청정지역을 찾는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방역 체계와 연계하여 안전한 친환경 관광지 선호
-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 환경 청정지역과 야외 관광활동을 추구하는 관광수요가 확대 되고, 건강, 치유 관련 관광상품 수요가 증가하며 자연형 숙박시설 선호가 확대

■ 소규모 개별관광, 소비양극화, 비대면화 현상 뚜렷

- 코로나 19로 인해 타인과의 접촉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개별관광 증가와 이에 따른 관광 안전관리 체계 강화, 관광객 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 부각
- 기술 트렌드 변화와 연결하여 디지털과 온라인의 영향력이 관광분야에도 작용하여 디지털 및 온라인 기반한 OTA 중심의 관광산업생태계가 조성되고, 비대면 기술이 확대되어 지역관광 안내체계와 예약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코로나 19로 관광소비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고가형 관광상품 및 프라이빗 형태의 관광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세계적 관광시장 침체 속에 관광 산업 생태계가 재편되면서 대규모 관광개발 투자 감소 예상

바. 지역 관광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편중과 양극화 개선

■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 수단으로서 관광 활용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성장과 발전에 있고, 균형발전의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지역간 양적·질적인 차등과 격차를 완화하는 의미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초는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등 주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지역간 균형적 성장과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주민을 배제하고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미의 관광정책으로는 접근에 한계
- 지역관광 균형발전은 관광이 지역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내는 유효한 수단이고, 관광객의 지역분산,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빈틈없는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가능

■ 관광객, 관광사업체, 관광기반시설 등의 지역 편중

-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2020)에 따르면, 관광이 발전한 지역의 의미를 갖는 1등급 기초지자체는 9개인 반면,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수요와 공급 및 정책적 측면에서 양적 및 질적 노력이 필요한 6등급 기초지자체는 27개로 분석
-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이끌어내고 지역관광 균형발전을 추진하는데 관광객, 관광사업체, 관광기반시설 등의 특정지역으로의 편중과 양극화 현상은 관광객 서비스의 품질과 지역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지역관광발전 수준의 불균형은 단기간에 완화하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관광자원, 관광환경, 지자체 관광행정 역량 등의 격차가 근본적 원인으로 분석

사. 관광개발의 연계·협력 요구 확대

■ 자원·콘텐츠·테마, 인프라, 시장, 부처, 지역 등의 연계

- 관광개발의 연계·협력은 시장, 자원, 지역(주체)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단일시설과 관광자원 중심의 관광개발로 발생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연계협력이 확대 전망
- 시장영역에서 관광객은 관광루트를 따라 이동하면서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고, 자원영역에서 관광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자원간 경쟁 및 보완 관계를 형성하

며, 지역영역에서 유사자원 간 효율성 개선 및 공동 브랜드 대응 확대

- 관광개발 연계·협력은 국제(동북아권, 남북한), 국내(지역 간, 지역 내), 주체(부처 간, 부처와 지자체 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테마, 자원·콘텐츠, 인프라·교통, 관광시장, 연관 산업, 시스템, 조직 등으로 다양화하게 표출될 전망

■ 관광부문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다자간 관광개발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기존 단일사업 중심, 규모 의존, 하드웨어 개발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에서 공간적으로 기능 분산, 네트워킹 중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병행 개발 등 연계협력적 기능 확대
- 관광개발의 연계 협력은 비용 감소, 편익을 공유하는 규모의 경제와 물리적으로 인접하지 않더라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경제 달성
- 자원, 시장, 산업의 융복합 등으로 지역 관광산업 성장 구도를 형성하고 지역주도형 관광발전 추진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계협력 관광개발 추진체계 구축 필요

아. 관광 편의기반 품질 제고 및 관광자원화

■ 현장에서 체감하는 관광편의 서비스 품질 제고 요구

- 내·외국인의 지역방문 확대, 지역 전반으로의 관광 확산을 위해 지역관광 정보 부족, 지방공항 등 출입국 불편, 지역 내 관광교통 미흡, 바가지요금 등 낮은 서비스 품질이 지역관광 4대 걸림돌로 지적(2019년 국가관광전략회의)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지역관광을 적극 홍보하고 내외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관광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정보의 실시간 제공 기능 강화 필요
-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공항, 역사, 터미널에서 관광지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관광지에서 관광지로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교통 연계 및 편의 확대 요구

■ 스마트와 무장애를 통한 관광편의 기능 개선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한 관광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스마트한 쇼핑, 교통, 안내, 정보 제공 요구 확대
-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과 함께 무장애 관광정보를 포함한 플랫폼 구축 등 외국인,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이 제약 없는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확대

2. 관광개발분야 내·외적 여건 및 정책 방향

■ 강점과 기회를 살리고 약점과 위협에 대처하는 정책 방향 설정

- (강점 부각) 한류문화자원 경쟁력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관광안내·서비스 체계 혁신, 동북아 관광교류 활성화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 (약점 보완) 신개념·미래 관광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로 관광매력도 제고, 외래관광객 지방분산을 위한 지역관광 홍보,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지역관광주체 역량 강화
- (기회 활용) 코로나 이후 변화된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청정·안심 관광환경 조성, 여행의 일상화에 따른 숨은 관광지 발굴 및 근거리·도심관광 활성화
- (위협 극복) 지역관광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희생·청년층 유입 견인, 탄소중립 사회 관광분야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표 36〉 SWOT 분석

강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중심 한국 문화콘텐츠 경쟁력 상승 ·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경쟁력 및 인프라 세계적 우위 · 급성장한 아시아 관광시장과 지리적으로 인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 부족 · 관광객과 사업체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관광 인지도 및 서비스 수준 저조 ·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아 국제정세 변화에 취약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문화 정착으로 여행수요 증가 · K-방역, K-콘텐츠 등으로 우리나라 국제위상 강화 · 세계관광시장의 확대 및 아태지역 관광규모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구소멸지역 발생 우려 · 친환경·탄소중립 정책 시행으로 개발 제약조건 강화 · 국제 환경 변화와 저성장 기조에 따른 관광 수요와 공급 위축

1. 변화된 관광트렌드에 맞는 매력적 자원을 육성하는 관광개발
2. 현재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개발
3. 누구나 편리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구현하는 관광개발
4. 관광생태계를 기반으로 관광개발 효과가 지역에 환원되는 관광개발
5. 다양한 관광주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입체적 관광개발




제3장

계획의 미래



제1절 계획의 접근
제2절 비전 및 목표
제3절 관광권역 구상



제1절 계획의 접근

1.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 변화

■ 전통적인 관광자원의 경쟁력 강화

-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관광자원인 자연과 문화자원은 관광객들의 주요 관광목적지로서 매력요인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관광객에게 새로운 매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 관광개발 정책 수단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은 사업추진 방식 전환, 추진 주체의 다양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변화 모색

■ 관광자원의 영역 확장 및 무경계화 적용

- 전통적인 관광자원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일상 공간, 산업과 기술 현장, 첨단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공간 등이 결합된 새로운 영역으로 관광자원의 영역을 확장하고 관광자원의 경계가 사라지는 관광수요 트렌드를 반영하여 계획 수립
- 본 계획에서 정의하는 관광자원은 관광자원 공급 주체의 시각에서 바라 본 개발의 대상이 아닌, 관광객의 시각에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매력적인 유무형의 자원을 의미하므로 관광객 수요를 발생시키는 모든 것을 관광자원으로 정의

■ 이용과 관리를 중심으로 한 연계·협력 관광개발 전략 추진

- 관광지와 관광자원에 대한 개념과 이를 바라보는 관광객들의 인식이 전환되어 산업 현장, 상상 속 미지의 세계, 도시단위를 넘어서는 광역권 등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인식하면서 공간과 테마에 대한 지자체간, 부처간, 산업간 연계협력 중요
- 미래 관광개발은 점적 개발방식에서 지역사회 개발을 포함하는 지역간 연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하고, 관광개발의 대상, 형태, 유형, 방식을 창의적으로 접근 필요
- 관광개발은 관광자원, 관광시장, 관광개발 주체 간 상호작용이 이뤄져야 하며 관광개발 정책은 이러한 관광개발의 세부 요소를 원활하게 작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 국가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는 본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관광개발과 진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침계획의 역할 수행 중요

2. 관광개발 패러다임 전환

■ 자원 중심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전환

- 성공적인 관광개발은 관광 수요의 요구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가치가 일치하고, 관광 자원 개발 및 관리 주체가 관광자원이 가진 고유한 매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관광개발
- 미래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는 자원 중심 개발과 관광객 편의시설 조성에서 탈피하여 관광객의 시선에서 관광자원을 바라보고 관광개발의 요소인 자원, 시장, 주체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전환
-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관광개발은 개발 주체인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역할과 더불어 관광객의 요구에 주목하고 이를 담아내는 수단으로 개발, 이용, 보호, 관리가 균형적으로 작동하는 관광개발

■ 매력적인 자원 개발에서 스마트한 자원 이용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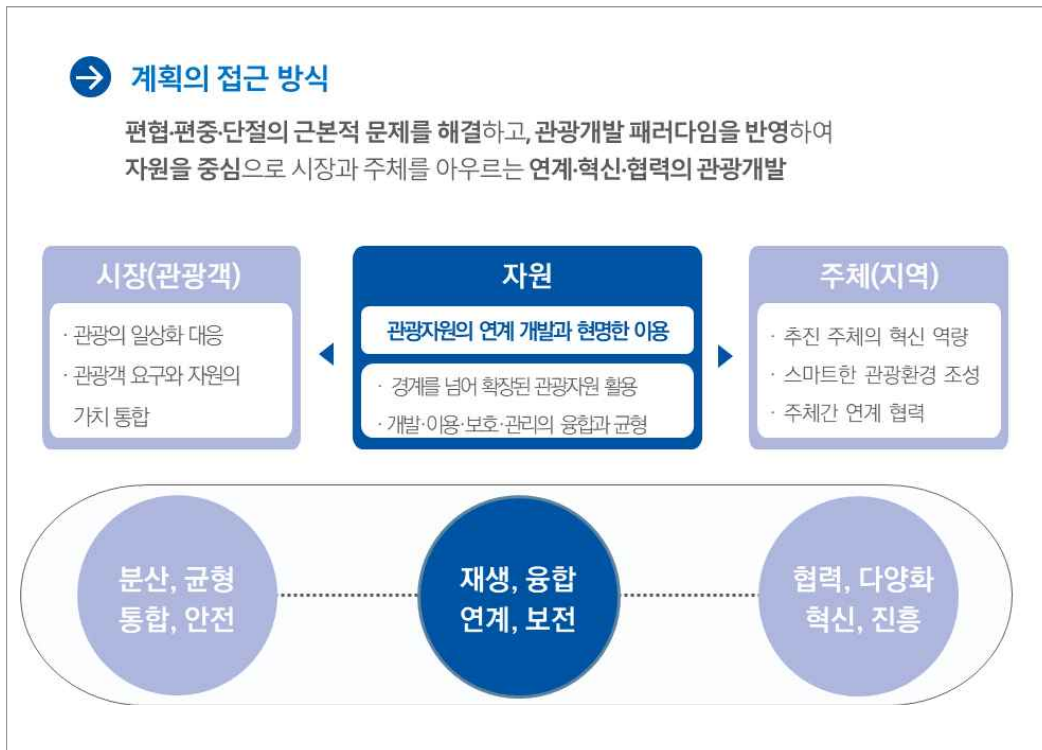
- 매력적인 관광자원 개발은 자원 가치의 우수성을 높이는 방향과 더불어 스마트한 이용, 보호, 관리를 통해 관광자원과 관광객이 교감하는 방향으로 전환
- 매력적인 관광자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지역민의 생활공간 등 지역의 생활문화 자체가 관광자원화 되고, 광범위한 도시와 권역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여 공간과 자원에 대한 이용과 활용 증시
- 미래 관광개발은 단순히 새로운 시설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유무형 자원을 이용하고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매력물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 필요

■ 양적 수요 확대에서 질적 지역 성장 추구

- 미래 관광개발은 관광객의 양적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개발이 아니라 국가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는 질적 성장 전략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 만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관광개발은 정부와 지자체가 관광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지역활동가 등 지역사회 각 부문 주체들이 책임있는 개발과 경영을 가능케하는 지역관광 역량강화와 지역관광 진흥 영역 포함

3. 연계·융합·협력의 관광개발계획

- 관광객이 관광지를 규정하는 시대에 맞춰 관광시장으로서 관광객, 추진주체로서 지역, 경계를 넘어 확장된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연계, 융합, 협력의 관광개발계획 수립
-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이분법적인 접근으로 지역 편중과 지역갈등이 양산되었던 기존의 관광개발계획에서 벗어나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산어촌, 또는 농산어촌간 상호 연계 협력할 수 있는 상생의 관광개발계획 수립
- 관광객의 요구와 관광자원의 가치를 통합하고, 관광객과 지역환경 및 지역민의 관계와 소통을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추구하며, 관광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관리 등 관광개발 방향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관광개발계획 수립
- 관광자원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균형적 접근에 더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 지역사회와 주민의 문화와 예술, 관광객 편의성을 고려한 지역 관광시스템 개발 등 보이지 않는 관광의 가치를 중시하는 관광개발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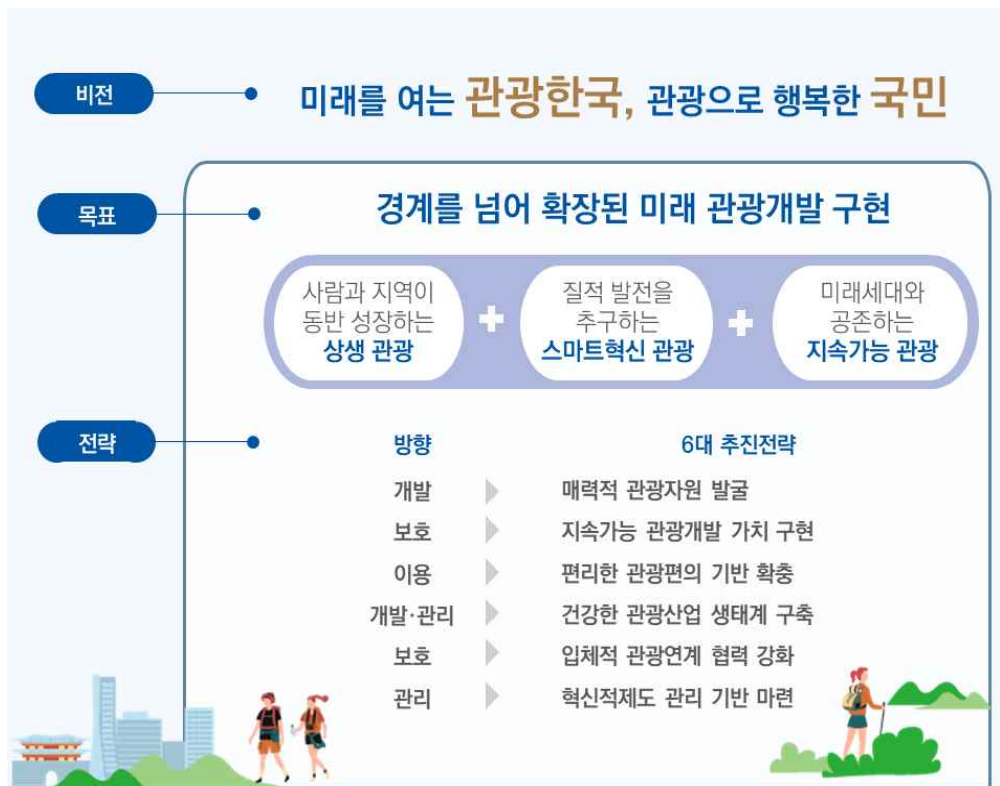


[그림 9] 계획의 접근 방식

제2절 비전 및 목표

1. 계획 비전

- 10년 후의 미래는 관광의 일상화와 일상공간의 관광자원화가 보편화된 환경에서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로서 관광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 필요
- 국가관광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관광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의 방향은 관광객(관광시장), 관광자원, 개발 주체(지자체, 지역주민, 민간 등)의 영역을 아우르고, 연계·협력하는 합리적 사고와 통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설정
- 고착, 편중, 단절의 과제를 해결하고, 사람 중심, 현명한 이용,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10년 후의 비전을 '미래를 여는 관광한국,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으로 설정
- 2031년에는 미래 관광개발 구현을 통해 관광하고 싶은 매력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로서 관광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이룬다는 의미



[그림 10] 비전, 목표, 6대 추진전략

2. 계획 목표

■ 사람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관광

- 미래 관광개발은 지자체, 정부, 민간의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의 특정지역 편중을 완화하고, 관광객과 지역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관광공간을 창출하는 상생관광 실현
- 자원 중심의 관광개발이 아닌 사람과 자원을 연결하고, 관광객과 지역민을 중심으로 관광의 성장 발전을 추구하며,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균형적 추진을 통해 지역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관광 지향
- 관광개발의 효과가 관광산업으로 연결되어 지역성장에 기여하고, 지역민의 일상생활 공간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이 관광객과 지역민이 교류하고 교감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미래지향적 관광선도

■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스마트·혁신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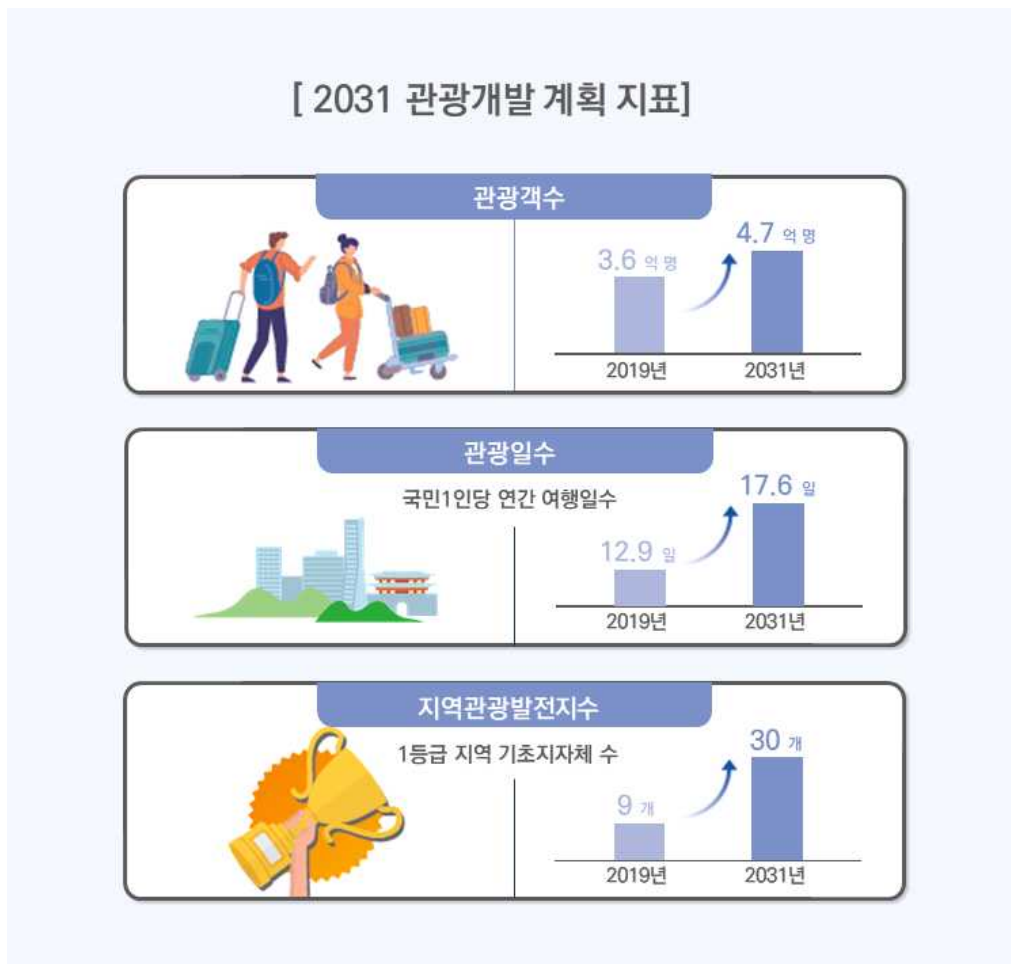
- 관광객과 관광자원의 양적 성장에 치중하는 전통적인 지역관광 추진체계를 탈피하여 관광의 경험과 가치를 확장하여 관광객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산업과 지역사회 발전 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는 스마트 혁신 관광 실현
- 4차 산업혁명, 네트워크 및 기술 발전, 디지털 가속화 등 기술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관광 교통, 숙박, 쇼핑, 음식, 안내, 정보, 방역 등 관광편의기반 전 부문에서 안전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기술융합 관광 확대
-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역관광 역량 제고를 통해 질적 발전의 근간이 되는 로컬의 힘을 배양하고, 과거 관성적인 관광개발을 넘어 관광의 품격과 관광서비스의 가치를 중시하여 지역관광의 질적 발전을 추구하는 혁신적인 관광 지향

■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관광

- 관광자원 보호의 개념을 넘어 관광시장(관광객)과 지역(추진주체)이 관광자원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개발, 보호하여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관광 실현
-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관광자원의 적정한 개발과 이용을 추구하며 관광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설정 및 실천수단 마련에 기여하는 지속가능 관광 추진
- 포용과 공정사회 실현, 개발과 보전의 조화와 균형, 지역고용 확대, 관광의 공공성 지향, 생활공간으로서 자연의 보전 등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가치를 고려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관광 지향

3. 계획 지표

- 관광객수 2019년 3.6억 명 → 2031년 4.7억 명
- 여행일수 (국민 1인당 연간 여행일수) 2019년 12.9일 → 2031년 17.6일
- 관광발전지역수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지역) 2019년 9개(5.9%) → 2031년 30개 (19.7%)



[그림 11] 2031 관광개발 계획 지표

4. 추진 전략

가. 전략 도출 체계

■ 자원, 시장, 주체의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방향성을 설정하여 특화 전략 도출

- 자원영역은 관광개발의 대상이면서 개념과 범위가 확대되는 관광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타분야 콘텐츠 및 산업과의 융합을 고려하고, 양적,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하며, 관광객 요구에 맞춘 관광자원의 매력성 제고 방향 설정
- 시장영역은 관광자원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관련성이 높은 영역으로서 자원영역과 구분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의 직접적인 대상이라기 보다는 관광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관광편의 기반 및 관광수용태세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관광객의 관광활동에서 불편함을 완화하는 이용 편의성 제고 방향 설정
- 주체영역은 관광개발 추진주체로서 지자체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관광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관광 추진체계의 영역까지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역관광 역량 및 제도를 통한 관광자원 관리 강화 방향 설정

■ 전략별 특성에 따라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균형적 추진

- 관광개발 방향과 방식으로 「관광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발, 이용, 보호, 관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설정하고, 미래 관광환경 변화에 맞춰 전략별로 확장, 해체, 통합, 융합, 분리 등 다양한 방향성 제시
- 지역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한 공급자 중심의 관성적 관광자원 개발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전략과 연동하여 관광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관리를 균형적으로 추진하는 역동적 대응
- 입체적이고 스마트하며,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관광자원의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체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방향과 방식에 집중하기보다 균형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략 설정
 - 입체적인 관광자원 개발은 지역에 분포하는 관광자원의 점적인 개발에서 탈피하여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선적·면적인 개발로 관광자원의 확장과 변화를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관광개발의 효과가 지역관광생태계로 연결되는 점·선·면·입체가 구조화되는 관광개발
 - 스마트한 관광자원 이용은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관광객의 관광활동에 필요한 숙박, 교통, 안내 정보 등 관광편의 기반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관광개발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보호는 기후변화, 탄소 중립 등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후 관광지와 지역의 유휴자원의 회복력을 제고하며 관광과 지역 사회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관광개발
- 합리적인 관광자원 관리는 관광개발계획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법 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 등 정책 기능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광개발

나. 전략별 추진 방향

■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 미래 관광수요 예측을 통한 관광자원의 선제적 발굴 및 관광자원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유연하고 새로운 관광개발 추진

■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 혁신적인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 확대를 통해 관광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 편리한 관광편의 기반 확충

- 관광자원의 스마트한 이용,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제공 및 관광약자 관광편의 개선으로 모두가 누리는 관광편의 기반 조성

■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 관광개발 효과가 지역관광 생태계로 이어지고, 지역관광 주체의 관광역량을 강화하여 관광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구조 확립

■ 입체적 관광연계·협력 강화

- 공동 자원에 대한 국가간·부처간 연계협력 강화와 공간위계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점·선·면적인 관광개발을 넘어 입체적 관광공간 구축

■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 관광자원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균형적 추진을 위해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개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며 관광자원 관리 최적화 유도

제3절 관광권역 구상

1. 관광권역 설정 변화

- 우리나라는 관광자원의 균형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972년, 1979년, 1983년, 1989년 등 4차례에 걸쳐 관광권역을 설정하여 왔으며, 1989년에 설정된 5대권 23개발 소권을 토대로 하여 1992년 전국을 5대권 24개발 소권으로 구분하고 제1차 관광개발기본계획(1992~2001)을 통하여 법정권역으로 규정
- 상기의 관광권역외에 1999년 7대 문화관광권이 새로이 설정되었으나 동 권역은 법정 권역이라기보다는 한시적 계획권역으로서의 기능
-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년)에서는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관광권역을 기본권역으로 설정하고 관광자원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광역관광권은 관광개발의 수단으로 채택
-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년)에서는 기초생활권, 16개 시·도,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등 국토계획의 위계를 반영한 ‘다층적 지역 관광발전 전략’을 도입하여 시·도 관광권과 초광역 관광벨트 설정으로 계획권역을 기능적으로 연계·보완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년)에서는 17개 시·도를 기반으로 두고 광역 시·도 간의 정책적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여 5대 광역연합관광권역을 설정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지역관광경쟁력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



[그림 12] 우리나라 관광권역의 변화 추이

2. 관광권역 설정

■ 관광권역 개념

- 관광권역이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지역균형발전과 권역별 특성화와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수요(이동성, 교통접근성고려, 광역행정서비스 인구영향력 등)와 관광공급(자원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 등)을 통합 고려하는 계획권역
- 관광권역 설정은 자원의 개발 및 관리와 집행의 효율화라는 목적성도 있지만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와 개발전략이 구체화되는 계획공간

■ 관광권역 설정 방향

- 관광권역은 관광배후 시장(인구 감소)의 축소에 따른 광역관광서비스 지원기능 저하 추세를 고려하여 광역 단위에서의 협력적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행정권역 구분 없이 이동하는 관광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와 통합적 관광자원관리가 제공되도록 수요와 공급의 통합적 접근에서 설정
- 관광권역 설정 시 1)관광성숙지역과 관광성장지역 간 차별화된 맞춤형 공간전략 반영, 2)관광객 이동패턴 및 관광수요 반영, 3)100만 이상의 도시권을 배후시장으로 검토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조건 확보, 4)지역 간(시군간, 시도간, 광역도간)의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수요 반영 등의 원칙 적용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권역은 5대 중추도시권 중심의 다핵구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단위 레이어 분석을 통해 2개 이상의 광역시도 간 연계 협력이 가능하도록 “5대(1³+4) 광역연합관광권”과 “17개 시·도 권역”으로 설정
 - 광역 시·도 간 정책적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중앙과 지방의 공동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광역연합관광권 계획수립과 관광계획계약²⁾ 및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추진



행정권 중심의 집행력 강화에 따른 공간 구분

- (목표) 관광지 지정, 관광자원 이용의 극대화, 집행력 제고

자원관리와 관광객 이동 수요 반영에 따른 공간 구분

- (목표) 효율적인 자원 관리, 맞춤형 서비스 지원, 협력적 성장기반 강화

[그림 13] 관광권역 설정방향 및 개념

2) 광역연합관광권 조성에 필요한 복수의 패키지 사업들에 대한 통합적 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도지사, 시장, 군수 등으로 구성된 광역연합관광권 전담조직의 구성과 복수의 패키징 사업추진을 위한 관광계획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 5대(1³+4) 광역연합관광권 + 17개 시·도

- 관광권역은 5대(1³+4) 광역연합관광권으로 설정하고, 관광시장의 규모와 성격 및 관광 단위별 정책수요를 반영한 권역을 의미
- 수요와 공급의 통합적 관점에서 1핵(수도권)에서 대도시권 중심의 다핵(①서울, ②대전·세종, ③대구, ④광주, ⑤울산·부산)이 관광객 송출시장의 기반이 되는 배후시장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인접 중소 도시권으로의 관광객 이동수요를 포함할 수 있도록 5대 광역연합관광권 설정
 - 1권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를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 광역연합관광권이고,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대경권(대구, 경북), 부울경권(부산, 울산, 경남)은 이와 시장규모와 성격에서 대비되는 광역연합관광권으로 설정
- 5대 광역연합관광권의 특징은 인접권역 이외의 공간범위를 포함하여 비물리적 거버넌스 확장 및 관광권역별 주요 배후시장(대도시)을 기반으로 지역 간 연계사업의 발굴이 가능하고, 관광객 이동수요 반영 및 통합적 관리 기능
- 배후시장 기반은 지역간 연계사업의 체계적 발굴이 가능하고, 관광객의 이동 수요와 다양한 공간 단위별 정책 수요 반영 등 맞춤형 발전전략 수립 가능

〈표 37〉 5대 광역연합관광권 특징

구분	주요 내용	공간 구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권역 이외의 공간범위를 포함하여 비물리적 거버넌스 확장 가능 - 관광권역별 주요 배후시장(대도시)을 기반으로 지역 간 연계사업의 발굴 가능 - 관광객 이동수요 반영 및 통합적 관리 기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통합형 보다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상호간 이해 부족 - 시·도 통합형 보다 광역의 관광권역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 - 시·도 통합형보다 권역범위 확대에 따른 관광 수요 창출 기여 미지수 (현재 관광총량 정체) 장기 경유형 시장 미형성 	

추진 전략

제1절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제2절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제3절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제4절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제5절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제6절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제1절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정책 방향

- 미래 관광수요에 대응한 선제적 관광자원 발굴
- 관광자원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유연한 관광개발 추진
-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문화콘텐츠의 관광콘텐츠화

계획 지침

- 미래 관광수요 대응 선제적 관광자원 발굴
 -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관광수요 요구에 대응하는 선제적 능동형 관광개발 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경계융화 시대에 자연, 역사문화 등 전통적 관광자원 개발을 넘어 일상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광개발 대상과 영역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외 없이 모든 국민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세대별 특화 관광자원을 확충하고, 관광공간을 개발하여 관광 여건을 개선한다.
 - 정부는 차세대 미래기술을 관광자원과 공간에 접목하여 기술이 집약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하여 확장된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공간을 조성한다.
- 융·복합 관광콘텐츠 확대
 - 정부는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면서도 관광스토리과 콘텐츠를 접목·보강하여 국가 상징 브랜드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 정부는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는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관광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된 관광환경 및 시장의 요구를 진단하고, 미래 관광수요와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관광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형 융합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산업관광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한다.

[전략 1]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추진 과제	세부 과제
<p>① 미래유망 기술이 집약된 관광자원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 관광상품 개발 ■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메타버스 관광지 조성 ■ 해저, 우주 등 미지의 공간을 활용한 신규 관광자원 발굴
<p>②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자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적 한류관광 테마공원 조성 ■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 건축문화유산 관광자원화
<p>③ 관광트렌드 주도형 관광개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과 관광의 경계를 초월한 워케이션 관광지 조성 ■ 휴양 치유 중심의 비대면 관광 활성화 ■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p>④ 세대별(고령, 청소년, 청년 등) 특화 관광자원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관광시장 특화 실버관광 활성화 ■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 교육관광 육성 ■ 남다름을 추구하는 MZ세대(청년) 대상 관광 특화
<p>⑤ 융복합을 통한 산업 및 종교관광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관광 기능을 담은 산업형 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 관광매력 요인을 갖춘 산업단지를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 종교 및 순례관광 활성화

1. 미래유망 기술이 집약된 관광자원 발굴

■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 관광상품 개발

- 관광객의 관광 경험이 고도화되면서 콘텐츠 품질 문제, 기기 착용 등 이용 불편 및 신규콘텐츠 개발의 고비용 구조 등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이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
- 단순히 녹화된 연출과 반복적 패턴 영상을 감상하는 형태를 벗어나, 프로젝션 매핑³⁾이나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는 인터랙티브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이동이나 터치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연출을 체험하는 기술융합형 체험관광 확대
- 지역 문화와 자연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영상기술로써 시간·공간적으로 실사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콘텐츠와 관광객이 서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관광공연 기획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실감콘텐츠 기술을 고도화하여 DMZ, 독도, 백두산 천지, 해저, 화산 내부 등 실제 방문하고 체험하기 어려운 공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관광 체험 확대 개발
- 기존 관광자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1차원적인 활용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술이 집약된 관광자원으로써 새로운 접근과 재해석을 바탕으로 신개념 관광자원으로 창출하고, 미래 사회에서 관광객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관광자원으로 조성
- 관광자원의 개념과 영역이 확장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전통적 관광시설, 자원 등을 뛰어넘은 새로운 기술과 자원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수단으로써 실감기술 활용 케이(K)-관광콘텐츠 발굴 및 체험 가능한 관광자원 구현

[사례]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슈퍼 트리)

- 싱가포르에 2012년 개장한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도심 속 자연이라는 컨셉에 맞게 녹지와 다양한 꽃들이 조성되어 있음
- 야외 정원과 실내 온실로 구분되며 세부 시설로는 플라워 돔(Flower Dome), 슈퍼트리 그로브(Supertree Grove), 베이 이스트 가든(Bay East Garden), 클라우드 포레스트 등으로 구성
- 대표 상징물인 '슈퍼트리 그로브'는 거대 나무 조형물로 나무들 사이로 'OCBC 스카 이 웨이'라는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어 있음
- 야간에 '가든 랩소디 쇼(조명, 음악을 활용한 야외 쇼)'를 매일 공연하며, 태양광 전지로 에너지를 비축하여 전력으로 재사용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미니 트램(가든 크루저)이 운영 중임



자료: 가든스 바이 더 베이 홈페이지(<http://www.gardensbythebay.com.sg/en.html>)

3) 프로젝션 맵핑 (Projection Mapping)은 대상물의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하여 변화를 줌으로써,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메타버스 관광지 조성

- ‘혼합현실(MR)’과 ‘확장현실(XR)’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광객들이 상상하고 원하는 바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확장가상공간(메타버스)에 관광지 조성
 -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정해진 규칙 없이 일상생활 공간에서 쇼핑, 게임 등을 자유롭게 즐기는 메타버스형 게임이 등장하여 이미 부분적으로 관광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확장가상공간을 관광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에 도입
- 확장가상공간에 조성된 관광지는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 공간 또는 미래 공간으로 이동이 자유롭고, 그 안에서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며 관광활동과 일상활동이 동시에 이뤄지는 등 현실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관광활동 추구
- 공공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지자체가 메타버스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 지역민을 1차 관광시장으로 규정하여 지역민을 위한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며 관광시민 또는 주민관광객 개념 도입
- 지역관광박람회, 지역축제 등 오프라인에서 개최되는 관광이벤트를 확장가상공간에서 개최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요인을 최소화하고 관람객의 양적 확대와 혼잡도 최소화
-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동하는 캐릭터를 통하여 역사적 인물, 사건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개념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의 다양하고 개성있는 요구에 맞춰 시의성 있게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표 38〉 메타버스의 4가지 시나리오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라이프로깅(Lifelogging)
현실 세계에 있는 아날로그식 물리적 대상에 디지털 데이터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	사람 또는 사물이 경험하는 일상 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수집하고 저장, 묘사
거울 세상(Mirror World)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상으로 투영 지리적 또는 정보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매핑	실체처럼 느끼게 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한 온라인 디지털 가상 세상

자료: Metaverse Roadmap(pathway to the 3D web) (JohnSmart, JamaisCascio, JerryPaffendorf, 2006)

■ 해저, 우주 등 미지의 공간을 활용한 신규 관광자원 발굴

- 해저, 우주 등 미지의 세계(공간)는 인류가 동경하는 대상이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일반인들도 참여하고 접근 가능한 시대가 열려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하고 활용 추진
 -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주개발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주관광 실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기술 연계 개발
 - 민간기업에서 우주경계선인 고도 100km에 도달하고 내려오는 준궤도 방식의 민간인 우주관광을 실현시켰고, 더 나아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다녀오거나 더 높은 궤도에서 체류하는 우주관광시대 본격화

- 미지의 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연관 산업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항공 및 우주산업, 해양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위성 및 우주항공 연구, 생물 다양성, 해저 공간개발 연구 등과 관광개발 연구 연계 확대

[사례] 미지의 공간을 활용한 신규 관광자원 발굴

■ 해저·우주관광

- 유리 가가린의 첫 유인우주비행(1961년) 이후 60년만에 600명 돌파(2021년)
-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을 넘어 해중에 체류하는 해저호텔 등 인기
- * 울산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 공동으로 해저도시 프로젝트 추진구상 발표('21.8)



〈600호 우주비행사〉 〈스페이스 X: 세계최초 민간개발〉 〈콘래드 몰디브 랑갈리 아일랜드 호텔〉

자료: 한겨레(2021.11.11) 1961년 옛소련 유리 가가린 이후 600번째 우주비행사 탄생 <https://www.hani.co.kr/arti/science/future/1018872.html>
 블로터(2021.10.31.) [이젠 우주민간 주도 패권 경쟁·중심 선 스페이스X·블루오리진·버진갤럭시] <https://www.bloter.net/newsView/bt202110310003>
 파이낸셜뉴스(2018.4.23.) "하룻밤에 6000만원" 몰디브 수중호텔 문연다 <https://www.fnnews.com/news/201804231029436027>

2.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자원화

■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적 한류관광 테마공원 조성

- K-음악,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콘텐츠(K-culture)를 활용한 국제적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K-pop, 영화, 드라마 등 개별적 한류콘텐츠가 아닌 한류 자체의 정체성을 부각시킨 스토리 테마파크 조성
- 한류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소비하는 장소적 기능뿐만 아니라 한류 R&D, 문화유산화(아카이브), 한류관광 성지로서 공간과 기능을 집적화
 - 한류콘텐츠 관련 팬덤비즈니스, 팬더스트리(Fan+Industry)⁴⁾가 급성장 중으로 이러한 국내외 방한수요를 관광수요로 전환하고, 관광과 연구 개발의 기능 접목
- 한류관광 테마공원 내에는 한류 콘텐츠 공연이 가능한 전문 공연장, 전문 상영관 등 한류콘텐츠를 체험 관람할 수 있는 시설 조성
 - 해외 시장에 진출한 음악과 가수 등을 콘텐츠화하는 한편, 숙박, 교통, 음식 및 쇼핑 등 외래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정기적인 공연 개최
- 드라마나 영화 등 촬영장비, 세트장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직접 주인공이 되어 특정 장면을 촬영하거나 무대에 올라서는 등 직접 시연, 체험하는 몰입형 오픈 스튜디오로 조성하여 오감체험형 테마공원으로 조성

4) 팬덤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이르는 말로, K-POP(케이팝)의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부상한 신조어이다. 특히 팬더스트리 시장에서 팬과 아이돌을 이어주는 '팬덤 플랫폼'은 그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외래관광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영상 관광지를 코스화 및 상품화하는 국제적 수준의 명품 영상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

[사례] 미국 아카데미 뮤지엄 (Academy Museum of Motion Pictures)

- 아카데미 뮤지엄은 2021년 9월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개관한 박물관으로 영화산업에 접목된 예술과 기술을 중심으로 시설 콘텐츠를 조성
- 영화 관계자 및 팬들의 기증, 모금을 통해 약 28,000㎡(지상 7층) 규모에 2개 건물(시반빌딩 리모델링, 스피어 빌딩 신축 및 유리다리 연결) 조성
- 주요 도입시설은 몰입형 상설 전시관, 특별 갤러리, 스튜디오, 카페, 상점, 상영관(288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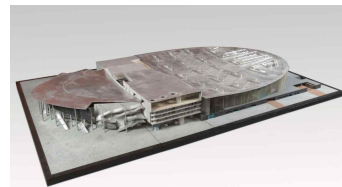
자료: 아카데미 뮤지엄 (<https://www.academymuseum.org>)

■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 비엔날레, 국제영화제 등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도시 중심으로 문화예술 체험과 도심관광이 융합된 관광개발 추진
 - 비엔날레(광주, 부산), 국제영화제(부산, 전주, 부천), 문화도시(원주, 청주 등 12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대표적 도시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 문화예술관광도시에 외래관광객 방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안내, 숙박, 쇼핑 등 다양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외래관광객 유치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도시를 세계적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외래관광객 지방분산 촉진
- 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특구 및 광역관광권 제도와 연동하여 문화관광특구 및 문화관광권 지정
- 관광자원 및 관광콘텐츠로 활용 가능한 독특한 문화자원을 조사·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독창성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전환하여 신규 관광수요 창출

[사례] 프랑스 유라릴 프로젝트(Euralille Project)

- 프랑스 4대 도시중 하나인 릴(Lille)은 섬유 및 철강 산업으로 발달하였으나 산업 쇠퇴로 새로운 도심재생 프로젝트
- 기존 프랑스내 대도시들이 문화예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지정학적 특징을 부각시킨 역세권 개발(유라릴 프로젝트)을 추진
- 비즈니스센터, 로마랭, 생모리스, 쇼드 리비에르 4개 지구별 특화하여 추진 하면서 복합적 문화지구를 조성
-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참여한 프로젝트로서 건축적, 도시계획적인 상징성을 부여하고, 종합계획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를 강화



자료: OMA (<https://www.oma.com/projects/eurailille>)

■ 건축문화유산 관광자원화

- 세계적인 문화 랜드마크로서 궁궐, 사찰, 서원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을 관광명소로 조성
 - 건축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건축물 또는 건축 양식의 문화적 소산
- 국내 지역별 건축문화유산을 선별하여 관광숙박, 관광쇼핑, 관광안내 및 관광음식 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이를 지역관광 대표시설로 육성
- 고택 체험, 서원·템플스테이 등 전통건축물 활용 체험관광 확대 및 근대문화재 집중지역 관광가로(街路) 조성
 - 한국의 고유한 역사문화유산인 향교, 서원, 고택, 사찰 등을 외래관광객 선호가 높은 고택 체험, 한옥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을 적극적인 체험형 관광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스토리과 콘텐츠 등을 접목하여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 문화재청에서 관리중인 근대건축문화 유산중 대표적으로 지역관광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는 대표적 건축문화유산을 선별하여 보전과 활용을 통해 관광자원화하고, 건축물을 테마로 도시별 건축문화기행(걷는 길)과 연계하여 공간경험성 극대화

[사례] 일본 다카야마의 전통거리 '후루이 마치나미'

- 다카야마의 전통 거리인 후루이 마치나미(古い町並み)에서는 주점(양조장), 공방, 길거리 음식(도미빵) 등이 운영중
- 작은 교토라고 불리는 후루이 마치나미는 상점이외에 인력거 등도 운영중이며, 전통가옥을 관광안내소로 리모델링
- 관광안내서(information)에서는 인터넷, 음료 및 휴식공간을 무료로 활용하도록 서비스 제공



자료: 히다-다카야마 컨벤션 및 방문자 협회 (<https://www.hidatakayama.or.jp>)

3. 관광트렌드 주도형 관광개발 추진

■ 일과 관광의 경계를 초월한 워케이션 관광지 조성

- 워케이션 관광지는 업무와 관광, 휴식을 관광지에서 추구하는 관광시설 또는 공간으로 디지털 기기, 회의실 등 업무 기능과 음식, 숙박 등 관광편의 기능을 갖춘 지역관광 베이스캠프로 특화
 - 워케이션 관광지가 갖춰야할 주요 속성으로는 숙박시설, 장소(농촌, 도시, 바다 등), 관광체험 콘텐츠, 식음 및 부대시설, 접근성, IT기술(업무환경) 등임

- 워케이션 관광지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매력성, 관광서비스와 편의시설의 품질 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지역별, 관광자원 특성 및 테마별로 워케이션 관광지가 조성되어야 하고 다양성을 위해 소규모 관광마을에도 접목
- 워케이션 관광지는 업무 효율성 제고와 관광 만족도를 동시에 추구하므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및 관광시설 운영 주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관광편의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관광핵심공간으로 모델화
 - (단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정 관광지(휴양시설) 및 관광마을에 원격 업무가 가능한 시설로 개보수 지원
 - (중기) 공공기관 연수원, 지정 관광지 및 지자체 운영 중인 휴양시설 등을 워케이션 관광지로 전환하고, 필요시 민간 운영 리조트시설에 대한 원격업무 시설 확충 지원
 - (장기) 신규 관광지 및 민간 휴양시설 조성시 워케이션 관광지 확충 유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워케이션 관광 확산

■ 워케이션 관광

-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업무환경 변화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관광상품 인기
 - * 2015년 유럽에서 시작되어 일본항공(JAL)이 2017년 7월부터 시행

1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원격근무 경험 증가



2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택근무 활성화



■ 일본 히로시마현 한달 살기 (시이노모리)

- 일본 히로시마현 진세키고원군에는 고민가(가정집, 古民家)를 수리하여 스테이호텔(stay hotel)을 운영하고 있음
- 드넓은 들판과 하늘을 배경으로 개별숙소, 공용거실과 주방, 공용사무실/작업실/소규모 라이브러리, 세탁실, 앞마당, 뒷마당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름은 시이노모리(思惟の森, 사유의 숲)임
- 일본 다도체험, 천연효모 빵 만들기, 채소상차림, 미식여행, 유기견과 따뜻한 하루 등 다양한 체험관광프로그램도 운영중임



자료: 뉴스코리아(2021.12.08.), 한국관광공사,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워케이션', <http://www.newskorea.ne.kr/news/articleView.html?idxno=3639>
시이노모리 홈페이지(<http://https://www.shiinomori-jinseki.com>)

■ 휴양 치유 중심의 비대면 관광 활성화

-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국제 관광박람회인 핏투르(FITUR)는 한국의 코로나 시대 국내관광 활성화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관광지 100선 지정을 Active Tourism Competition 국제부문 우수사례로 선정
- 비대면 관광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관광생태계를 보존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 모델로써 저밀도·청정 관광지 중심의 공간 확충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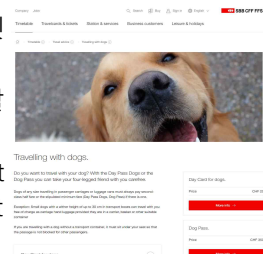
- 혼잡도, 교통량, 소셜 관심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별점으로 표시하여 발표하고 있는 비대면 지수에 일부 항목을 추가 보완을 통해 지역별, 계절별 비대면 관광지 육성
- 이용객의 압력이 낮은 저밀도 관광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계곡, 공원, 군락지 및 사찰 등 비대면 관광에 적합한 관광프로그램 도입 및 편의시설 확충 지원

■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펫코노미(petconomy)⁵⁾ 시대에 대응하여 펫팸족 대응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반려견과 걷기 좋은 길, 사진찍기 좋은 장소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동반 여행환경 조성
 - 펫팸족이란 반려동물(pet)과 가족(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급속하게 증가 추세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연구원 연구조사 결과, 반려동물 돌봄 인구는 1,000만명을 넘었고, 펫상품은 펫푸드 시장뿐 아니라 펫보험, 호텔, 유치원, 장례문화까지 등장했으며, 반려동물 동반 출근을 허용하는 회사와 문화공간 확산
- 반려동물 동반 여행 에티켓(펫티켓⁶⁾) 캠페인과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사례]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 Dog Pass

- 스위스 트레블 시스템은 반려견과 여행을 위한 특별 티켓을 운영중이며, 주인이 티켓을 소지할 경우 30cm 미만 반려견은 무료 교통편 이용
- 티켓은 주인이 이용하는 모든 기차, 유람선, 포스트 버스, 트램과 시내버스로 이용할 수 있으며, 티켓 가격은 CHF 25(32천 원/1Day), 연간 Dog Pass CHF 350
- 반려견과 동반하는 대표적 호텔은 'Hotel Schweizerhot Luzern', 'Catrina Resort hotel', 'The Dolder Grand', 'Ermitage Wellness&Spa Hotel', 'Frutt Mountain Resort', 'Hotel Kreuz&Post' 등임



자료: SBB 온라인 철도교통 홈페이지, <https://www.sbb.ch/en/timetable/travel-advice/dogs.html>

4. 세대별(고령, 청소년, 청년 등) 특화 관광자원 개발

■ 고령관광시장 특화 실버관광 활성화

- 고령관광시장의 관광행태와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의료 및 편리성 관련 테마를 적용한 특화 관광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편의시설로 전환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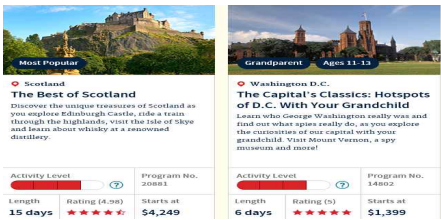
5)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Pet)과 경제(Economy)를 결합한 용어로, 반려동물과 관련한 시장 또는 산업을 일컫는 신조어(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6) 반려동물(Pet)과 예의·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공공장소 등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지켜야 할 예의로, 대표적인 예는 반려동물과 산책을 할 때 목줄과 인식표, 배변봉투 등을 지참해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느린 여행, 젊게 하는 여행, 배우자 동행 관광을 선호하는 특성을 부각시켜 부부 실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트니스 등 건강시설, 화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 취미시설, 양한방 진료 등 의료시설 등이 갖춰진 중장기 체류형 관광공간 조성
 - 은퇴자들이 대다수인 실버관광객은 새로운 기술의 배움을 놓쳤던 기회를 찾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즐겁게 수용하는 특성 보유
 - 건강, 즐거움, 엔터테인먼트, 자기계발 등에 특화된 관광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령관광시장의 관광활동 영역을 확대
- 고령관광시장에 특화하여 지역별 문화와 역사 등을 소재로 배움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과 실버관광객간의 교류와 교감을 나누는 관광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구현
 - 덴마크 엘더호스텔(elderhotstel)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 학습, 휴가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일본, 중국 등 13개국에서 동일한 프로그램 도입 추진

[사례] 미국의 로드스칼라

- ‘로드 스칼라(Road Scholar)’는 1975년 50대 이상의 활동적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으로 시작해 여행업으로 사업을 확대함. 초기에는 유럽 유스호스텔을 벤치마킹하여 ‘엘더호스텔’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니어들의 교육 욕구가 높아지면서 1980년대는 미국 전역과 캐나다, 영국, 북유럽 등으로 확대됨
- 1985년에 손자·녀들과 하는 여행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면서, 세대를 통합하는 교육 방식으로 인기가 높아짐. 2010년 명칭을 로드스칼라로 변경하고 10만 명 이상의 시니어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됨. 여행뿐 아니라 미국 내 평생교육단체와 파트너 십을 맺어 주별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3년 교육네트크망을 구축함



-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을 다니며 강의를 듣는 ‘아트 러버(Art Lovers)’, 기차를 타고 역사적 유물을 찾아가는 ‘트레인 저니 (Train Journeys)’, 작은 마을을 방문해 역사·문화를 학습하는 ‘마이 홈 타운(My Hometown)’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됨
- ※ 활동 난이도가 별도로 표기

자료: 로드스칼라 홈페이지(2021), <https://www.road scholar.org>

■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 교육관광 육성

- 학습과 관광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교육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우수관광지나 성공적인 관광개발 사례를 초중고 교과서에 추천 학습 장소로 소개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교육관광과 연계
-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수학여행식 대규모 교육여행보다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별, 테마별 교육관광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육여행 및 교육여행 업무 지원을 위한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지원센터(<https://gogo.sen.go.kr>)를 운영중

-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실감콘텐츠 기술을 고도화하여 DMZ, 독도, 백두산 천지, 해저, 화산 내부 등 실제 방문하고 체험하기 어려운 공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관광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관광 연계
- 콘텐츠의 간접 체험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발전하는 실감콘텐츠 기술을 신속하게 관광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초중고의 교육 콘텐츠와 연계하여 학교수업과 관광을 직접적으로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관광 추진
- 지역별 테마화된 관광자원, 시설 및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교육관광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관광 플랫폼을 구축
 - 역사·전통, 문화·예술, 농산어촌, 자연생태, 과학탐구, 미래진로 및 이색체험 등의 테마형 교육여행코스 제공

[사례] 일본의 교육여행 촉진 사업

- 일본 교육여행 플랫폼에서는 ‘새롭게 배우고 발견하는 일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여행의 테마를 9가지로 구성하여 제공
- 9가지 테마는 전통문화, 현대문화, 자연환경, 일본음식, 스포츠, 메이드 인재 팬, 위기관리, 사회시스템 및 인프라, 평화와 우정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여행 테마를 선정하고 여행일정 계획 수립을 지원



자료: 일본방일교육여행 홈페이지, <https://education.jnto.go.jp>

■ 남다름을 추구하는 MZ세대(청년) 대상 관광 특화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MZ세대⁷⁾ 특성을 고려하여 이색적인 경험소비와 영상 연출이 가능한 공간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객 스스로 관광지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온라인 플랫폼 개발
- 과거 공급자 중심의 관광자원, 시설 등의 정보 제공이 아닌 수요자인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험한 관광자원, 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기반 큐레이션 플랫폼을 지역별로 구축하여 운영
 - 진짜 서울(<https://jinjja-seoul.com>)은 사람들이 서울을 모으고 기록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로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언어로 재해석한 서비스
- 단순한 관광자원 및 시설 정보 이외에 관광객 개개인들의 체험을 기반으로 특정 지점, 장소 등에 대한 관광 큐레이션을 통해 취향을 중심으로 관광공간 재구성

7)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임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5. 융복합을 통한 산업 및 종교관광 활성화

■ 복합관광 기능을 담은 산업형 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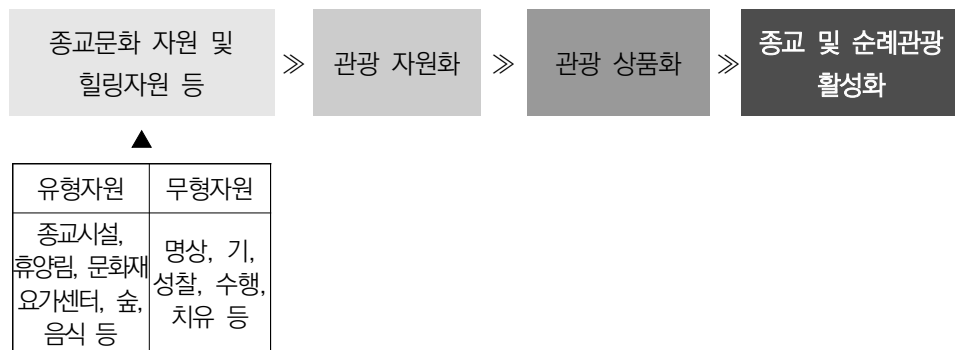
-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MICE 등 융복합 관광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함에 따라 융복합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융합 관광개발 수단 마련
- 지역관광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으로 기존 융합관광 클러스터를 확대 선정하여 육성하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및 지역관광의 거점으로써 융합관광 클러스터의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 뷰티·스파,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한방 등 건강·휴양 관련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
 - 웰빙, 치유, 휴식을 결합한 웰니스(wellness)는 관광목적지 선택에 중요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한국형 뷰티, 한방,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의 4가지 테마를 강조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조성
- 중장기적으로 공연, 영상, 한류 등 다양한 분야와 관광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클러스터 형태의 융복합 관광산업화를 촉진하는 관광개발 모델 발굴

■ 관광매력 요인을 갖춘 산업단지를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 전국적으로 1,212개의 산업단지가 분포하고 있고, 다양한 산업시설과 유통 판매시설 등이 집적된 산업단지의 입지 특징, 집적된 시설과 사업장 등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하는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 산업단지를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직접적 자원화, 융복합 자원화, 간접적 자원화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
 - (직접적 자원화) 출판, 유통 등 단지 자체가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성을 갖춘 산업단지 직접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
 - (융복합 자원화) 산업관광의 매개 요소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나 콘텐츠를 보유한 산업단지는 기능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관광체험 공간을 조성
 - (간접적 자원화) 산업단지 내부를 직접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단지는 주변지역과 연계하고, 별도의 공간에 조성된 홍보관 등을 활용
- 산업, 공간 및 사람의 혁신을 통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스마트 그린 시설 및 시스템과 연동한 관광안내 등 관광편의시설 조성
-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산업단지 주변부의 관광 매력도 및 관광편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생태계 활성화 유도

■ 종교 및 순례관광 활성화

- 최근 건강과 명상을 테마로 한 치유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관광자원과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와 연계하여 종교 유산과 종교 기능을 활용한 순례, 명상 등 프로그램 확대
- 종교 및 순례관광은 문화관광의 한 범주로서 특수목적관광(SIT)이며 종교, 명상(수행), 치유(healing, 마음치유), 성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정신)치유, 정신고양, 자아성찰을 관광을 통해 참여하는 행위
- 융복합 콘텐츠로서 종교 및 순례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 인프라 기반조성으로 기존 종교시설을 활용하여 관광수용태세 확충 및 정비 개선(기존시설 보수 및 정비, 교통시설 등 지역 연계 기반 구축 등)
 -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은 종교 자원을 활용한 문화축제 이벤트 발굴, 맞춤형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 연계상품 개발, 종교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스토리뱅크 구축
 -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종교 및 순례관광 관계자 간 자문 및 협의회 구성 및 정기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그림 14] 종교 및 순례관광의 단계별 구상(안)

제2절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정책 방향

- 혁신적인 지속가능 패러다임 대응
- 노후시설 및 유희자원의 관광매력성 제고
-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 확대

계획 지침

-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관광부문 실천
 - 글로벌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新경제질서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탄소 배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 계획 수립단계부터 집행, 관리 운영 단계까지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 관광(단)지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의 녹색화를 추진하고 노후화된 관광시설을 녹색시설로 전환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 중립 전환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관광 취약분야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 관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 중앙정부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입각하여 관광자원의 적정개발과 이용을 위한 관광개발 모델을 정립하고 관광개발의 친환경성을 극대화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자원, 경관자원 등을 보존하여 친환경적 관광지를 발굴하고 국제적 수준의 자연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 유희자원을 발굴하고 콘텐츠와 연계하여 관광 매력성을 제고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유형의 오버투어리즘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전략 2]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추진 과제	세부 과제
<p>①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관광개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관광(단)지 개발 및 운영 ■ 노후 관광(단)지 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지역 관광자원화
<p>②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생태관광 광역루트 발굴 ■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p>③ 유휴자원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기반 지역 관광명소 재생 ■ 유휴시설 관광자원화 ■ 유휴시간 활용형 관광개발 ■ 유휴자원 재생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p>④ 오버투어리즘 효율적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오버투어리즘 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관광객이 실천할 수 있는 책임관광 문화 확산

1.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관광개발 추진

■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관광(단)지 개발, 관광숙박시설, 테마파크, 컨벤션 시설 등 관광시설의 조성 계획 수립 시 탄소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목표 설정 의무화
-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관광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탄소발자국 등과 같이 사용자가 이해가 쉬운 계량적 지표를 발굴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운영
 - '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기후변화홍보포털, 2021)
- 관광시설 조성 시 탄소배출량을 고려하여 완공 목표 연도까지 지켜야 하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하고, 관광개발 주체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인력 또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
-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규모와 여건, 특성 등이 상이한 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다양한 관광개발 추진 주체들이 준용할 수 있도록 탄소 감축 목표의 개별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관광(단)지 개발 및 운영

- 관광(단)지 조성 계획 수립 및 승인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 친환경적인 공법이나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여 탄소 발생(온실가스 배출) 최소화하기 위한 관광(단)지 인증제 도입
 - 관광부문 배출 온실가스가 전세계 배출량의 5% 차지(UNWTO, 2008)
- 관광(단)지 계획 수립 시 필수적인 도입시설인 공공편익시설(화장실·주차장·관광안내소 등)에서 태양열, 물 재활용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최소화 및 재생 에너지 적용 방안 마련
- 관광단지 계획 수립 시 공공편익시설과 더불어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 시설에서 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
 - 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해수욕장 등과 같이 많은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에너지를 자체 발생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도입
 - 오스트리아 슈타트 할레(Stadthalle) 호텔은 세계 최초의 제로에너지 호텔로 호텔 운영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풍력과 태양광, 지하수열을 이용하여 조달하고 있으며 옥상 정원수와 화장실 용수는 빗물을 재활용하는 등 적극적 참여

- 대중교통 접근성이 미흡한 도심 주변 관광지는 높은 자가용 이용률로 관광(단)지 내·외부에 탄소 발생을 증가시킴에 따라 관광(단)지 내·외부를 이동하는 관광객들의 교통수단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충전 인프라 조성
-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단)지의 숙박시설·관광시설·골프장 등에서 제공하는 교통 편의를 위한 내·외부 이동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도별 친환경시설 조성 목표 설정
- 관광(단)지 직원들의 교통수단은 물론 관리운영을 위한 이동 시설(카트 등) 등을 모두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시설로 전환하여 해당 관광지 내에서는 탄소 발생의 최소화 유도

■ 노후 관광(단)지 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 탄소 감축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후 관광(단)지 관광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에너지 재생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그린 리모델링 추진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는 국가 및 지자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 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
- 관광지 조성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관광시설, 건축물(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노후 관광지 진단 기준 등 진단체계를 개발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관광지로 확대하여 관광지의 기능 재편과 미관 개선을 동시 추진
 - 진단체계에 근거하여 노후관광지와 관광시설을 선정하여 실·내외공간 등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휴게공간 등 그린 리모델링(태양광 설치, 친환경 단열재 교체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 추진 및 그린 숲 조성, 탄소중립 여행 상품 개발 등 추진

[사례]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2021)

- 추진배경 :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단열 저하, 결로·곰팡이 발생 및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실내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 동력인 한국형 뉴딜사업(그린뉴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필요
- 지원대상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의 공공건축물 중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로서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에 해당하는 시설
- 지원내용 : 노후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 필수공사: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 선택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자료: 국토교통부(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지역 관광자원화

-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중심으로 성공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한국형 탄소중립 관광자원 모델 추진
- 지자체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집적화단지 제도가 시행(2020.11)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자원의 여건과 위치를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관광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단지 계획 수립
- 태양열 단지는 전국에 널리 분포하여 양적으로 충분하지만,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특정 시설 도입 및 특구 지정 등에 제약요인이 많으므로 민관협력을 통한 산업관광의 방식으로 접근
- 풍력단지는 육상(산) 또는 해상(해안)에 위치하여 관광객 선호도가 높고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부가적인 관광활동 추진이 가능하며 덴마크, 영국 등 해외에서도 관광자원화의 성공 모델 확산
- 에너지산업 융복합 단지는 대규모 에너지 특화기업, 연구소, 대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공기업, 에너지 공급시설(발전소 등) 실증·시험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교육관광과 연계하고 다양한 체험 기능을 도입하여 활용

[사례] 경기 안산 대부도 신재생 에너지 특구

- 안산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해 2016년 2월 ‘안산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하였으며, 안산시 대부도와 시화MTV 일부를 포함한 113,961㎡에 2023년까지 49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재생 에너지 특구를 조성할 계획임. 안산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조성, 에너지 고부가가치 활성화, 에너지 관광산업 활성화 등 3대 특화사업을 9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연차별로 추진할 예정임
- 대부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특구는 에너지 관광명소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간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체험 투어 운영 및 청소년 에너지 페스티벌 개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0),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에너지전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든다. 보도자료

2.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 육성

■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 갯벌, 내륙습지 등의 복원 및 철새, 물범 등 생태계 종다양성 회복을 통해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여 새로운 생태관광지로 육성하거나 기존 생태관광지의 매력도 제고
- 생태자원 보전, 경관 보전 등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추진
- 해양쓰레기 등 오염물질 수거 및 배출 저감 캠페인, 자연생태교육 등 다양한 생태 관련 활동을 접목한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로 미래지향적 생태관광 환경 조성

■ 생태관광 광역루트 발굴

- 기존 지역 내 관광자원 중심 코스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유사한 관광테마, 스토리, 컨셉, 체험 등을 중심으로 광역관광루트 개발
 - 동·서·남해안 및 DMZ·접경지역 등 우리나라 둘레·걷기길을 모두 연결하는 코리아 둘레길 사업 추진
- 광역관광루트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 자원 등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관광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광역 네트워크화된 선형 공간으로 최근 자연생태, 문화체험 및 교류, 건강·치유, 휴양 등을 주제로 발전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생태탐방로, 경관도로 등 자연생태자원을 연계한 선형 기반의 특화된 광역관광루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 생태관광 광역루트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오그웨어 등 복합적인 패키지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계획하도록 유도
- 선정된 생태관광 광역루트는 브랜드 네이밍, 이미지 등을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해 전국적 관광인지도를 높여 지역 관광의 대표자원으로 활용

[사례] 노르웨이 국립관광도로

- 노르웨이의 아름다운 협곡과 산악으로 이루어진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조성한 국립관광도로는 총 18개로 이 중에 10개가 피오르드 지역에 있으며, 총 길이는 2,059km 조성
- National Tourist Routes(국립관광도로) 사업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피오르드식 해안절경을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
-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국립관광도로 프로젝트는 건축가, 조경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관광도로를 따라 18곳의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전망대, 쉼터 등 건축프로젝트 진행
- 2021년 기준 200여개 프로젝트가 완성되었고 도로 주변에 전망대, 쉼터, 편의시설, 숙박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혁신적 건축물, 예술품 등이 함께 설치

자료: 도로정책연구센터(2021), 해외정책동향 <http://roadresearch.krihs.re.kr/>

■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우수한 자연생태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갖춘 생태관광지 모델을 제시하고자 자원별 유형에 따라 한국형 생태관광 모델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개발
- 자연친화적 관광모델은 생태관광지 모델 사업을 확대한 개념으로 환경부, 산림청 등과 공동으로 환경과 경관이 우수한 자연공원 등을 대상으로 ‘자연친화형 관광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대표 생태관광지 인증제’와 연계하여 시행
 - 국립공원(지리산, 한려해상 등 22개), 세계지질공원(제주, 청송, 무등산, 한탄강), 국가정원(순천만, 태화강)

- 자연친화형 관광모델은 자연공원 방문객의 요구와 욕구를 반영하여 자연감성형, 국민휴양형, 관광레저형, 건강·휴양형, 자연생태교육형 등의 유형으로 다양화하여 개발
 - 자연감성형 관광모델은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하여 인근 마을의 이야기, 전통문화, 생활양식, 문화예술 등과 결합한 감성적 콘텐츠 중심으로 개발
 - 국민휴양형 관광모델은 자연공원 내 노후화되고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시설을 공익적 관광시설로 리모델링하여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 목적으로 개발
 - 관광레저형 관광모델은 자연공원 내 캠핑, 레저활동 등을 중심으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발
 - 건강·힐링형 관광모델은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자연휴양림, 산책로, 자연학습장 등을 중심으로 개발
 - 자연생태교육형 관광모델은 어린이, 청소년, 가족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연 속 환경교육을 목적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발
- 자연친화형 관광모델 개발은 관광, 환경, 지역 등의 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마련
 - 대상지 내 빈집 등 유휴시설과 기존에 설치된 저지대 체류시설인 생태탐방 시설, 체험 학습관, 탐방안내소, 국립공원 야영장 등을 최대한 활용하며, 관광객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친환경 순환교통망 중심으로 모델 개발
- 자연공원(국립공원, 지질공원 등)을 포함하는 자연친화형 관광모델은 해당 지역의 전통, 예술, 생활문화 자원 및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존 환경부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자연공원 저지대탐방사업과 연계 추진

3. 유휴자원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

■ 디자인 기반 지역 관광명소 재생

- 신규 관광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 노후화 및 관광트렌드 변화로 쇠퇴한 지역 관광명소를 디자인, 건축, 예술과 접목하여 리디자인(Redesign) 추진
-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정 관광지 및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하여 재생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활성화 유도
- 지역관광명소 리모델링은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되었거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이 낙후된 지역관광명소를 대상으로 지역 콘텐츠 기반형 재생사업 추진
- 문화예술 및 디자인 기반의 지역특화 관광명소 재생사업을 통해 매력성이 낮은 공간을 경쟁력 있는 트렌드 관광자원으로 재창조
 - 건축가,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공간디자인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경관을 회복하

- 고, 새로운 가치의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 지역에서 추진하는 관광지,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 등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디자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가미될 수 있도록 디자인 기반 관광개발계획 추진체계 마련
- 스페인의 대표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구엘공원 등 7개의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 예술적 가치가 높은 건물과 장소는 바르셀로나의 관광명소 및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 유희시설 관광자원화

- 폐교, 빈집, 폐산업시설 등 유희시설과 문화콘텐츠, 관광 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재생모델을 개발하여 폐조선소 복합단지 조성, 도서지역 폐교 활용 문화공간·야영장 조성 등 새로운 개념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 활용도가 저하된 원도심 건물, 기능을 상실한 폐광·폐석장·쓰레기처리장·오페수처리 시설, 폐철길 등 유희자원 등의 공간에 관광기능을 도입하여 새로운 관광지 및 관광 시설로 리모델링

[사례] 폐산업시설 재생

- 영국 런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가 테이트모던 뮤지엄으로, 독일 쾰페라인 광산이 문화예술공간으로, 일본 구라시키 방직공장이 호텔로 리모델링되어 관광명소로 재탄생



[테이트모던 뮤지엄]



[쾰페라인]



[구라시키 아이비스퀘어호텔]

자료: 이동숙 (2020.4.27.), 화력발전소에서 문화 발전소가 된 런던테이트 모던 패션포스터(https://fpost.co.kr/board/tbs/board.php?bo_table=fs34&wr_id=10)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홈페이지 http://bukgu-univ-urc.kr/gallery.es?mid=a10304000000&bid=0004&list_no=44&act=view
 오카야마현 공식 관광가이드 홈페이지 <https://www.okayama-japan.jp/ko/spot/886>

■ 유희시간 활용형 관광개발

- 해수욕장, 스키장 등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시간·계절단위로 부가시설 조성 및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유희시간을 적극 활용
- 관광공간의 유희기간 활용, 메가이벤트 시설의 유희시간 활용, 생활 SOC시설의 유희시간 활용 등으로 유형화하여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극대화
- 계절성이 강한 골프장, 스키장 등의 자원성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활용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운영(골프장을 야간에는 야영장으로, 스키장을 겨울철 외에는 골프장으로 운영 등)하는 등 관광공간의 유희시간 활용 확대

- 월드컵 경기장 등 메가이벤트 시설의 기능 및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이벤트가 개최되지 않은 유휴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메가 이벤트 시설의 유휴시간 활용 확대
 - 메가 이벤트(86 아시안게임, 88 서울하계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3 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개최로 조성된 대규모 경기장들을 체육 관광, 레저시 관광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광편의시설 도입
 - 메가이벤트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본연의 기능들은 유산적 의미로 보전하고, 부가적으로 외국인관광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체육관광 및 유산관광 체험시설 도입
- 지역 공공형 생활SOC시설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관광활동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전환하여 관광시설로 활용
 - 공공시설의 운영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적 자산에 대한 공공성과 활용성, 지속성 강화

■ 유휴자원 재생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단편적인 유휴시설의 관광자원화에서 벗어나 유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유휴시설 재생 모델 개발
 - 유형별 유휴시설과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관광 프로그램 등과 결합된 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
 - 유휴시설 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유휴시설 재생 모델을 보급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유휴자원 재생을 위한 방안 모색
- 지역 관광재생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광재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관련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 기능을 포함 유도
 - 지자체는 DMO 등과 연계하여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관광재생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체계 마련

[사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추진의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 조정,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
 - 사업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찾아가는 자문
 - 교육지원 : 경기도 도시재생대학 운영, 경기도 도시재생 주민참여 경진대회

자료: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ggursc.or.kr/>

4. 오버투어리즘 효율적 관리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오버투어리즘 관리체계 구축

- 지역 및 관광지의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있는 지역관광 관리계획’ 수립
 - 지역 및 관광지의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순히 관광객을 유인하고자 지역을 알리는 데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관리계획인 ‘책임있는 지역관광 관리계획’을 수립 유도
 - 지역관광 관리계획에는 우선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 관리를 위해 지역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있는 관광 성장 전략을 구체화
- 오버투어리즘 현상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 관광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주거 지역은 관광객 유입에 따라 생활 환경이 바뀌고,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변화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지속성 여부 판단 중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거버넌스 내 지역 주민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 정책 및 계획에 반영

■ 지자체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내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분석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기초지자체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건의를 받아 오버투어리즘 ‘특별관리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오버투어리즘 지역으로 인정이 된 경우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해당 관광지나 지역이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위하여 관광 수용력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오버투어리즘 진단 지표 개발
 - 오버투어리즘 현상의 발생 징후, 심화 신호를 발견하여 정책입안자와 지역주민, 일반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진단체계 마련으로 예방 및 초기 대응 유도
 - 공통적인 진단 지표 외에 지역적 특성에 맞춰 오버투어리즘을 진단할 수 있는 지역별 특화 지표의 개발
 - 관광과 각 부문 간의 관계와 영향을 토대로 물리적 수용력, 심리적 수용력, 경제적 수용력, 사회적 수용력 및 생물학적 수용력 등에 대한 개념 정의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기반

- 오버투어리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별로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관리하도록 추진
 - 지역마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양상이 다르고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시각이 상이하므로 각 문제의 특성별, 원인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이드라인을 지역주민, 관광객, 자원(인프라/ 자연), 문화 및 유산 등으로 접근하고 공간의 특성이나 오버투어리즘의 시기, 심각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대응책 차별화

[사례] 미국 맥켄지사의 오버 투어리즘 진단 지표

- McKinsey & Company and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2017)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ETIS (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와 지속 가능성 지수(GDS-Index) 등을 토대로 오버투어리즘 진단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음
- 9대 지표 예시: 관광 전반(GDP 또는 고용에서 관광산업의 비중, 관광객 성장률), 지역주민 소외(관광객 밀도, 거주민 대비 관광객 수), 관광객 경험의 질 저하(트립어드바이저 부정적 리뷰), 인프라 과부하(시기별 방문 차이, 관광지 집중도), 환경 파괴(공기 오염도), 문화유산 훼손(트립어드바이저 상위20개 관광목적지 중 유적지의 비중)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대응방향

■ 관광객이 실천할 수 있는 책임관광 문화 확산

- 지역 오버투어리즘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경우는 지역주민 삶의 영역을 침해한 경우로,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관광객의 행동 변화에 따라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하므로 관광객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관광객을 동반하는 문화관광해설사나 관광통역안내사 등의 가이드를 대상으로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문제점과 마을관광 에티켓을 교육하고, 교육이수자만이 관광객을 동반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마련
-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 있는 관광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광객 행동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항을 담은 관광객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관광객과 마을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지역 조성
- 관광객의 수준 높은 관광문화를 고양하고 지역 내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매너있는 관광 활동 준수를 강화하는 책임 있는 관광 행동 안내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 배포

제3절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정책 방향

- 스마트한 관광자원 이용으로 관광편의성 제고
-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제공
- 외국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의 관광편의 개선

계획 지침

■ 관광환경의 품질 제고 및 기능 개선

-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 거점에서 관광목적지로 이동하는 관광이동수단을 발굴하고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교통 접근성을 제고한다.
- 정부는 개별관광객이 원하는 맞춤형 이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지에서 이용 가능한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의 기반을 확대한다.
- 정부는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교통편의 제고 및 관광객 흥미 유발을 위해 신규 관광교통서비스를 확충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이색적인 테마를 활용하여 숙박시설이 잠자리 수단을 넘어서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확장하고 지역의 식음, 쇼핑시설을 규모에 따라 다양한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주된 관광목적지로 전환한다.

■ 안전·안심·안내 스마트관광 환경 구현

- 정부는 관광지 방역, 안전수칙, 밀집도 등 공간의 환경을 관리하는 기준을 수립하고 타 부처와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대응하는 방역 및 안전관리체계를 추구한다.
- 정부는 스마트관광도시를 중심으로 ICT 관광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개별관광객들이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시설이 설치된 열린 관광지를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무장애 관광도시를 추구한다.

[전략 3]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추진 전략	추진 과제
<p>① ICT 활용 관광교통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연계 체계 강화 ■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 신개념 교통서비스 확충
<p>② 숙박시설 관광 명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마을형 숙박 조성 ■ 이색 테마형 숙박시설 확충 ■ 숙박시설 재생 모델 개발 및 명소화 전환
<p>③ 식음·쇼핑시설의 명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푸드의 글로벌 관광자원화 ■ 지역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명품 자원화 ■ 쇼핑시설을 지역문화체험 및 복합공간으로 육성
<p>④ 안전·안심 관광환경 구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 비대면 관광 서비스 및 기반 강화 ■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열린관광지 및 열린관광도시 육성
<p>⑤ 스마트 관광안내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관광 플랫폼 및 서비스 기반 구축 ■ 스마트 관광도시의 지속적인 확대 ■ 스마트 관광안내체계 및 시스템 구축

1. ICT 활용 관광교통 체계 구축

■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연계 체계 강화

- 자가 차량 이용 관광객 비율을 현재 8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공항, 항만, 역사 등에서 관광지까지 관광객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수단의 관광지 운행 확대
-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주변 지자체와 연계가 가능한 광역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하고, 공항, 철도역, 항만, 터미널, 관광안내센터, 주요관광지 등과 연결
- 예약서비스에 기반한 관광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외래관광객, 영유아 동반 관광객, 장애인 및 가족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기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기능으로 한정하여 일반택시와 구분
- 지역 내에서 관광지 접근을 위해서 대중교통 및 도보 이용 시 결절점을 파악하고 모바일 기반 대중교통수단 운행정보 제공 및 예약·결제·환승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대중교통을 통한 관광 활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
-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휴게소에 쇼핑 및 휴게 기능과 관광시설 도입 등을 통해 관광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관광거점으로 전환

■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해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목적지로 가는 마지막 교통수단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 개념의 적용으로 관광을 위해 접근가능한 공간의 영역이 더욱 확대
-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친화 관광지' 운영 활성화
- 스마트 모빌리티 친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세부적인 법률적 근거 마련, 퍼스널 모빌리티 스테이션 및 모빌리티 이용구간 구축,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 활성화 등 추진
- 특정 관광지는 물론 지역 전체로 개별관광객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모빌리티 인프라를 조성하며, 이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승거점을 마련하여 해당 장소에서 교체와 충전, 관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설계된 설비들은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관광객이 원하는 관광목적지로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으며, 공유 차량과 같이 새로운 개념의 이동수단이 제공되는 환경 조성 - 과거 대중교통 수단이 해당 지역의 관광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였

으나 미래에는 개인이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개별 교통수단이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될 것으로 예상

[사례] 강릉시 스마트관광도시 개인별 모빌리티

- 강릉 KTX 역에서 지역내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개인형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전동자전거는 충전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앱을 통해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음
- 많은 자동차 기업들은 향후 이동수단이 육상을 이용하는 자동차에서 하늘을 이동 통로로 하는 '비행자동차'로 전환되면서 이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접 촬영

■ 신개념 교통서비스 확충

- 지역의 주요 관광지점을 연계하고 관광객 흥미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색 관광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 관광객의 흥미 유발을 위한 드론·해상택시, 관광트램, 수륙양용버스 등 관광교통수단과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수동 바이크 등 다양한 친환경 관광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트램 및 해당 지역이나 관광지 내부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동열차 등 관광객 교통수단과 관련된 우수 사례 발굴

[사례] 부여군 수륙양용버스/ 수원시 화성열차

- 부여군에서는 백마강을 중심으로 시티투어 버스를 수륙양용 버스(육상과 수상을 모두 이동하는 버스, 39인승 2대 운영)로 도입하여 역사문화자원 중심의 관광코스를 진행하고 있음. 백제문화단지를 출발하여 낙화암, 고란사 등을 거쳐 육상에서는 부소산성, 정림사지, 궁남지 등을 돌아 다시 출발장소로 돌아오는 코스임.
- 부여군은 그동안 사적 관람 위주의 액티비티형 관광으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다른 관광지 방문 시 이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음
- 수원시 화성열차(어차)는 도보로는 3시간 정도 걸리는 화성성곽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열차로 전용도로를 이용으로 막히거나 위험이 적은 것이 특징임. 코스도 순환형과 관광형으로 이원화 되어있으며, 기존 열차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현재 순종임금이 타던 자동차와 조선시대 국왕의 가마를 모티브로 디자인됨



자료: 부여군청 보도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직접 촬영

2. 숙박시설의 관광 명소화

■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마을형 숙박 조성

- 소도시에 분포하고 있는 마을 중 관광경쟁력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숙박, 체험 등의 개념을 결합한 ‘마을형 숙박시설(마을호텔)’을 지정·육성하여 지역관광의 거점시설이자 새로운 개념의 소도시 관광모델로 활용
 - 역사문화, 자연생태, 인문 등 특색있는 마을에서 숙박, 음식, 문화, 체험 등 활동이 가능한 체류형 마을호텔로 개발하고 인근 관광지, 관광시설, 관광자원 등을 단일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신개념 지역관광거점 조성 추진
- 마을 내 민박(숙박업소), 식당·카페 등의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사진관·사우나·갤러리·공연장·영화관 등 관광활동과 연계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마을 전체가 호텔이자 리조트 기능을 하는 마을호텔로 운영
- 마을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의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과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메뉴를 개발하는 등 마을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숙박마을로 개발·운영

■ 이색 테마형 숙박시설 확충

- 캠핑, 카라반, 요트스테이, 등대숙박 등 야외 레저활동과 연계한 특색 있는 테마형 관광숙박시설을 개발하여 숙박시설이 잠자리 수단을 넘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 공간으로 확장
- 지역 전통적 숙박 형태를 반영한 시설, 지역 생활문화·체험활동 등과 결합한 시설, 음악·문화·미술 등과 결합한 시설,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시설, 반려동물 동반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 등 다양성에 기반한 테마형 숙박시설 인프라 확대
- 야외레저 숙박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자연환경 보존, 탄소저감형 관광활동 확대 차원에서 자연친화형 숙박시설 조성 확대·추진

■ 숙박시설 재생 모델 개발 및 명소화 전환

- 지역별로 노후화되거나 비활성화된 숙박 및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숙박과 체험이 결합된 지역 체험형 숙박시설로 재창조함으로써 지역 숙박재생의 새로운 모델로 개발하고 지역 숙박명소로 활용
 - 기존 숙박시설, 마을회관, 폐교 및 노후 관광시설 등 지역의 유휴시설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디자인, 지역 스토리, 문화콘텐츠, 관광프로그램 등을 결합하여 지역 고유성과

차별성을 갖춘 특화 숙박 명소로 재창조

- 관광객이 잠을 자는 장소로만 인식되는 숙박시설을 지역의 문화예술 소재와 자원,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시설 자체만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특색 있는 숙박시설 조성
- 마을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숙박시설도 숙박시설 재생 모델사업으로 추진하여 상호 연계
 - 자연휴양림, 공공게스트하우스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노후화된 숙박시설이나 다수의 공공시설 등을 개선하여 활용
 - 지역 내 민간형 숙박시설과 공공형 숙박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지역의 숙박시설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
- 숙박시설의 기능을 유형화하여 지역커뮤니티형, 지역문화체험형, 문화예술형, 전통문화형, 장기체류형 등 다양한 숙박시설 재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새로운 지역 관광 창업모델로 활용

[사례] 일본의 빈집대책추진에 관한 특별법(2015)

- 일본에서는 고령의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을 하거나 간병시설로 이동하여 지역을 떠나면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도시나 교외 모두 주택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가나가와현 15%, 사이타마현 16%, 차바현 16% 등으로 집계됨
- 빈집은 주변 환경을 해치고 위험공간으로 전락하게 하며 고정재산세가 증가하여 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특별정비법이 시행됨. 빈집대책추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빈집을 양도하면 일정금액을 특별공제를 받으며, 빈집을 활용하여 세어하우스, 민박, 임대 창고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민간기업들도 빈집 활용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폐교를 고양이 간병시설 등 반려동물 사업 공간으로 변화시키거나 리모델링을 통하여 건물의 재생과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음

자료: 국토연구원(2017),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 방안 연구

3. 식음 · 쇼핑시설의 명소화

■ K-푸드의 글로벌 관광자원화

- 세계에서 인정한 한국 음식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통 음식, 사찰음식, 지역 이색음식, 퓨전음식, 시그니처 음식, 트렌드 맛집 등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관광자원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추진
 - 한국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관련 지역, 어원, 요리법, 이야기, 음식점, 관련 인물 등을 조사 및 DB화하고, 디렉토리북을 제작하며 K-푸드 관광자원화 계획 수립

- 경쟁력 있는 K-푸드를 특화하여 지역 음식관광 브랜드로 활용하고 음식점을 중심으로 ‘K-미식로드’를 조성하고, 지역별 ‘K-푸드 문화체험센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관광상품이자 복합 문화공간으로 육성
 - K-푸드 지정기준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미식여행 명소로 육성
 - 기존 음식테마거리 사업이 인지도 높은 음식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 중심 사업이었던 점에서 벗어나 인프라, 프로그램, 교육 등 복합적인 패키지로 지원하여 음식, 체험, 문화 등이 결합된 지역 관광체험공간으로 활용
 - K-푸드 문화체험센터는 사찰음식, 궁중음식, 종가집음식, 제사음식, 지역향토음식 등의 명장, 명인들과 연계하여 조성하여 음식 개발, 음식문화체험, 음식 교육, 인력 양성 등 추진
 - 음식 역사서 등을 기반으로 조리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롭게 개발하고 일반 밥상뿐 아니라 술, 떡 등의 다과류, 계절 음식 등 항목별 다양화 추진
- K-푸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테마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국가별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음식 관광상품 개발

[사례] 영양군 음식디미방

- ‘음식디미방(知味方)’은 영양에 살았던 장계향이 자손들에게 남긴 조리서로 양반가정에서 먹던 음식을 소개하는 한글음식백과서임. 17세기 중엽의 한국식생활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자료로 영양군에서는 음식디미방 브랜드화를 추진함
- 2017년부터 사업비 약 270억 원을 투입하여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 사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전통음식체험관, 전통 휴양공간, 문화체험공간 등이 마련되고 있음. 푸드스쿨 교육과정을 통하여 관련 인력과 전문강사도 배출됨
- 해외 홍보를 위해 홍보영상을 방영하고 해외 한국문화원에서 시식연을 개최하는 등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며 개발된 요리로 전문음식점을 운영할 예정임



자료: 영남일보(2017.08.08), 영양군 ‘음식디미방 문화관광자원화’,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70808.010120728250001>

■ 지역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명품 자원화

- 다른 지역과 경쟁력 있는 인물, 특산물, 장소를 발굴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품(명인·명물·명소)으로 이미지화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
- (관광명인화) 지역의 역사·이야기·기술 등을 보유한 인물을 선정하고 이를 지역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관광객과 소통·교류하게 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강화
- (관광명물화) 지역 문화와 특성을 반영하고 관광객들의 구매 욕구를 높일 수 있는 특산물, 음식, 기념품, 캐릭터 등을 발굴·개발하여 지역 관광소득 창출

- (관광명소화) 지역이 보유한 숨어있는 장소 중 관광경쟁력과 관광객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개발

■ 쇼핑시설을 지역문화체험 및 복합공간으로 육성

-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전통시장, 쇼핑거리, 대형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기념품 판매장 등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공간을 넘어 쇼핑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
- 지역 특성을 보유한 전통시장과 쇼핑테마거리 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매력성, 상품성, 시장성 등을 제고하고 쇼핑은 물론 음식, 지역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융·복합화된 쇼핑문화체험공간으로 전환하여 관광시장화
 - 전통시장 등 쇼핑공간을 특화 관광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야시장 등 야간관광상품으로 확장하여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
- 다양한 시설과 체험이 가능한 도심형 대형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복합 기능을 부여하여 도시관광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점 관광공간으로 활용
 - 쇼핑공간 외에 놀이공간, 테마공간 등 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안내데스크, 짐 보관함 등 여행자 편의시설 조성
- 공항 및 항만 면세점을 대상으로 한국 및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특산품 판매공간을 고품격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관광안내소를 안내기능, 쇼핑기능, 편의기능 등으로 다양한 부가기능을 도입하여 복합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소규모 지역 특산물 판매장 운영

4. 안전·안심 관광환경 구현

■ 관광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 관광개발과 지역관광의 지속적 리스크 관리와 안전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한 관광 환경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ICT 활용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 비콘(beacon), NFC 등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기반 안전관리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모바일 관광정보 체계와 연동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 안전 제고
 - 지역관광 안전관리 전략을 바탕으로 관광안전 경보, 관광안전 지도 제공 등에 대한 정보 체계를 제공하여 관광안전 강화

- 재난에 따른 관광지의 위기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유형별(단계별·기관별·관광객 대응)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사례·경험을 포함한 관광지 안전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 코로나19 이후 관광객 적정 공간 확보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휴가 및 성수기 지역 분산 등 교통 혼잡 안내체계 방식을 관광지에 적용하여 개별적 특성(실내·외 및 밀집형 여부)에 따른 실시간 관광지 혼잡 상황, 관광객 수 등의 정보 제공
- 관광지의 방역, 안전수칙 준수, 안심 수용태세 기준을 설정하고, 관광지 위생과 방역관리 및 밀집도, 혼잡도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 관광지, 다중 이용 관광시설 방역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시간 관광객 안전정보 체계 구축
 - 국민들은 안전에 대한 걱정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고 안전에 대한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여행 안전 앱”을 개발하여 운영
 - 방한 외국인이 국내여행 및 관광지 방문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 이동시스템 등 외국인 국내여행 안전 체계 구축 강화

[사례] 일본 Safety tips Application

- 일본관광청은 지진 등 자연재해 이슈가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로 ‘Safety tips app’을 개발, push 알림의 형태로 해외 방문객에게 재난 관련 정보 제공
- 앱을 설치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진 조기 경보, 쓰나미 및 기타 기상 경보를 알려줌으로써 관광객들로 하여금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일본관광청은 더 많은 해외 여행객들에게 체류 안전과 관련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앱 개발사와 협업하여 다른 주요 앱 서비스들이 Safety tips app과 연동하여 재난 정보 제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축
- 이를 통해 다른 앱 개발사들은 새로 안전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도 Safety tip의 API(Application Programme Interface)를 사용하여 5가지 언어(영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간체/번체)로 재난 관련 정보 배포

자료:일본 Safety tips for travelers 홈페이지, <https://www.jnto.go.jp/safety-tips/kor/app.html>

■ 비대면 관광 서비스 및 기반 강화

- 관광산업의 체질개선과 구조 변화, 비대면 관광산업 기반 구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광지 및 관광공간의 비대면 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 관광공간의 비대면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5G 인프라 연계 관광환경 혁신 등을 통해 비대면 관광인프라 개발
 - 비대면 관광서비스 R&D 사업, 비대면 관광서비스 사업체 협력 네트워크 조성, 비대면 관광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추진
- 메타버스·랜선투어·XR 등 비대면 관광상품 발굴 및 AR·챗봇·IoT 기술에 기반한 융복합 스토리텔링 플랫폼을 개발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상호 연계한 O2O(Online to Offline)형 관광편의 서비스 제공

■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열린관광지 및 열린관광도시 육성

- 누구에게나 문턱없는 대한민국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열린관광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소수 및 지원 내용 확대
 - 열린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경사로 등 시설 개보수, 관광지 보행 환경 개선, 화장실 및 보행 안내판 개선, 지자체 열린 관광지 특화 지원 조례 제정,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열린 관광지 공공 디자인 및 운영 매뉴얼 지원, 공간 환경 개선 및 공공 디자인 지원 등
-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장애 관광을 관광약자들이 원활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간 연계를 통하여 도시 전체에 무장애 관광루트를 조성하여 열린관광도시 육성 확대
- 도시 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⁸⁾을 적용하고 다양한 무장애시설 도입하고, 어린이 및 여성을 위한 맞춤형 안전 및 편의체계 강화
-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제’를 보완하여 열린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장애가 없는 관광환경 인증제도’ 시행

[사례] 프랑스 장애물 없는 관광인증제도 “Tourism &Handicap”

- 프랑스는 관광부가 2001년 ATH(The Association Tourism &Handicap)를 설립하고 장애물 없는 관광 인증인 ‘Tourism &Handicap’라벨 제도를 시행
- 인증된 주요 관광시설 및 숙박업소 입구나 관광지 소개책자에 ‘Tourism &Handicap’로고를 표시하여 장애가 있는 관광객이 관광지 접근 가능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편의시설을 갖춘 경우 해당하는 장애의 마크만 사용하게 하여 시설을 갖춘 편의시설 확인 가능



자료: 한국관광공사(2014),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5. 스마트 관광안내체계 구축

■ 스마트관광 플랫폼 및 서비스 기반 구축

- 국내·외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맞춤형 관광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약에서 사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스마트 관광 통합 플랫폼’ 구축
 - 교통, 숙박, 음식, 쇼핑 등 관광접점별 예약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서비스 등 ICT와 관광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 이용의 편의성 제공

8)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 다양한 고객층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스톱으로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 모델 개발
- 관광지를 중심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과 무료 와이파이존, 키오스크 관광안내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관광 실현을 위한 ICT 관광 서비스 기반 구축

■ 스마트 관광도시의 지속적인 확대

- 스마트관광 요소를 집약해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지속 확대
- 스마트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단순 검색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형 서비스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반응하는 지능형 서비스로 전환되며 유적 중심 자원에서 스토리와 기술 중심 자원으로 전환
 - 기존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스마트관광 플랫폼 모델을 통하여 타 지자체도 스마트 관광도시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 중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예측력 높은 서비스 제공
- 스마트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데이터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여행의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거점 관광 활성화 유도

[사례] 인천광역시 스마트관광도시 사업

- 인천은 제물포를 중심으로 스마트한 19세기 제물포를 구현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설정. 사업예산은 88억 원으로 여행 전부터 여행 중, 여행 후까지 서비스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을 함께 구축
- 인천 스마트 관광의 5대 구현 요소로 스마트 경험, 스마트 편의,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플랫폼으로 구성되며 인천광역시, 관광서비스 예비창업자, 지역소상공인은 물론 타 지자체, 정부 및 관광공사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체 참여하여 효과 제고



자료: 인천뉴스(2020.09.18), 인천 개항장 세계적인 역사 문화 휴식공간으로 도약, <https://www.inche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38>

■ 스마트 관광안내체계 및 시스템 구축

- 안내소 기능의 한계, 관광안내소의 활용 및 효율성 저하 등의 지역 관광안내소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지역관광 안내시스템 선진화 및 효율적인 지역 관광안내소 운영
- 선진화된 안내체계 개선을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입지적 측면(대도시 거점센터형, 중소도시 관광안내소형, 소도시 안내부스형, 관광지안내형 등), 기능적 측면(종합적 다기능형, 교통안내 중심형, 관광안내 중심형, 단순 안내형 등), 특화 서비스 측면(이동식 관광안내소, 찾아가는 안내소 등) 등을 기준으로 유형화

- 관광안내소에 가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신뢰도 높은 관광안내소 브랜드로 육성

[사례] 관광안내 센터 뉴질랜드 아이사이트(i-Site)]

- 국가 관광안내 브랜드로 통일된 안내 기능 제공
 - 한 해 약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아이사이트는 휴게시설로서의 기능을 비롯하여 기념품 판매, 환전, 여행 일정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전국 숙소 및 교통, 체험활동 예약, 날씨 및 안전정보, 인터넷 무료 이용, 현지 명소, 이벤트, 식당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수행
- 관광객 눈에 띄는 도심 내 위치
 - 아이사이트는 도심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 위치하여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선의 버스가 정차하도록 하여 터미널로서의 역할 동시 수행
- 정부 차원에서 신뢰도를 보장하는 관광안내소 브랜드 개발
 - 어떤 지역에서 관광을 하더라도 아이사이트에 가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신뢰도 높은 관광안내소 브랜드를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편의 지원
- 통일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역별 특성 반영
 - 모든 아이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관광객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각기 다른 디자인과 기능을 추가하여 지역 관광 매력물로 활용

자료: 뉴질랜드 I-SITE 여행자 안내 센터 홈페이지, <https://www.newzealand.com/kr/visitor-information-centre/>

제4절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정책 방향

- 관광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 관광개발 효과가 지역관광생태계로 연결되는 관광정책 추진
- 지역관광 주체(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관광역량 강화

계획 지침

- 지역 주도의 관광산업 추진
 - 지역관광생태계는 지역 내 관광생태계로서 ‘지역관광’ 중심의 가치 사슬구조를 근간으로 지역사회의 인력, 관광기업의 지원,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등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 및 확산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및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 관광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제반환경을 구축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이 보유한 자연·생태, 역사·문화 등 관광자원의 특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검토한다.
- 관광개발 추진역량 제고
 - 지역관광생태계 가치 사슬은 ‘기획→개발→조성→운영→성과 관리’로 연결되어있고 각 단계별 과정들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협력 및 추진체계, 역량 등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관광자원의 광역적 연계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 간 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지역관광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이양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이 자발적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민간참여 지원, 성과관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추진, 관리·운영 등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략 4]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추진 전략	추진 과제
<p>①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사업체의 권역별 관리를 강화한 관광두레 2.0 사업 추진 ■ 주민참여형 관광자원개발 추진 ■ 마을관광전략회의 구성
<p>② 자립형 지역관광 주체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광활동가 육성 ■ 지역관광 혁신조직 양성(DMO) ■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관광연합 조직의 구성
<p>③ 관광개발과 지역산업간 연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확대 운영 ■ 관광서비스 거점으로서 지역 관광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 관광지 활력 증진
<p>④ 지역관광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광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관광 R&D 기능 도입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민-관-산-학 네트워크 확대 ■ 지자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1. 주민참여형 지역관광 추진 확대

■ 주민사업체의 권역별 관리를 강화한 관광두레 2.0 사업 추진

- 관광두레 2.0 사업의 기본 방향은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이라는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구축
- 관광두레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지원체계와 성과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지역 관광두레 사업추진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 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시·군 단위의 관광두레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권역 및 거점별 지원 및 관리체계 마련
 - 시·도별 거점지역에 ‘(가칭)관광두레 지역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시군·단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관광두레 중심의 마을관광 육성체계 구축
- 주민사업체 지원체계를 세분화하여 새롭게 정비하고 권역과 거점의 특성에 맞는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방안 마련
- 외연 확대와 내생적 지역관광 발전 내용을 포함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및 지자체 조례 제정을 확대하여 관광두레 사업의 법률적 기반 마련

■ 주민참여형 관광자원개발 추진

- 지역관광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지역사회의 자생적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중요하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중장기적으로 추진기간(2~3년)을 설정하여 정책추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 인력 지원과 정책 지원을 통해 주민제안 사업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제안 사업내용에 따라 특정 분야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공간 구상 사업은 공공디자인, 건축, 조경 등의 전문적 컨설팅을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인적자원 역량 강화(교육) 등 지원
- 주민참여형 관광자원 개발 확대를 위해 거버넌스 구축, 지역문제의 발굴, 지역문제의 해결방안 마련, 사업화 선정, 사업화 실행의 단계적 추진

거버넌스 구축 >>	지역문제 발굴 >	지역문제 해결 방안 마련 >>	사업화 선정 >>	사업화 실행
시민참여단/유관기관/전문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체계 마련	지역에서 느끼는 문제점 등 관광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다양한 관광환경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도출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현한 사업아이템 선정	민간기업 참여, 의견교류를 통해 지역관광사업 실행, 모니터링

[그림 15] 주민제안형 지역관광사업 단계

■ 마을관광전략회의 구성

- 관광사업 기획, 추진조직 구성, 사업추진 및 관리·운영 등 지역관광 전반에 대한 지역주민 중심의 회의체제로 마을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 문경 관광반상회가 9회 숙의토론 및 10개 사업제안으로 2020 정부혁신 박람회 우수 모델로 선정
- 마을관광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참여를 위한 운영방향과 방식 등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마을관광전략회의를 DMO와 관광두레 등 마을단위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기획안을 실행시킬 수 있는 실행체계와 연계

2. 자립형 지역관광 주체 육성

■ 지역관광활동가 육성

-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자산에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주체인 로컬 크리에이터 등 발굴 및 육성
- 창의적인 민간주체로서 지역관광활동가 육성은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관광이 차별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 협업과 지원 제공
- 지역의 가치를 로컬푸드, 자연친화 활동, 문화체험, 지역 특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형화하여 공모·지원
- 지역관광 활동가는 지역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의 연결과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의 고유한 가치에 기반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대

■ 지역관광 혁신조직 양성(DMO)

- 지역관광 혁신조직은 지역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관광의 기획 및 실행,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
- 정부는 정보, 인력,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주도의 관광사업 추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역 간 또는 생활권을 기반으로 한 기초 단위의 지역관광 혁신조직으로 확대
- 한국형 관광발전지역 만들기 법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지역관광 혁신조직의 기본방향 및 역할 제시

- ‘(가칭)한국형 관광발전지역 만들기 법안’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관광협의회, 관광재단 등 지역관광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육성하여 지역관광의 당면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관광 추진조직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 주민·업계의 중간조직으로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관광발전을 견인하는 역할 확대

■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관광연합 조직의 구성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실효적인 광역연합 관광지원 조직 설립 추진 가능
 - 2021년 기준 광역연합을 위한 메가시티 가 논의 지역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3개 시도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인구 800만 제2국가 성장축으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계획 추진
 - 대전·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광역교통협의회’를 통해 광역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메가시티 조성 계획 중
- 관광수요의 광범위한 관광행태, 지역 관광개발 행정의 광역적 접근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관광을 자립·분권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광역연합형 관광지원 조직 설립
- 광역연합형 관광지원 조직은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관광시설·관광인프라 등의 연계 및 협력 개발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광역연합형 관광지원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규약제정, 지방의회 의결, 조직 설립 신청 및 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설립
 - 광역연합형 관광지원 조직은 전통적(행정권+관광자원 중심) 방식, 기능적(접근성+수요동선 중심) 방식, 전략적(비즈니스+정책 협력) 방식 등 유형화하여 추진

[사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 간사이 광역연합은 간사이 전체의 광역행정을 담당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이며, 2010년 12월 1일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립되어, 분권형 사회의 실현, 간사이 지방 전체의 광역행정 담당, 국가사무의 이양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주요 광역행정 사무는 ① 광역방재, ② 광역관광·문화·스포츠 진흥, ③ 광역산업진흥, ④ 광역의료, ⑤ 광역환경보전, ⑥ 자격시험·면허, ⑦ 광역직원연수 등이며,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닌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광역관광 문화진흥: 간사이관광 문화진흥계획의 책정, 해외관광홍보 실시, 통역안내사(전국)의 등록, 광역관광 루트의 설정, 간사이지역 한정 통역안내사(가칭)의 창설, 간사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계조사, 간사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안내표시 기준 통일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21),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3. 관광개발과 지역산업간 연계 강화

■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확대 운영

- 지역 기반의 관광기업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의 자생적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지역관광 경쟁력과 국내관광 활성화에 기여
-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 전반에서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및 지역특화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 지역의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위해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초기 관광벤처를 위해 교육·컨설팅·멘토링·홍보·판로지원 등 지원

관광개발과 지역산업간 연계 강화

■ 관광기업지원센터

- 지역 내 다양한 관광기업 양성을 목적으로 업무·교류공간 조성 및 입주기업 대상 경영자문(컨설팅), 관광 일자리센터 운영(2019년 부산, 2020년 인천, 대전·세종, 경남)



■ 관광벤처 육성 지원

-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관광벤처기업 발굴 및 창업 지원(2022)

* 예비-초기-성장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실시

단계	1단계(예비벤처)	2단계(초기벤처)	3단계(성장벤처)
	창업 전(재창업 포함)	창업 3년 이하(재창업 포함)	창업 3~7년
지원 내용	상품 서비스 개발 창업·경영 교육 컨설팅	상품 서비스 개발 사업모델 고도화 컨설팅	상품 서비스 고도화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

■ 관광서비스 거점으로서 지역 관광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단위의 관광상권은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음식·체험·쇼핑·교통 등을 집적화시킨 관광서비스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관광 산업의 실질적 성장 유도
- 관광상권이 지역관광의 소비 핵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 개별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이들의 공간적 집적을 통해 만들어내는 상권의 매력성 창출
-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의 맥락에서 지역 관광상권의 연계 방안 모색과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상권 시범사업 실시 등 추진
 - (도심권 관광재생 특화 시범사업) 도시 재생사업으로 지역의 문화자원 등 활용하여 새롭게 조성된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프리마켓, 공방 등 운영함으로써 지역관광 사업에 기반한 관광상권으로 전환 유도
 - (관광자원 연계형 관광상권 시범사업)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와 상권을 연계하여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특화 먹거리, 로컬 편집숍, 게스트 룸 등 운영함으로써 관광상권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관광지·관광단지 내 관광자원 운영 사업의 관광업종 편입을 통해 지역관광 상권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관광지가 관광개발 조성 이후 지역관광산업과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 관광지 활력 증진

- 6차 산업은 1차(농림수산업)+2차(제조업)+3차(서비스업)산업간 융합 개념으로 농림, 산림, 해양수산 등의 지역자원과 관광, 휴양, 체험, 치유 등 융복합을 통해 관광생태계를 만들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산업화 지향
 - 농촌 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체험시설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방문 여건을 충족 시켜줌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산림자원은 타산업에 비해 계절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산림자원이 가지는 생태적,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활용하여 휴양, 치유 등을 연계
 - 어촌의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어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 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지역의 주민공동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 체험, 상품 개발, 운영 및 관리 등을 중심으로 읍·면·동 마을 단위의 6차 산업 마을 관광단지 조성
- 특산물(치즈, 꿀 등) 가공용 공장과 관광 체험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6차 산업 중심 지역특화 산업시설의 관광(단)지 내 제한적 도입 및 단지 내 생산·체험·소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기여

4. 지역관광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 지역관광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관광 R&D 기능 도입

- 지역관광 R&D 기능을 도입하여 지역 단위의 관광시설 운영실태 조사 등 지역관광실태를 진단하고,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사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
- 관광 R&D 원천기술 분야로 지역 관광지·시설 운영 실태조사 정기화, 지역관광 역량 진단, 관광시설의 매력도와 경쟁력 등 지역관광에 대한 진단과 처방기법을 개발
- 관광 R&D 융복합기술 분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기반으로 하는 관광 자원 스토리텔링, 5G 기반 실감형 관광체험 가이드 개발, 사물인터넷(IoT) 기반 지역관광 시설 모니터링 및 체험확장 서비스 개발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민-관-산-학 네트워크 확대

- 지역 관광의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공공주도의 개발방식에서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관광개발 추진 체계 마련
- 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지자체 단위 민-관-산-학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 유도
-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주체로서 지자체는 네트워크의 유기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확장을 위한 노력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 관광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지방분권 확산으로 지역관광 발전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관광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지자체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관광 아카데미 재활성화, 이러닝 플랫폼 등의 역량 교육, 지역 관광개발 노하우 등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관광개발 지침의 제작, 공유 및 학습 지원
- 지역주민의 관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 참여 인식, 지역관광에서 주민의 역할, 관광 객과 서비스 관리 등 관광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주민사업체 설립 운영의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제5절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정책 방향

- 점-선-면 관광공급 요소를 넘어선 입체적 관광공간 구축
- 관광개발과 관광공간의 유기적 연계 확대
- 공동자원에 대한 국가간·부처간 연계협력 강화

계획 지침

- 공간위계별 유기적 연계를 통한 관광발전 체계 정립
 - 정부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관광자원간 위계를 고려한 관광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 정부는 미래 관광개발여건을 고려하여 공간위계에 따라 지역관광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관광 및 관광개발 정책을 재편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자원 확충을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차세대 지역수요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요맞춤형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균형발전과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주변지역으로 관광개발 효과를 확산시킨다.
- 다자간 연계협력 기반의 관광개발 추진
 -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관광개발의 통합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잠재력 있는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고, 다양한 주체가 관광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개방적 참여형 관광개발을 실행한다.
 - 해양, 농·산촌, 산림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간 협력을 선도하여 범부처 다협력 관광자원화를 유도한다.
 - 정부는 관광시장의 전략적 확대와 공동 관광권 형성을 위해 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과 관광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관광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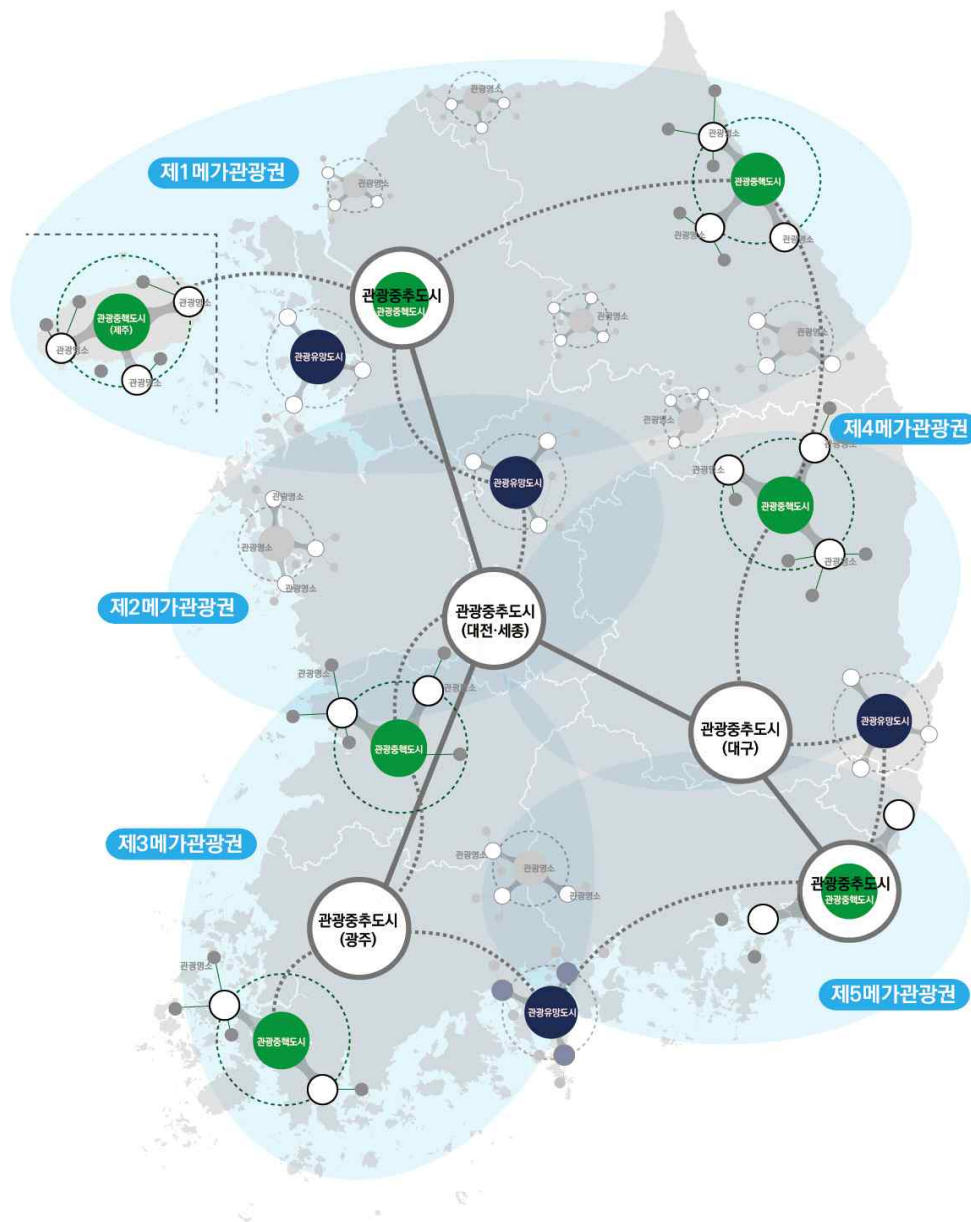
[전략 5]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추진 전략	추진 과제
<p>① 지역관광거점 중심 관광개발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연합관광권별 메가관광권 개발 추진 ■ 다극다핵(多極多核) 연계 기반 4(자원 중심)×3(이동동선 중심) 관광축 구축
<p>② 지역관광 육성사업 추진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연합관광권-광역권-소권-도시-지구-지점을 연결하는 지역관광 육성계획 수립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확대 및 내실화 ■ 강소형 유망관광도시 육성 ■ 마을 단위의 생활관광 활성화
<p>③ 남북한 및 다자간 연계협력 관광개발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관광 거점 조성 ■ 남북관광 연계 및 공동개발 추진 ■ 공동관광권 형성을 위한 한·중·일 관광개발 협의체 구축
<p>④ 관광자원 영역 확장에 따른 범부처 공유관광자원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육상, 해양에서 즐기는 레저스포츠관광 육성 ■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지역 생활SOC자원의 관광자원화 ■ 범부처 지역관광융합개발사업 추진

1. 지역관광거점 중심 관광개발 확산

■ 광역연합관광권별 메가관광권 개발 추진

- 메가관광권은 현재 관광수요 및 공급을 고려하여 수도권·강원·제주를 ‘제1메가관광권’으로 설정하고, 충북·충남·대전·세종을 ‘제2메가관광권’, 전북·전남·광주를 ‘제3메가관광권’, 대구·경북을 ‘제4메가관광권’, 부산·울산·경남을 ‘제5메가관광권’으로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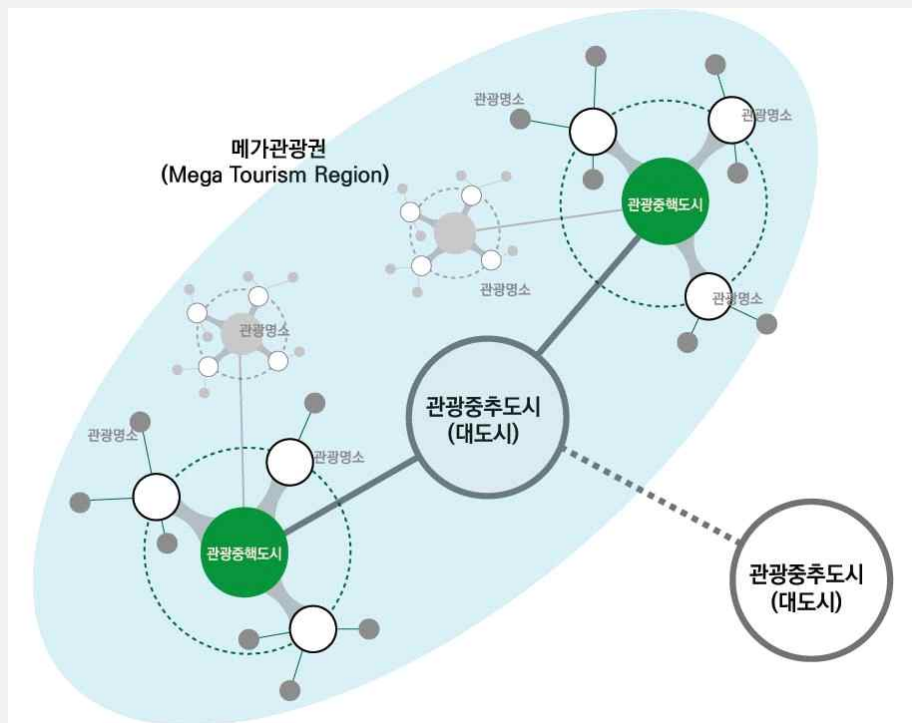


[그림 16] 5대 메가관광권 구축도

- 메가관광권(mega tourism region)은 광역연합관광권별 관광중추도시, 관광중핵도시 및 관광명소(시설, 자원 등) 등 산재해 있는 서로 다른 공간 층위(세 계층)를 하나로 묶치는 관광개발 전략
 - 관광중추도시는 현재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숙박, 쇼핑, 음식 등 관광수용태세가 일정 수준으로 이루어진 공간으로 메가관광권내의 관광중핵도시에 관광객을 송출하거나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국제적(international) 수준의 관광도시
 - 관광중핵도시는 중핵도시 관광이동권내 관광자원, 관광시설 및 관광명소들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국가적(national) 수준의 관광도시
 - 관광명소는 그간 관광개발정책으로 추진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관광지점과 선형관광자원중 지역(regional)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역할〉

- 관광중추도시는 관광권에서 관광시설, 자원, 콘텐츠, 홍보, 조직 등을 압축적으로 개발하여, 메가관광권(mega tourism region)의 핵심 역할 담당
- 관광중핵도시는 고유한 관광브랜드를 지니고 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중소규모의 핵심 관광도시(시·군)로 관광중추도시를 연결하는 관광매개(노드, node) 역할 담당
- 관광명소(시설, 자원 등)는 점형(관광지 등), 선형(걷는 여행길 등) 또는 면형 관광자원으로 쇠퇴, 유훈된 관광자원, 시설 등을 포함하여 관광객 유입 역할 담당



[그림 17] 광역연합관광권별 메가관광권 개념도

- 메가관광권내의 관광중추도시는 광역교통체계를 근간으로 관광도시간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출국 장소로서 안내, 정보, 편의 등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
 - 관광교통은 목적지까지의 모든 여정에 걸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철도,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지역간 연계 및 다양한 편의 확대가 우선
 - 관광중추도시와 관광중핵도시, 관광중핵도시와 관광명소간 연계 체계 구축에 있어 관문~허브~관광지점이 연계되도록 구축
- 5대 메가관광권은 자족적 관광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숙박, 교통, 안내정보, 관광시설 및 자원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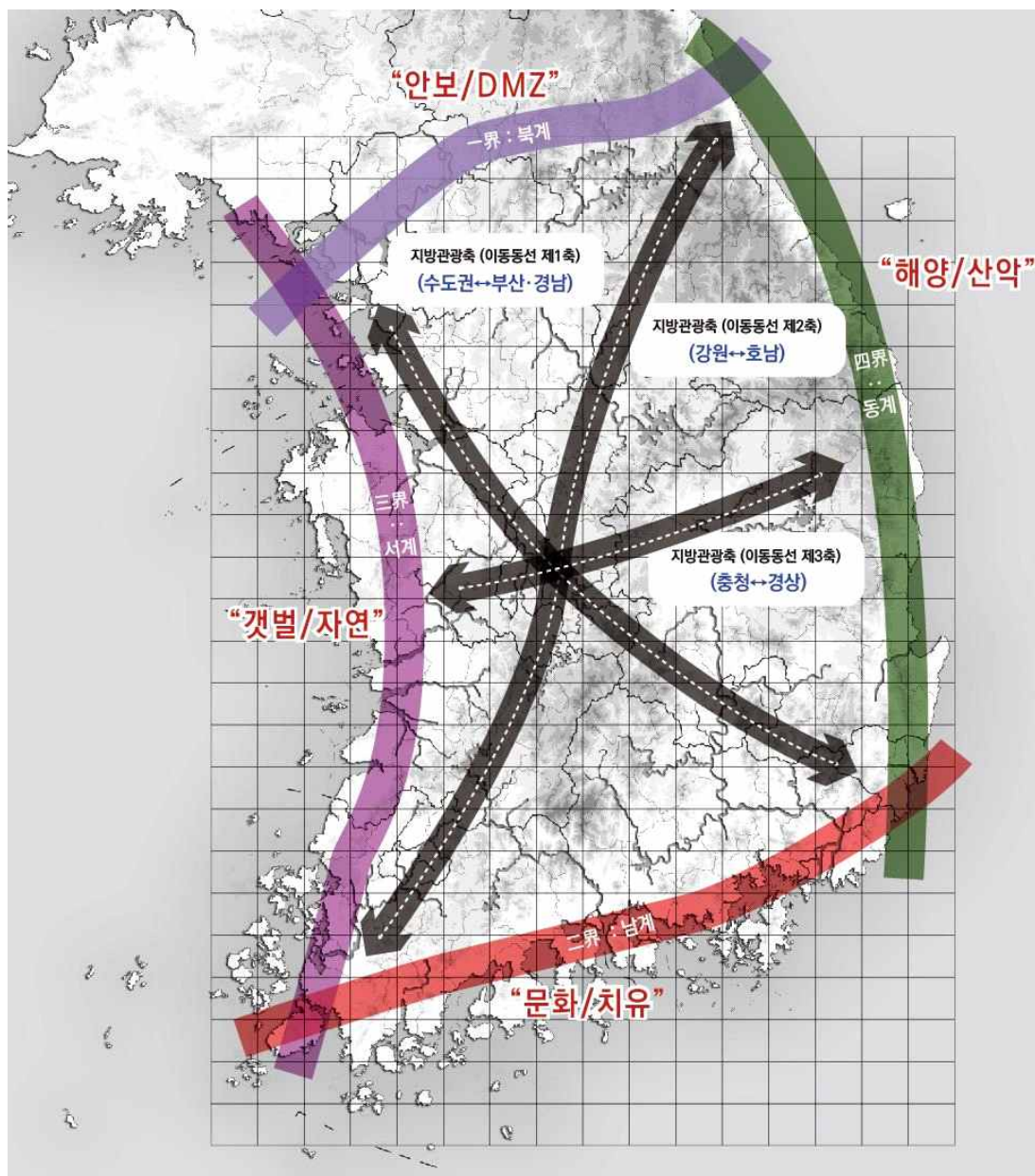
■ 다극다핵(多極多核) 연계 기반 4(자원 중심)×3(이동동선 중심) 관광축 구축

- 관광자원과 관광객의 이동동선을 중심으로 전 국토를 종횡으로 연결하는 관광축 구축으로 차세대 관광국토 완성
 - 관광중추도시, 관광중핵도시와 관광명소(테마파크 등) 등을 중심으로 국토를 종횡으로 연결하여 공급중심 정책에서 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가치 활용 정책으로 관광개발정책 전환
 - 관광축은 지역관광 발전 및 국가관광 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중심지(관광중핵도시 등)와 관광이동권을 연결한 선형 지대를 의미
- 4대 관광계(界)는 관광자원 확장 및 연계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공동발전 전략을 상징화한 축으로 동·서·남·북 사계(四界)로 구축
 - 관광거점도시 등 관광중추도시로서 역할을 하는 도시를 기반으로 도시관광 특성과 자연, 문화 등을 고려하여 관광객 행태와 관광자원 가치를 연결한 국토관광축 구축
 - 관광객 행태와 자원 가치를 연계한 4대 관광계는 강력한 관광자원을 갖춘 2개 이상의 도시를 연합하여 고차원적인 관광공간, 시설, 자원 등 중심기능 공유
 - 남계는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와 치유 기능을 확대하는 남부권(축), 북계는 DMZ와 안보자원을 활용하여 미래 남북교류 가치를 확대하는 북부권(축), 동계는 동해안과 백두대간의 해양과 산악을 아우르는 자원을 활용한 동부권(축), 서계는 갯벌의 가치와 자연생태와 환경적 가치를 활용한 서부권(축)으로 설정
- 3대 지역 관광축은 전 국토를 관통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따라 관광지점을 연결하여 지역관광 매력을 확산하고, 관광객 지방 분산을 유도하는 관광축
 - 철도 기반 미래 광역교통체계로써 관광객 동선과 연계한 지역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관광축에서 주변지역으로, 지역에서 관광축으로 탄력적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유연하면서 개방적인 방식으로 추진
 - 마을단위 관광지점을 광역교통체계와 연계하는 회랑형(corridor) 관광개발을 통해

대규모 관광개발을 지양하면서도 관광객 체류일수를 연장하고, 입체적인 지역관광 점·선·면·체(體)의 완성 추진

- 지역 관광축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지역이 가진 관광역량을 결집시키고 결합하여 역사문화관광축, 그린관광축, 산악관광축 등 광역교통체계 인근 지역의 관광여건에 맞게 관광축 안에서 세부적으로 테마를 부여하여 다양한 매력 창출 유도
- 제1관광축은 수도권과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제2관광축은 강원과 호남을 중심으로, 제3관광축 충청과 경상을 중심으로 구축

- 전국토를 대상으로 8대 테마 중심의 4계(공급 관점)와 관광객 이동동선(수요 관점)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광발전 체계를 구축



[그림 18] 4×3 관광축 구축도

2. 지역관광 육성사업 추진체계 구축

■ 광역연합관광권-광역권-소권-도시-지구-지점을 연결하는 지역관광 육성계획 수립

-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Compact-Network)에 따라 광역연합관광권-광역권-소권-도시-지구-지점 등 공간층위별 지역관광 육성계획(그랜드 플랜) 수립
- 광역연합관광권과 관광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고, 관광자원, 시설, 인프라 및 공간의 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지역관광 육성계획으로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미래 거대(巨大)관광 자원으로 육성하는 계획
- 지방관광거점 구축 및 연계사업간 상생 발전을 유도하여 경쟁 기조에서 협력 기조로 미래 지역 관광개발 방향을 전환하는 육성계획 수립
- 광역권 관광개발의 공간적 범위를 뭉치고(compact), 관광거점도시 효과를 관광증추도시로 연결하여 확산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은 관광명소로 연결(Network)하여 기존 관광개발 체계의 계승 발전 유도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확대 및 내실화

- 수도권, 강원, 제주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외래관광객의 지방 분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거점도시를 권역별로 확대 추진하여 관광기반시설과 다양한 콘텐츠를 조성하고 외래관광객 관광편의시설을 확대하며 관광객 만족도 제고
- 지역관광거점도시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관광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도시로 확대하며 외래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는 국제적 수준의 관광도시로 성장 발전 유도
- 관광거점도시 확대를 통해 지방 관광도시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 확산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교통 체계를 확충·다변화

■ 강소형 유망관광도시 육성

- 근거리 여행, 라이프스타일 여행, 생활관광 및 경험소비 등의 트렌드는 관광객의 개성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관광지보다는 광범위한 관광자원 권역과 번잡하지 않은 중소 도시에 대한 여행 선호 경향 확대
- 대중교통을 포함한 관광교통, 숙박 및 안내정보 체계 등 도시관광의 중요한 기반 시설을 갖춘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한 유망 관광도시 육성
- 관광객이 스스로 관광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이 발굴한 관광지와 도시 인프라 및 도심 문화관광 시설을 연계하여 수요체감형 관광콘텐츠로 활용

- 강소형 유망관광도시 육성은 관광객과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차세대 관광도시 모델로서 도시 인프라와 관광자원을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조성하기보다는 이용하는 새로운 관광개발 정책 모델로 활용
 - 원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노후된 관광지 재생, 유휴자원 활용 대안으로 수요체감형 관광콘텐츠 접목 및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개인별 관광정보와 코스를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관광서비스 확대
- 유망관광도시 육성은 지방소멸, 인구감소 등 도시 여건 변화 및 관광개발의 결합형 정책으로 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용이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지닌 특화 관광거점도시로 성장

■ 마을 단위의 생활관광 활성화

- ‘현지인처럼 살아보기 여행’ 등 마을 단위의 장기간 체류형 국내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체류 목적의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 마을 단위의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그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 생활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현지 살아보기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하여 생활관광 활성화 확대
- 지역의 특색 있는 골목길 문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의 일상체험 명소로 육성하고 역사와 스토리를 보유한 노포(오래된 가게)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
- 전국에 분포하는 관광경쟁력 있는 골목길을 발굴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 및 체험 콘텐츠를 결합하여 지역 관광명소이자 생활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
 -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유한 골목길을 지역 대표 여행상품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골목여행’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화
- 전통과 역사, 지역 정서와 이야기를 지닌 오래된 가게(노포, 老鋪)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노포 관광자원화’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가게’, 서울시의 ‘오래가게’, 인천시의 ‘이어가게’ 등 대표적인 노포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관광 관점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노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에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환경 개선 등 지원

3. 남북한 및 다자간 연계협력 관광개발 추진

■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관광 거점 조성

- 남북관광 협력 재개를 유도하고 비무장 지대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남북한 관광 교류 협력의 상징적 공간으로 특화
- 한반도 평화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판문점, 비무장 지대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한반도 평화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DMZ 주변 미사용 유휴 군사시설 등은 숙박·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한반도 평화관광 상품은 남북 연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분단상황에서 관광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 관광에 대한 흥미 제공
- 접경 지역에 위치한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 지자체와 접경지역 인근 북한 지자체와의 관광협력을 유도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하는 평화관광 활성화
- 남북 경제 산업 협력의 상징적 공간인 개성공업지구를 평화관광지대화하여 파주-개성간 남북관광 연계를 통한 통일관광시대 대비 전진기지로 활용

■ 남북관광 연계 및 공동개발 추진

- 남북 교류의 상징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바탕으로 남북한 공동으로 남북 자연 및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동 관광개발을 추진하며, 남북간 항공, 철도, 도로 등을 관광교통로로 활용
- 신북방정책을 통해 북방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정치적 영향이 적은 관광개발을 통해 경제·산업적 협력을 북한으로 확장
- 북한 경제개발구에 관광부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대북제재 완화 등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자본 유치를 통한 관광개발 추진
 - 환동해권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유도하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동해와 산악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자원 등 경쟁력 높은 관광자원을 공동 개발하며,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환동해 크루즈 추진
 - 환황해권은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로서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등을 잇는 서해안 경험벨트 및 양덕온천문화휴양지와 연계하여 경제적 산업적 평화관광 기반을 조성
 - 중국·러시아 등과 인접한 국경지역은 두만강 국제관광특구 공동개발 추진 등 초국경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남북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과 연계개발 추진

■ 공동관광권 형성을 위한 한·중·일 관광개발 협의체 구축

-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고, 상호 관광객 방문 비중이 높으며 역사, 생활, 언어 등 문화적 유사성에 비추어 공동관광권을 형성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크루즈, 철도 등 접근성 개선·확충
- 동북아 지역이 국제적인 관광목적지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의체인 동북아 열린관광 정부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관광권내 주요 관광도시를 선정하여 상호 연계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디지털 기반 공동관광정보 플랫폼 구축
- 국가간 공통 관심사인 자연유산, 문화유산(유네스코) 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연계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온라인 기반의 관광정보플랫폼을 공용으로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의 실제적 관광자원화를 추진

4. 관광자원 영역 확장에 따른 범부처 공유관광자원 개발

■ 항공, 육상, 해양에서 즐기는 레저스포츠관광 육성

- 항공, 해양 및 육상 등 다양한 공간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과 숙련도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저변 확대
- 시설, 지원 서비스 등이 집적화된 레저스포츠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레저스포츠의 교육, 체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광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레저스포츠관광 향유 유도
- 소관 부처별로 분리되어 있는 레저스포츠 관련 정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대표 레저스포츠관광을 선별 육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지원

■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섬 지역은 국토 유지에 필수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주 인구 확대 또는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를 확대하거나 장기 체류 유도를 위하여 섬관광 활성화 추진
- 섬은 천혜의 자연관광지로서 휴양, 치유 관광을 추구하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고, 코로나 19 이후 자연관광지 선호 및 워케이션 관광지 선호 트렌드 확산으로 관광객 증가

- 가족, 마니아, MZ 세대 등 특정계층과 세대별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섬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섬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 관광브랜드 구축
- 부처간 협력을 통해 해상 교통수단 다각화, 스마트화 통한 예약 및 환승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체류관광 및 연계관광 기반 확충 지원
-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등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관광부문의 역할을 설정하고 섬 고유 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관 및 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 생활SOC자원의 관광자원화

-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및 공간인 생활SOC 자원을 로컬라이프의 일상 체험과 다양한 관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광매력 및 편의 기능 강화
-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SOC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SOC 관광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생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생활 유희자원을 관광시설로 활용 확대
- 생활SOC의 관광 활용 유형을 관광매력 강화형, 관광기능 추가형, 관광 정책 연계형 등으로 구분하여 비관광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전환
 - 관광매력 강화형 생활SOC는 어린이과학관, 박물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가상현실 체험관 등, 관광기능 추가형 생활SOC는 생활문화센터, 로컬푸드 복합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관광정책 연계형은 일반농산어촌, 어촌뉴딜300 등 포함
- 생활SOC의 관광자원화 추진체계는 5단계로 ①생활SOC 관광자원 시범사업추진(선도 모델 개발) ②생활SOC 관광을 위한 공간조성(관광 매력성 확보) ③지속가능한 운영유지를 위한 재원확보(추진 재원 마련) ④생활SOC 관광자원 관리운영 체계화(지속가능한 관리) ⑤ 생활SOC 관광자원화를 위한 제도화(추진시스템 구축) 순으로 추진

■ 범부처 지역관광융합개발사업 추진

- 산림, 해양, 환경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부처마다 다른 정책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기획 추진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을 통합하여 범부처 지역관광융합개발사업 추진
- 부처간 융합관광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순차적으로 관광개발 공모 사업을 통합·추진하여 지역수요에 따른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유도
 - 부처별 공모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사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통합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관광자원 개발 효과 극대화

제6절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정책 방향

- 관광자원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균형적 추진
- 관광개발 정책효과 제고
- 관광자원 관리 최적화

계획 지침

- 효율적인 관광자원개발 법·제도 정비
 - 관광개발기본계획은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국가단위 장기 종합계획으로, 중앙 정부는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의 조화와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역 관광개발의 기준이 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관광개발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관광 육성을 위한 법률 정비, 재원 확충, 지역관광 추진 조직 설립, 정책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는 지역관광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 전주기에 걸친 관광개발 표준지침을 개발 및 보급하고 표준지침에 따라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 정부는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의 제도를 환경변화에 맞춰 개선하고 다양한 관광 개발 수단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전(全)주기 관광자원 관리체계 구축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관광수요와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축적하고, 관광수요의 요구와 관광자원의 가치를 통합하는 과학적인 전주기 관광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개발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관광자원의 개발·이용·보호·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광개발계획의 평가와 환류를 강화한다.
 - 정부는 부처별 관광개발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고도화한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관광개발계획을 실행함에 있어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전략추진 방향과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진단한다.

[전략 6]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추진 전략	추진 과제
<p>① 관광지등 관광개발 관련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광지 지정제 도입 ■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등급제 도입 ■ 관광특구 평가체계 내실화 및 관광 거점 기능화
<p>② 관광개발 위상을 강화하는 법률체계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적 관광개발 법률 마련 ■ 지역관광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관광진흥법 제정
<p>③ 관광개발 정책 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개발 표준지침 보급 ■ 맞춤형 지역관광 컨설팅 지원 ■ 공공부문 관광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계획평가 제도 도입
<p>④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광자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적 증거 기반 지역관광 진단지표 고도화 ■ 지역관광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마련 ■ 관광분야 거대자료 활용 강화
<p>⑤ 관광자원의 통합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DSS 기반 관광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 관광자원 통합 관리를 위한 부처 협업체계 구축

1. 관광지등 관광개발 관련 제도 개선

■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광지 지정제 도입

- 관광지 지정 관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국가 차원에서 육성 관리하여 세계 관광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글로벌 관광지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광지 지정 제도 도입
- 시·도지사가 지정, 개발, 관리하는 현행 관광지 제도는 2000년대 이후 침체기를 겪고 있고 재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 조성 및 우수관광지 확산을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광지 지정 운영체계 마련
- 관광지로 지정되어 계획수립, 개발, 운영 중인 227개 관광지 및 46개 관광단지를 대상으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기여도가 크거나 인구소멸지역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지를 국가관광지로 지정하고 국비를 지원하여 관광지 육성
- 정부는 국가관광지 지정에 관련한 추진체계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국가관광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 운영하고, 글로벌 관광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핵심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

■ 관광지 활성화 위한 등급제 도입

- 관광지 제도는 지방이양 이후 양적 질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일반 국민은 법정 관광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관광지의 입지, 특성이 지역과 테마에 따라 상이하고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광지 등급제 정책모델을 개발하고 매력성, 편의성, 연계성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
-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조성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광지 등급제와 연동하여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지원사업 추진
- 227개 관광지 및 46개 관광단지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관광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쇠퇴기에 접어든 관광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광지 리모델링 지원 방안 마련

■ 관광특구 평가체계 내실화 및 관광 거점 기능화

- 2019년 정부 주관 관광특구평가가 신설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년마다 특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 관광특구 인센티브 지원, 지정요건 미충족 및 추진실적이 미흡한 특구에 대한 조치 방안 추진 중

- 지역중심의 종합지원형 사업 전환을 위해 각각의 특구가 보유한 자원, 인적특성, 사업체, 시설인프라 등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찾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관광 거점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전략 수립
-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관광 활동 중심지역으로 차별적인 특화 전략을 통해 지역관광 활동과 지역관광상권의 중심거점 역할 수행
-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대한 체계적 분석·평가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관광특구 운영 컨설팅 및 사업개선 지원으로 특구 운영 내실화 도모

2. 관광개발 위상을 강화하는 법률체계 정비

■ 독립적 관광개발 법률 마련

- 관광 관련 주요 법률인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분법을 통한 관광법제 개편 추진
- 「관광기본법」을 개편하여 기존 기본법의 내용과 더불어 국제관광, 국민관광, 지역관광 및 관광산업의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
- 「관광진흥법」은 법률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가칭)관광사업법, (가칭)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칭)관광숙박업 등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으로 분야별 기능별로 분법 추진
 - ‘(가칭)관광사업법’은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광업종 체계의 개편 및 행정절차를 규율하는 내용 중심으로 개편
 - ‘(가칭)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절차를 체계화하고 관광지등 이외의 다양한 관광개발 수단을 포함하여 체계적·효율적인 개발체제로 개편
 - ‘(가칭)관광숙박업 등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숙박업관련 행정절차와 규제 또는 진흥에 관한 조항을 통합하여 개편

■ 지역관광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관광진흥법 제정

-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지방 이양됨으로써 관광개발 주체인 지자체 중심의 지역관광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계획수립, 예산편성, 자원 개발, 정책 집행, 운영관리, 평가 등 지역 단위의 관광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 정비 추진
- ‘(가칭)지역관광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의 확충, 기금 조성, 인력 양성, 조직설립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에 미치는 관광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광수용태세, 관광자원개발,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등의 내용 포함

-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진흥에 관한 조항을 다루고 있지만, 지역관광 진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특성화된 관광개발 활성화로 시·군 및 광역 단위의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써 ‘(가칭)지역관광진흥법’ 제정
 - 지역문화정책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으로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 ‘(가칭)지역관광진흥법’을 제정하여 지역관광을 전담할 지역관광조직을 설치하여 지역관광 관련 개발계획 및 정책사업의 제도화 등 추진역량 강화

3. 관광개발 정책 지원 확대

■ 관광개발 표준지침 보급

- 정부의 관광개발 사무가 지방 이양되면서 지역관광개발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담당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를 위한 표준지침 개발 및 보급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형의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광자원 발굴, 재생, 융복합 등 새로운 관광개발 추진 방식을 활용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유형별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 시설조성 중심, 공영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광자원 가치를 극대화하며, 관광자원 생애주기에 맞춰 기획, 개발, 운영, 평가, 환류 등 관광개발 전 과정에서 사업 추진 내실화 유도
- 관광개발은 건축, 조경, 도시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 관련 지식 및 정보 제공 차원의 종합적인 관광개발 표준 지침 개발 및 보급

■ 맞춤형 지역관광 컨설팅 지원

- 지역 관광개발의 기획, 개발, 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고, 단위사업 중심의 점적인 일회성 관광개발에서 벗어나 도시단위의 선, 면적 관광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 지역관광 정책의 경험을 축적하고 관광개발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관광 전반의 진단과 처방을 포함하는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관광 발전모델 정착
 - 미래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 하고, 관광수요의 요구와 지역 관광자원의 가치의 접점을 찾아 고품격 관광자산 개발
- 타부처 관광개발 정책 연계, 민간 참여 확대, 지속적 성과관리, 조성과 운영의 통합 관리 등 관광개발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역관광의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컨설팅 제공

■ 공공부문 관광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계획평가 제도 도입

-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하고,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내용적 범위로 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관광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관광개발 방향과 지침에 준하여 일관성과 정합성 여부를 평가하는 관광계획평가 제도 도입
 -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다양한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서 계획간 일관성과 정합성이 미흡한 문제점 개선
- 관광계획평가 제도는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관광개발, 경쟁력 있는 관광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 관광개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기여 여부와 관광개발 최상위계획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상위 유관계획과 부합 여부 평가
- 제도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법 개정 절차를 이행하고, 사전 연구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
- 공공부문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역별관광개발계획 및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관광개발계획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
 - 평가 대상(안) : 공공에서 수행하는 모든 관광개발 계획을 포함
 - 평가 기준(안) : 관광개발기본계획의 계획지침을 기준으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관광자원의 지속가능성, 친환경적 관광개발, 관광자원의 현명한 이용, 균형적이고 합리적 관광개발, 관광수요의 적정성, 경제적 파급효과의 타당성 등
 - 평가 절차(안) : ① 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문체부)▶ ②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 방법 선정·통보 (문체부)▶ ③ 자체평가 실시 (공공기관의 장 및 계획수립권자)▶ ④ 평가 요청서 작성 및 평가요청 (계획수립권자 → 문체부) ▶ ⑤ 관광계획 사전정합성 평가 실시 (문체부·전담기관) ▶ ⑥ 전문가 평가단 심의 (문체부·전담기관)▶ ⑦ 평가결과 통보 및 반영 (문체부·계획수립권자)

[사례] 국토계획평가 주요 내용

-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 개 념: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 평가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 국토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5개), 기간시설계획(11개), 부분별 계획(12개))
- 평가기준: 균형적 국토발전, 국토의 경쟁력 강화,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계획의 적정성
- 평가 방법: 정량적기법(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환경용량분석 등), 정성적기법(전문가 의견)

자료: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rihs.re.kr/research/researchPlan2.do?center=53>

4. 데이터 기반 과학적 관광자원 관리

■ 과학적 증거 기반 지역관광 진단지표 고도화

- 지역관광발전지수를 중심으로 지역관광 진단체계를 고도화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지역관광발전 수준의 진단과 지자체 자체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자료입력, 동향 분석, 진단 등의 과정을 체계화
- 지역관광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격년 주기로 실시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5년 단위로 개발된 표준모델과 지표체계를 재검토하여 기준연도와 가중치 등을 조정하여 지역관광발전지수의 효과성과 시의성 제고
- 축적된 데이터 및 분석 자료를 활용한 동향분석 기능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관광 진단지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예비지표 체계를 도입
- 중장기적으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관광 진단지표 개발, 지역 관광산업 지표 연계 등의 방식을 포함하여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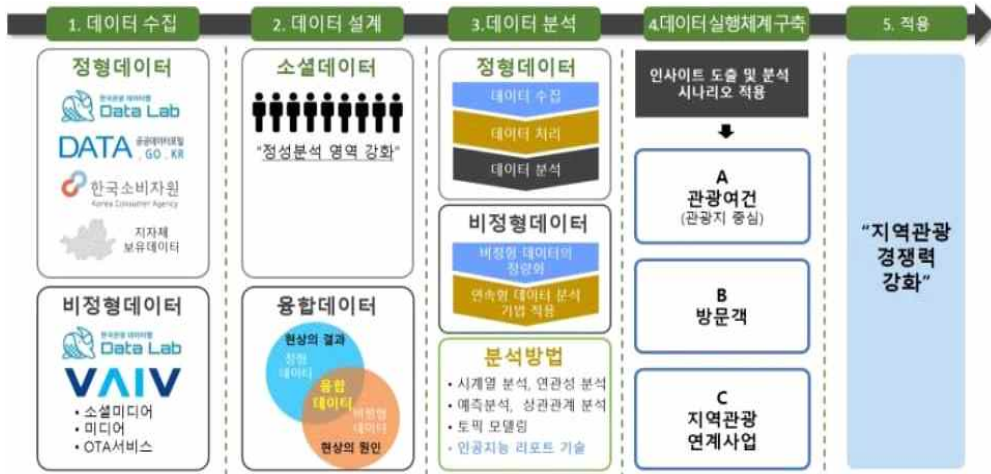
■ 지역관광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마련

-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통계의 생산이 전제되어야 하며, 통계 생산 조직의 체계적인 제도적 관리에 기반하기 위해 통계관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지역관광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고도화
- 관광부문 주요 국가승인통계는 주요관광지점입장객통계, 관광사업체조사, 국민여행조사, 외래관광객조사 등이고, 지역관광 방문객의 정의 및 집계방식을 명시하고 있는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관광자원 영역이 확장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관광지점을 확대하고, 관광지점별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 지자체 단위의 지역관광정책 수립 및 관광진흥, 성과평가의 기초 인프라로써 지역의 관광수요와 관광자원 및 사업체 현황을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선진 통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단위 관광통계 생산방안 마련
- 지자체 단위 통계 생산은 지자체 데이터기반 시책과 연동하여 협업하고, 주요 관광자원과 사업체 현황을 포함하는 지역관광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며, 생산되는 지역 관광통계 자료를 지자체 스스로 진단

■ 관광분야 거대자료 활용 강화

-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 기반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거대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대자료를 활용한 트렌드 전망, 수요예측, 신규자원 공급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표준 모델 개발

- 관광 자원, 관광 서비스, 관광 인프라 등 관광자원 관리와 관련된 지표와 거대자료의 연동을 통해 관광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관광산업 거대자료 표준화 방안 마련
- 소셜 빅데이터, 카드 빅데이터 통신 빅데이터 등의 통합 활용 방안 마련과 다양한 데이터의 융·복합 및 지역 관광여건 데이터 공개로 지역관광 관련 거대자료 접근성 확대 및 자료의 정합성 모색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2021)

[그림 19]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 관광개발 방향 설정 체계

5. 관광자원의 통합관리

■ TDSS 기반 관광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 관광자원개발통합정보시스템(TDSS)의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제공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광개발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광자원 개발 관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시스템 자체적으로 분석한 고품질의 정보를 생산하며 제도, 예산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고도화
- 지자체 스스로 지역관광발전 수준을 자가 진단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시스템과 관광개발사업의 추진과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통합하고,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여 시스템 활용도 제고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리플렛

[그림 20] 국가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TDSS) 고도화

■ 관광자원 통합 관리를 위한 부처 협업체계 구축

- 지자체 관점에서 관광개발은 동일한 자원과 공간에 다양한 부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나타나는 중복 투자, 비효율적 투자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부처간 협업 및 전략적 정책 운영 체계 구축
- 지역 발전 수단으로 관광개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기획-계획-개발-운영 등 전주기적 지역관광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다부처 공동 기획 사업을 우선적으로 기획 및 예산을 편성하며, 국가 R&D 사업으로 투자 확대
- 지역관광 협업체계는 부처별 관광개발 사업의 점검, 다부처 공동 기획 제안에서부터 사업 선정,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이견 조정 등 기능 담당





제5장

관광권역별 개발방향

제1절 관광권역 기본 구상

제2절 권역별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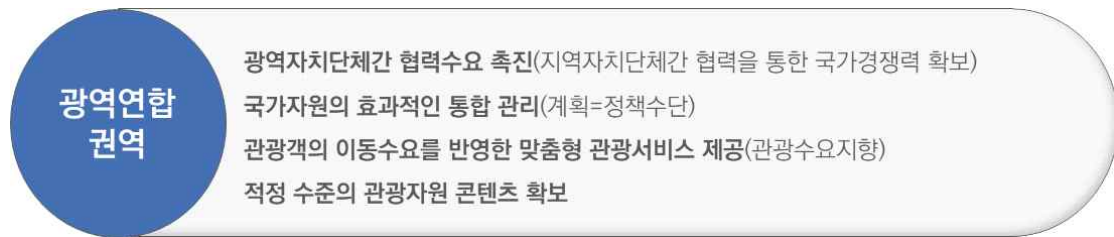


제1절 관광권역 기본 구상

1. 관광권역별 기능과 역할

■ 광역연합권역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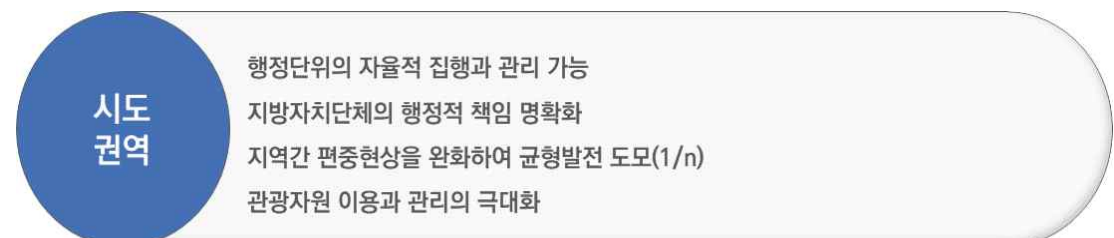
- 광역연합권역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수요 촉진,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 관광객의 이동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적정 수준의 다양성 확보



[그림 21] 광역연합권역 기능과 역할

■ 시·도 권역의 기능과 역할

- 시·도 권역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단위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책임 명확화, 지역간 편중현상 방지로 관광지 개발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관광자원 이용의 극대화 유도
 -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자율적 책임과 역할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84.2%), 효율적 집행 및 관리의 기능(80.5%)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은 계획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 행정단위 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통합적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함



[그림 22] 시·도 권역 기능과 역할

2. 5대(1³+4) 광역연합관광권

가. 기본방향

- (관광여건별 특화) 관광성숙지역과 관광성장지역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권역별 고유특성을 살릴 수 있는 관광권역 설정
- (관광수요 반영) 행정권역 구분 없이 관광객 이동패턴을 고려하여 관광수요 맞춤형 관광서비스와 지원이 가능한 관광권역 설정
- (지역자립·분권 확대) 지자체·지역주민 스스로 지역관광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중심으로 경제적 기반이 구비된 관광권역 설정
- (연계·협력 강화) 정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권역 설정

나. 5대권 설정방향

■ 수도권·강원·제주권

- 수도권·강원·제주권은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강원·제주지역이 포함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글로벌 K관광 선도지대
 - 수도권은 글로벌 관광허브, 한류중심지역, 강원권은 세계인이 다시찾는 생태·웰빙·휴양지역, 제주권은 미래지향적인 청정 자연유산관광 중심지역임
- 북·융합 국제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평화생태관광벨트화를 통한 신경제구상을 선도하고, 국제관문관광지역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휴양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민관광공간의 제공과 청정 환경생태관광지역으로서의 환경브랜드 가치 제고

■ 충청권

- 충청권은 대전·세종 도시권을 중심으로 충북·충남지역을 포함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과학기술 기반의 백제·중원문화 관광지대 육성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강점을 활용한 전국 관광집객 중심거점으로 조성하고 백제의 역사와 동서양의 문화교차를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디지털 관광 활성화, 웰빙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관광 거점으로 조성

■ 전라권

- 전라권은 광주도시권을 중심으로 전북·전남지역을 포함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다도해·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관광지대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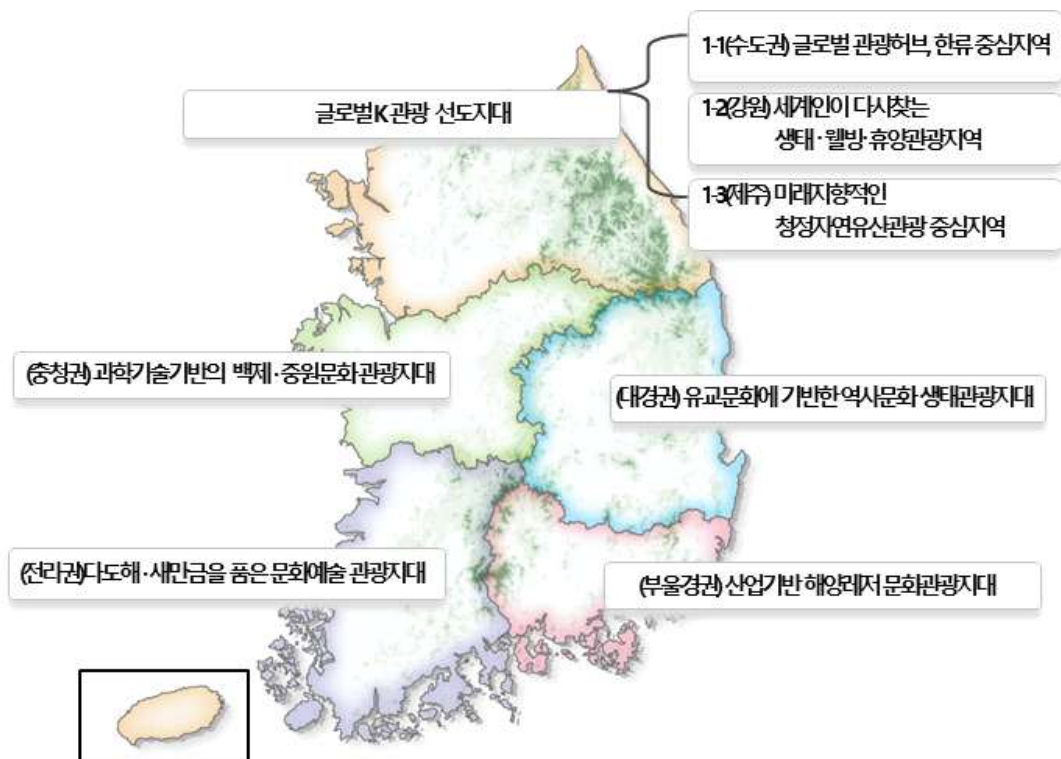
- 문화예술과 역사를 통한 콘텐츠 확대 및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식, 한문화 등의 콘텐츠 육성지원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해안·섬·다도해 등 해양관광자원 및 새만금 해양관광권 등 서해안 관광허브 조성

■ 대경권

- 대경권은 대구도시권을 중심으로 경북지역을 포함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생태관광지대 육성
- 유교문화에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자원 거점으로 조성하고, 백두대간 생태축, 동해안 해안축, 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한 생태관광의 실현, 도심과 역사문화권을 잇는 체류형 생활관광 육성

■ 부울경권

- 부울경권은 부산·울산도시권을 중심으로 경남지역이 포함된 권역이며, 기본방향은 산업기반 해양레저문화 관광지대
-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허브로 구축하고,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 기반의 산업관광 활성화로 관광 저변의 확대, 바다·산을 연계하는 웰니스 관광벨트로 조성



[그림 23]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협력대권별 개발방향

다. 추진계획

■ 추진목적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수요 촉진,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통합 관리, 관광객의 이동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적정 수준의 다양성 확보 등을 위해 광역연합권이라는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의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합계획-관광협약-패키징 사업발굴-모니터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광역연합관광권 사업 지원방식을 확립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 광역연합관광권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협약하고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종합적 계획과의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가 반복되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관광정책의 성과목표를 지속적으로 관리

■ 전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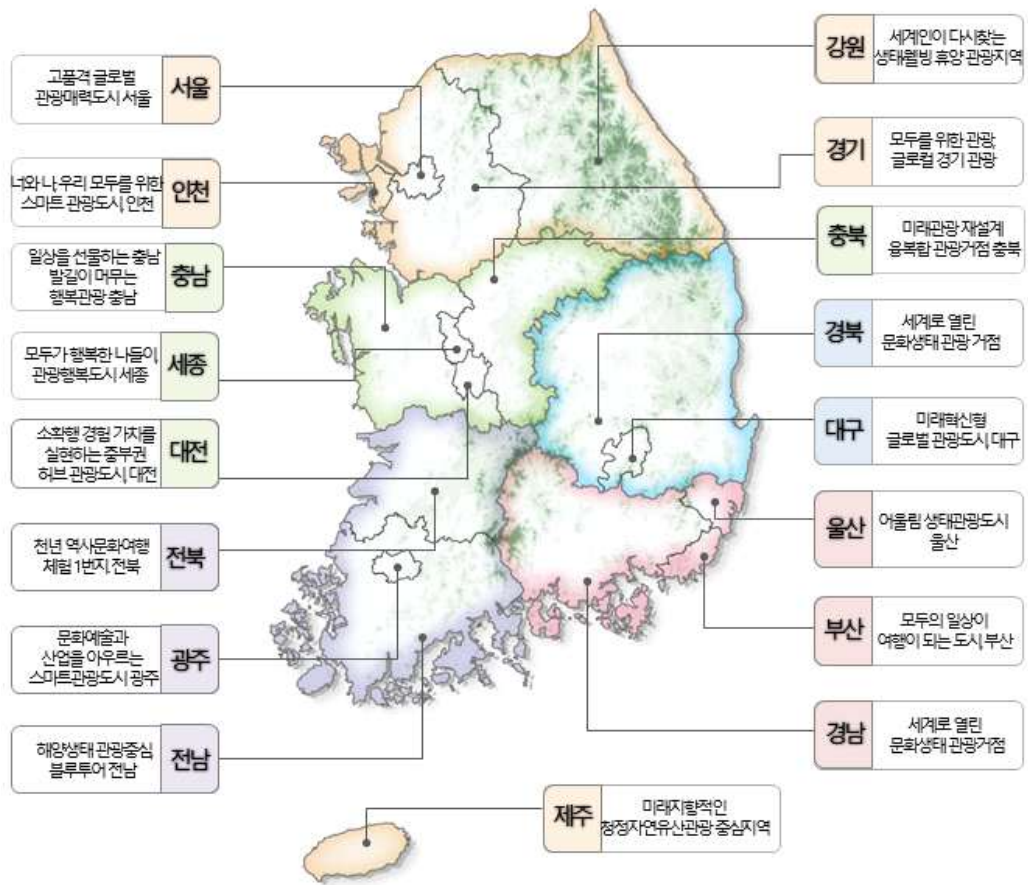
- 각 지역별로 기 추진되고 있는 관광(단)지를 포함한 문화자원개발사업 등 2020년 지방이양된 기존 국비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패키지사업 발굴
- 광역연합관광권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주요 지역 관광추진계획과 연계된 광역연합관광권 계획수립
- 광역연합관광권계획을 기반으로 광역권별 패키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해당사업의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광역 및 기초간 관광협약을 통해 추진
 - 실행계획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활용하여 광역연합권별 사업추진

■ 주요내용

- 광역연합관광권계획수립, 관광협약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협약주체, 협약기간, 협약대상, 협약이행의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 및 설명 실시
- 광역연합관광권 사업발굴을 위한 중앙계획지원단과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단 등의 관광협력거버넌스 체계 마련
- 광역시도 및 기초시군은 광역연합관광권 계획에 포함된 모든 사업에 대해 지방비를 편성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협약대상 광역연합관광권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3. 17개 시·도

-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22~2031)은 제7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2022~2027)과 수립시기가 동일하여, 제4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의 비전 및 방향 공유 후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계획의 권역별 방향을 반영함



[그림 24]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 17개 시·도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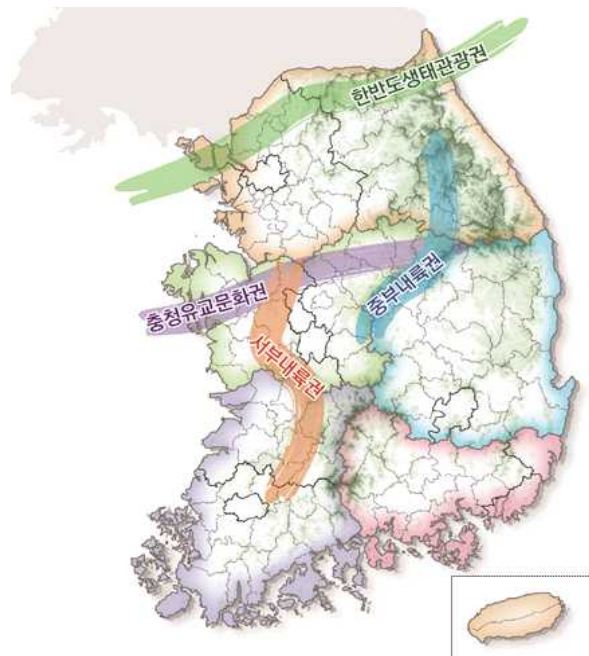
4. 광역 관광벨트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 광역관광권 관광개발(연계협력)사업은 기존 개별 지자체(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된 관광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통된 자원 및 테마를 중심으로 복수의 지자체를 동일권역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
- 광역권 관광개발 관광권은 한반도 생태평화벨트(2013~2022),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2017~2026),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2019~2028)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추진(2023~2032/잠정) 예정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제도화와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수립근거, 수립절차, 협의기구 및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

〈표 39〉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현황

구분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단계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2013~2022(10년)	인천, 경기, 강원 10개 시·군	진행 중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13~2022(10년)	충북, 강원, 경북 17개 시·군	완료 예정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017~2026(10년)	세종 및 충남, 전북 18개 시·군	진행 중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2019~2028(10년)	대전, 세종 및 충북, 충남 26개 시·군	진행 중



[그림 25]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현황

제2절

권역별 추진 계획

1. 수도권·강원·제주권

1. 관광권역 방향성

가. 목표 및 전략

◇ 목표 ◇

글로벌 K관광 선도지대로 육성

◇ 소권별 목표 ◇

[수도권] 글로벌 관광허브, 한류 중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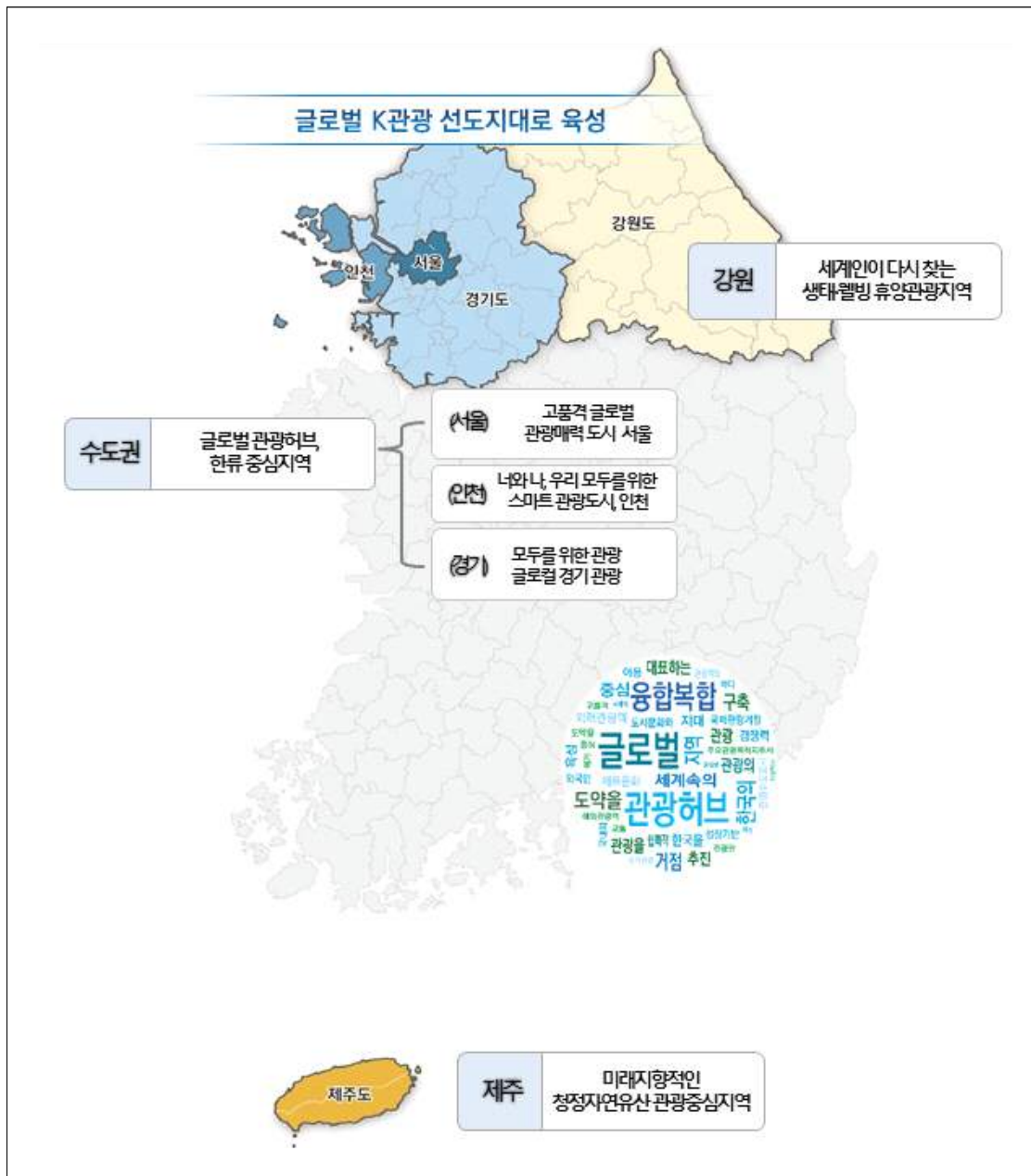
[강원권] 세계인이 다시 찾는 생태웰빙휴양 관광지역

[제주권] 미래지향적인 청정자연유산관광 중심지역

■ 글로벌 K관광 선도지대

- 수도권·강원·제주권은 국가간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향후 10년간의 개발 방향과 비전을 국제적 수용태세 구축을 통한 글로벌 K관광 선도지대로 제시
 - 전문가 및 지역 의견 조사결과에서 수도권·강원·제주권을 연상하는 주요 키워드로 관광 허브(거점), 글로벌, 융합/복합, 자연자원, 바다, 문화 순으로 조사되었음
- 수도권·강원·제주권은 가장 많은 관광객을 송출하는 큰 배후시장임과 동시에 지리적 이점과 발달되어 있는 교통 편의성에 의해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 목적지로 인지
- 또한 해당 지역은 역사자원체험(궁궐, 도성, 사적 등), 대중문화생산(한류, 드라마, K팝 등), 글로벌 허브기능(국제공항, 금융중심 등), 자연자원체험(바다, 산악, 한강 등) 등의 기능을 통해 융복합적인 관광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는 지역
- 환경 여건 변화와 자원적 특성, 전문가 및 각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도권은 '글로벌 관광허브 한류 중심지역', 강원권은 '세계인이 다시 찾은 생태 웰빙·휴양 관광지역' 제주권은 '미래지향적인 청정자연유산 관광중심지역'으로 설정하여 제시

- (서울) 고품격 글로벌 관광매력도시 서울, (인천) 너와나, 우리 모두를 위한 스마트 관광도시, 인천, (경기) 모두를 위한 관광, 글로벌 경기 관광
-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글로벌, 관광허브, 문화, 한류, 융합, 조선궁궐에 대해 가장 많이 연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주권은 국제(세계), 자연유산, 휴양/힐링, 해양관광, 거점, 자유 강원권은 생태관광, 힐링/치유, 해양, 스포츠, 글로벌, 문화 순으로 조사됨



[그림 26] 수도·강원·제주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 건강휴양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국민관광공간의 제공

-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의 자연자원(산악, 바다, 강, 도서 등)을 활용한 힐링과 웰니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전 국민의 대표적인 국민관광공간으로 발돋움
- 수도권 배후시장에서 편리한 접근성(육로, 해로, 항공)을 바탕으로 청정자연환경자원의 활용 및 국제적인 수용태세 구축을 통해 세계인의 대표적인 관광목적지로 개발하고 국제적인 관광수요를 창출

■ 세계적인 청정 환경 및 생태관광지역으로서의 환경브랜드 가치 제고

- 수도권, 강원권, 제주권은 국제적인 청정환경 유지 및 지역의 유네스코 자연 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관리를 실현
- 한반도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등을 통한 관광환경브랜드 가치 제고

■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제수준의 K관광 관문 및 선도지역으로의 역할

-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국제적 교통허브 주변의 자연생태자원,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개발하고, 복합리조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의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K관광의 관문역할 수행
- 경인아라뱃길과 경기만 일대를 연결한 수상레저·친수공간조성을 하고, 강화 도서지역을 활용한 해양자원 및 서울의 궁과 산성 등 다양한 역사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

■ 융복합 국제관광산업 클러스터 및 평화생태관광벨트 조성을 통한 신경제구상 선도

- 세계 유일의 DMZ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생태 관광벨트 조성을 통해 평화·생명·웰빙관광의 세계적 명소로 개발하고 남북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국제적으로 차별화된 관광명소 조성
- 한류, 게임, 카툰 및 애니메이션 등 K콘텐츠와 의료, MICE산업 등을 접목시킨 세계적 수준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동북아 국제관광허브역할 수행

2. 시·도별 전략

가. 서울

1) 비전 및 전략

<p>◇ 서울특별시 비전 및 목표 ◇</p> <p>고품격 글로벌 관광매력 도시 서울</p> <p>◇ 전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로벌 관광경쟁력 확보로 관광목적지 이미지 개선 2. 서울시민 관광여가 기반 구축과 국내관광활성화 3. 지속가능한 서울관광 환경조성 기반 구축 4. 디지털 전환으로 관광자원 시스템 개편과 인프라 개선 5. 관광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광생태계 체질개선
--

2) 전략별 발전방향

■ 글로벌 관광경쟁력 확보로 관광목적지 이미지 개선

- 관광산업과 서울시 지역산업의 연계로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먹거리로서 MICE 및 의료 관광을 고도화하고, K-뷰티 및 K-컬처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이미지 개선

■ 서울시민 관광여가 기반 구축과 국내관광 활성화

- 근거리 여행수요와 자치구 및 5대 권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서울 시민 관광여가 기반을 구축하고 서울시민 관광여가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진흥 도모

■ 지속가능한 서울관광 환경조성 기반 구축

- 코로나19가 가져온 관광생태계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관광활동에서 탄소 감축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관광환경 조성

■ 디지털 전환으로 관광자원 시스템 개편과 인프라 개선

- 비대면사회, 온라인 플랫폼 중심, 가상공간에서의 관광활동 및 콘텐츠 이용 등에 대한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관광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서울시 관광정보를 차별화

■ 관광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광생태계 체질개선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간의 협력 거버넌스의 추진과 위기 대응으로 인한 관광생태계 변화에 대응하여 관광사업체의 다변화 추진 및 관광산업구조의 체질 개선

나. 인천

1) 비전 및 전략

<p>◇ 인천광역시 비전 및 목표 ◇</p> <p>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스마트 관광도시, 인천</p>
<p>◇ 전략 ◇</p> <p>1. 지역 고유 특성인 ‘인천다움’ 발굴 및 ‘인천다움’의 관광 콘텐츠화</p> <p>2.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관광</p> <p>3. 관광산업의 지역 내 산업연줄망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지역화 및 뿌리내림</p>

2) 전략별 발전방향

■ 지역 고유 특성인 ‘인천다움’ 발굴 및 ‘인천다움’의 관광 콘텐츠화

- 인천지역 원도심과 신도심(송도, 청라, 영종), 강화역사문화지역, 옹진 해양 도서 관광지역, 평화·안보 관광지역 등 지역 특색에 따른 관광지 소권 재조정
- 개별 소권의 특성을 포괄하는 인천 특유의 지역정책성 확립 및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인천관광서포터즈 운영 및 SNS홍보

■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천 관광

-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관광콘텐츠 개발사업의 연계, 도심 내 포스트모던한 공간의 발굴 및 수복형 개발 추진, 탈북민, 다문화가정, 저소득 계층 등 사회 통합을 위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 섬 지역 환경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오버투어리즘 및 투어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생태적으로 수용 가능한 관광총량 산정, 적정비용과 대가를 지불하는 고급화된 지역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지역 내 산업연줄망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 제고

- MICE 산업, 의료관광산업 관련 인재 육성 및 지역인재풀 구축,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에 기반한 복합리조트 및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지역내 연관 산업과 관광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인천 관광 추진

다. 경기

1) 비전 및 전략

<p>◇ 경기도 비전 ◇ 모두를 위한 관광, 글로벌 관광경기</p> <p>◇ 전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과 문화,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관광 2.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가능 관광 3.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혁신관광
--

2) 전략별 발전 방향

■ 사람과 문화,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관광

- DMZ, 역사적 인물·장소·사건 등 경기관광자원에 인공지능, 실감콘텐츠,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과 스토리를 접목한 스마트 콘텐츠화, 관광트렌드에 부합되는 인프라 정비, 일상의 관광테마화 등의 경기도만의 문화관광콘텐츠로 다양화와 차별화 추진
- 경험의 소비, 능동적 여행, 모바일과 여행플랫폼 비즈니스화를 통한 경기 관광 활성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와 함께하는 경기 관광브랜드 및 마케팅 체제 구축, 경기도로 짧게 자주 떠나는 일상 같은 지속적 재방문 등으로 당일 여행 목적지화 강화

■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지속 가능 관광

- 31개 시군의 개발환경 및 관광자원 재정비를 통한 지역관광 네트워크 구축, 선도지역 관광개발의 확장성 지원을 통한 후발 지역의 관광자원 역량 강화로 경기도 상생 관광개발 모델 발굴
-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내수형 관광개발 및 도민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협의체 구성, 지속가능한 주민주도형 관광사업체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형 분권관광모델 구축
- 지속가능한 관광 소비 및 생산 양식의 보장으로 책임 있는 관광 소비와 생산을 통한 도민, 관광객, 관광지 모두가 상생하는 공정관광 및 지속 가능 관광 확산 및 지속 가능 관광생태계 구축과 인식의 전환 유도

■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혁신 관광

- 확대되는 빅데이터와 온라인 네트워크의 영향력에 기반한 스마트관광 혁신체계 구축 : 스마트경험(관광콘텐츠), 스마트편의(관광인프라), 스마트서비스(관광지원서비스), 스마트모빌리티(관광교통), 스마트플랫폼(관광정보)

라. 강원도

1) 비전 및 전략

<p>◇ 강원도 비전 ◇</p> <p>세계인이 다시 찾는 생태·웰빙·휴양 관광지역</p>
<p>◇ 전략 ◇</p> <p>1. (공간전략) 사회, 기술, 환경, 경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공간의 변용에 대응</p> <p>2. (시장전략) 사람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형 강원관광</p> <p>3. (자원전략) 강원도의 개성을 드러내는 관광콘텐츠와 자원의 특화</p> <p>4. (산업전략) 강원관광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p> <p>5. (관리전략) 강원도 중심의 관광분권 체계화</p>

2) 전략별 발전방향

- (공간전략) 사회, 기술, 환경 경제 등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공간의 변용에 대응
 - 인구변화, 친환경, 탄소중립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개발의 발전 전략과 연동하여 자연이 우수한 강원도 관광공간의 지속가능 가치를 이슈화
- (시장전략) 사람을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형 강원관광
 - 관광정보 확산과 콘텐츠 구매 파워가 상당한 밀레니얼 및 Z세대 등 차세대 관광시장,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자원전략) 강원도의 개성을 드러내는 관광콘텐츠와 자원의 특화
 - DMZ, 동해안, 백두대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인의 여가의 질을 책임지는 강원도형 고부가가치 자연관광 특화
- (산업전략) 강원관광 비즈니스의 경쟁력 강화
 - 숙박, 음식, 여행 등 전통적 관광산업 부문에 대하여 주민주도, 청년창업, 로컬크리에이티브 등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비즈니스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조성
- (관리전략) 강원도 중심의 관광분권 시동
 - 강원도 수준에서 공간, 시장, 자원, 산업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프레임의 설계 및 도 중심의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체계를 정립하여 도와 시군의 활발한 관광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마. 제주도

1) 비전 및 전략

<p>◇ 제주도 비전 ◇</p> <p>미래지향적인 청정자연유산 관광중심지역</p>
<p>◇ 전략 ◇</p> <p>1.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 제주관광 혁신 역량 제고</p> <p>2. 지식기반의 마케팅 체계 및 경쟁력 강화</p> <p>3.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휴양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p> <p>4. 관광진흥의 가치 재정립</p>

2) 전략별 발전방향

■ 참여와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 제주관광 혁신 역량 제고

- 제주의 최강매력, 미래가치로서 청정자연환경의 보호와 투자, 개발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문화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주민 주도의 경쟁력을 제고,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를 대비하는 환대서비스 제고, 환경친화적 관광수용태세 점검·강화·육성

■ 지식기반의 마케팅 체계 및 경쟁력 강화

- 과학적 전문적 시장변화 전망에 근거하여 시장개척(다변화) 및 마케팅 전략의 지속적 고도화, 제주지역의 특성과 관광사업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 아이템 등에 대한 제주형 관광벤처로 육성하고 기존 관광사업체(관광지 등)와의 협업을 촉진

■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휴양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 무분별한 저가 대중관광 시장 중심에서 휴양, 힐링, 웰니스, MICE, 스포츠, 생태, 쇼핑, 크루즈, 축제 등 고부가가치 시장유치 및 산업육성 위한 신개념 융복합 관광상품화하고, 주요 생태관광지를 중심으로 제주형 생태관광 허브 조성 및 생태관광 벨리 구축

■ 관광진흥의 가치 재정립

- 제주도의 관광체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공정하게 키워 가는 것을 제주 관광진흥의 목표로 설정하여 가치를 재정립, 공유하고 정책가치로 지속 반영하도록 하여 관광약자의 관광 참여를 촉진하는 관광기반 환경조성

2 충청권

1. 관광권역 방향성

가. 목표

◇ 목표 ◇

과학기술기반의 백제·중원문화 관광지대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강점을 활용한 허브 관광도시 조성
백제역사 및 중원문화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로 인문자연자원과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관광 중심지대 조성
- 충청권을 가로지르는 금강과 수변축(미호천, 갑천, 대청호)을 중심으로 특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광역관광 성장동력 마련
-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조사결과에서 충청권은 웰빙관광, 과학기술, 백제역사, 중원문화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



[그림 27] 충청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강점을 활용한 스마트 관광허브 조성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다양한 역사자원과 모빌리티, 교통, 관광, 서비스 등 도시 인프라를 연계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추진 통해 관광객 편의증대 및 도시관광 만족도 제고
- 대전시 트램, 청주국제공항과 대전역, 오송역 등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과 연계하여 e-모빌리티(대중교통, 렌트카, 공공자전거 등)의 예약·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에 숙박 및 음식점, 관광지 등의 예약결제 시스템을 결합한 T-MaaS 플랫폼 구축 추진

■ 웰빙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합관광 거점 조성

- 산·강·호수 등 자연자원 기반 청정관광의 국제적 수준 육성, 충남의 캠핑장과 휴양림을 통한 소규모 힐링 여가 체험공간(태안-보령-서천-공주) 조성, 대전의 장태산과 계족산 중심의 생태관광 발굴, 세종의 호수공간과 금강의 수변형 랜드마크 도시 등 웰빙관광 육성
- 충북의 IT·BT 관련 국가산업단지, 의료관광, 산업관광 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세종의 첨단 의료산업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관광 육성 및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 다양한 동서양의 문화교차를 첨단기술 접목 통한 디지로그관광 활성화

- AR, VR, M,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한 백제역사의 재현을 통해 아날로그의 감성과 디지털의 화려함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SAFE환경조성(See, Adventure, Feel, Enjoy)
- 유교·불교·천주교·기독교 문화가 교차하는 충남을 철학과 히스토리를 담은 컬처트래블의 성지로 조성(부여, 서산, 아산, 공주)

■ 백제역사·중원문화 등 역사문화자원과 금강수변축을 활용한 관광개발

- 백제시대의 꽃피운 다양한 중원문화 및 내포문화 등 문화다양성 관점에서의 문화 창조력을 빛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표적인 충청권의 관광자원화가 필요
- 충청권을 가로지르는 금강과 수변축(미호천, 갑천, 대청호)을 중심으로 복합 수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프라 및 콘텐츠를 활용하여 특화관광벨트 조성

2. 시·도별 전략

가. 대전

1) 비전 및 전략

<p>◇ 비전 ◇</p> <p>소확행 경험 가치를 실현하는 중부권 허브 관광도시, 대전</p>
<p>◇ 전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역사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관광 숙원사업 공간 창출 2. 분포된 녹색 자원을 활용한 관광 클러스터 이원화 계획 수립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력적인 거점형·테마형·맞춤형 대전관광 활성화 4. 관광 거점 매력성 확보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마케팅 이원화 계획 수립

2) 전략별 발전방향

■ 역사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역관광 숙원사업 공간 창출

- 보문산과 유성온천 등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특성을 대표하는 온천관광자원과 산악자원의 관광공간자원화 사업으로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을 마련

■ 대전의 대규모 두 개의 녹색축을 활용한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

- 대전도심을 중심으로 동측의 남북방향과 도심중심으로 입지해 있는 녹색축을 활용하여 대전시민들의 대표적인 여가 공간 역할을 제공하도록 대전시민들과 관광객의 향유 가능한 녹색 자원을 관광 클러스터로 이원화시키는 계획 구상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매력적인 거점형·테마형·맞춤형 대전관광 활성화

- 중부권 허브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거점형 관광, 테마형 관광, 그리고 맞춤형 관광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는 기회 마련

■ 관광 거점 매력성 확보와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마케팅 이원화 계획 수립

- 대전은 도시관광 이미지나 인지도가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트래블라운지 중심의 온오프라인 이원화 마케팅을 구상하는 노력과 더불어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를 관광산업 육성 허브로 활용하여 관광산업 측면의 활성화도모

나. 세종

1) 비전 및 전략

<p>◇ 세종특별자치시 비전 ◇</p> <p>모두가 행복한 나들이, 관광행복도시 세종</p>
<p>◇ 전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상에서 떠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2. 모두가 편리한 관광플랫폼 기반 확충 3.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마련 4. 합리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전략별 발전방향

■ 일상에서 떠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 전략사업 추진 및 연관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BTMICE(Business Travel + MICE + Education) 개념을 도입하여 워케이션의 목적지로서 비즈니스 관광객 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한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의 계기 마련

■ 모두가 편리한 관광플랫폼 기반 확충

- 관광자원의 스마트한 이용,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제공 및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 개선으로 모두가 누리는 관광편의 기반 조성

■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마련

- 관광시장(관광객)과 지역(추진주체)이 함께 관광자원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 보호하고, 지역은 전문성을 갖춰 상호 간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 합리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관광자원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균형적 추진을 통해 관광개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고 관광자원 관리의 최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다. 충북

1) 비전 및 전략

<p>◇ 충청북도 비전 ◇</p> <p>미래관광 재설계 융·복합 관광거점 충북</p>
<p>◇ 전략 ◇</p> <p>1. 융복합관광 육성 및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p> <p>2. 도시관광 매력 확충 및 디지털 관광콘텐츠 개발</p> <p>3. 백두대간·호수 등 자연자원 기반 청정관광의 국제수준 육성</p> <p>4. 충북 관광 브랜딩 및 스마트 관광수용태세 확충</p>

2) 전략별 발전방향

■ 융복합관광 육성 및 관광산업 생태계 혁신

- IT·BT 관련 국가산업단지,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 등 국제적 입지에 기반한 MICE, 의료관광, 산업관광 등 융복합관광 분야 육성 및 관광비즈니스 육성과 창업 활성화, 관광인력 육성 등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 도시관광 매력 확충 및 디지털 관광콘텐츠 개발

- 충청북도 주요 도시별 고유 자산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미디어·디지털 실증단지 등을 통한 역사·문화·생태 관광명소 육성

■ 백두대간·호수 등 자연자원 기반 청정관광의 국제수준 육성

- 소백산·월악산·속리산 국립공원과 어우러진 충주호·대청호·미호천 등 지역 및 자원별 특성에 따라 복합레저 및 웰니스, 생태문화관광, 도심형 복합 수변공간 등이 어우러진 청정관광 공간으로 조성

■ 충북 관광 브랜딩 및 스마트 관광수용태세 확충

- 충북 관광브랜드 개발 및 관광홍보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위한 관광 전담기관 설립과 스마트 관광품질 인증 및 관광환대서비스 개선 등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강화

라. 충남

1) 비전 및 전략

<p>◇ 충청남도 비전 ◇</p> <p>일상을 선물하는 충남 발길이 머무는 행복관광 충남</p>
<p>◇ 전략 ◇</p> <p>1. 해륙자원(해양+내륙)을 활용한 여가체험 휴양지역 조성</p> <p>2. 찬란한 히스토리와 동서양의 문화교차를 통한 디지로그관광 활성화 및 편의기반 조성</p> <p>3.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공정관광기반 생태관광 및 에코관광환경 기반 마련</p>

2) 전략별 발전방향

■ 해륙자원(해양+내륙)을 활용한 여가체험 휴양지역 조성

-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보령 대천해수욕장 등 해양친수공간을 활용한 해양레저체험관광 환경조성 및 신두리사구(사막), 소항사구 등 천연기념물 해안사구를 활용한 가족휴양 생태관광환경 조성
- 인공호수 및 탐정호, 예당호 등 호수를 활용한 내수면친수공간조성을 통한 수변레저관광 환경 조성 및 서산민항, 보령터널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내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관광체험환경기반 지원

■ 찬란한 히스토리와 동서양의 문화교차를 통한 디지로그관광 활성화 및 편의기반 조성

- AR, VR, MR,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한 백제역사를 관광공간으로 재현하고, 불교와 유교,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컬처트래블의 성지로 조성(부여, 서산, 아산, 공주)
- 가족, 친구, 연인 등 개별관광객을 위한 소규모의 체험공간과 OTA(Online Travel Agency)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비장애인 구별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충남 무장애관광환경을 조성

■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생태관광 및 에코관광환경 기반 조성

- 공정관광가이드 양성을 통한 인력양성과 사회적기업 설치를 통한 지역별 공정관광기반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기로림만국기해양정원 및 내포문화숲길 등을 통해 공정관광과 생태관광의 정착환경 조성
- 충청권내의 섬에 대해 내연기관을 배제한 친환경 모빌리티중심 관광환경조성 등 탄소중립 레저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위해 내연기관 사용을 억제하고, 친환경 에코관광기반 및 환경 조성

3 전라권

1. 관광권역 전략

가. 목표

◇ 목표 ◇

다도해·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 관광지대

- 광주의 빛 예술, 전남의 근현대 역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전북의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국악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서·남해안, 새만금 등에 해양 관광인프라를 조성하여 다도해·새만금을 품은 문화예술 관광지대로 조성
-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조사결과에서 전라권은 문화예술, 한스타일, 다도해, 역사문화를 주요 키워드로 제시



[그림 28] 전라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 문화예술·전통역사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확대 및 관광활성화 도모

- 광주는 빛을 활용해 침체된 구도심을 살리는 동시에 광주가 육성하고 있는 ICT, AI, 콘텐츠산업 등과 융합하여 콘텐츠를 확대
- AI 기반 미디어아트 및 디지털 뉴딜을 활용한 문화경관 조성과 국내외적 홍보를 통해 관광 활성화 도모
- 전남의 고인돌유적지 등 선사시대-삼국시대-조선-현대의 시대별 흐름에 따른 관광동선 개발과 전남과 전북 완주의 삼례 문화 예술촌, 전주의 한지 등 전통생활문화예술 등을 통해 예술관광 콘텐츠 확대 생산

■ 한식, 한문화 등 콘텐츠 육성 지원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 전통 공연·음악(국악), 전통음식, 한지, 한복 패션 등 K문화 콘텐츠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확장현실(XR), 혼합현실(MR), 홀로그램, 스마트 글래스 등 다양한 실감 디바이스를 관광산업에 활용
- 다양한 K-문화콘텐츠를 블록 체인 기술까지 더한 콘텐츠와 기술간의 결합을 통해 광주권의 독자적인 K문화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서비스 체험상품 제공
- 콘텐츠진흥원 통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 등 우리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거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문화관광상품 연구개발 등 콘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지 조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 해안·섬·다도해 및 새만금 해양관광권 등 서·남해안 관광허브 조성

- 람사르 습지 등 전북과 전남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블루투어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명소로 조성
-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다도해의 다양한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연계소규모 연안 크루즈 및 마리나,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한 남해안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
- 전북의 군산, 김제, 고창, 부안 등의 새만금 신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자원의 연계를 목표로 새만금 해양관광권으로 설정하고, 서해안 해양 관광레저 클러스터 활성화

2. 시·도별 전략

가. 광주

1) 비전 및 전략

<p>◇ 광주광역시 비전 ◇</p> <p>문화예술과 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관광도시 광주</p>
<p>◇ 전략 ◇</p> <p>1. 킬러콘텐츠 확충을 통한 3향(예향, 의향, 미향)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p> <p>2.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관광 추진</p> <p>3.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한 광주만의 생태관광환경 조성</p> <p>4. 광주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연계·협력·홍보 강화</p>

2) 전략별 발전방향

- 킬러콘텐츠 확충을 통한 3향(예향, 의향, 미향)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
 - 광주의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적 현상이 특화되는 도시의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3향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추진
 -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실감형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개발, 수요 대응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 스마트관광 플랫폼 조성
-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관광을 위한 광주만의 생태관광환경 조성
 - 무등산 국립공원, 어등산 등 생태관광자원과 힐링형 건강생태문화벨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위드코로나시대에 안전한 생태관광상품을 개발
- 광주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역사회연계 강화
 - 김대중 컨벤션센터, 아시아문화전당 등 다양한 기반시설과 의향, 예향, 미향광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나. 전북

1) 비전 및 전략

<p>◇ 전라북도 비전 ◇</p> <p>천년역사·문화여행 체험1번지, 전북</p>
<p>◇ 전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 2.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3.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4. 관광객 맞춤 상품개발 5.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2) 전략별 발전방향

■ 글로벌 관광거점 구축

- 전주관광거점도시와 시군 연계 활성화 추진 및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익산, 고창, 정읍 등 세계문화유산과 무주 태권도원 활용을 통해 국내·외 신규 수요를 창출

■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 전북의 생태, 힐링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재발견을 통해 관광자원의 명소화 실현 및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 관광상품콘텐츠의 개발

■ 지역특화 관광자원 육성

- 전라북도 1시군 대표관광지 및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을 통해 지역별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전북도 관광자원의 다양화 실현, 전북다움 관광자원 육성 및 상품화 구성

■ 관광객 맞춤 상품개발

-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ICT 스마트관광 상품 개발 및 새로운 관광 홍보 마케팅 도입을 통해 맞춤형 관광상품의 개발 및 신규 수요를 창출

■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 코로나19 이후,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전북관광 환경 조성 및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관광서비스 질의 개선과 고품격 수용태세 구축

다. 전남

1) 비전 및 전략

<p>◇ 전라남도 비전 ◇</p> <p>해양·생태 관광중심, 블루투어 전남</p>
<p>◇ 전략 ◇</p> <p>1.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 도약</p> <p>2. 스마트형 블루투어 관광콘텐츠 발굴</p> <p>3. 안전하고 편안한 체류형 연계관광루트 개발(블루투어 Triangle)</p> <p>4.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연대기적 에듀테인먼트형 관광</p>

2) 전략별 발전방향

-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 도약
 - 해상관광루트(일본~남해안~중국 동부 연안)의 거점으로 남해안을 새로운 중심 성장 축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전남~경남~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관광 협력체계 구축
- 스마트형 관광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생태계 구축
 - 혁신적인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전남을 찾는 관광객이 새로운 경험 및 창의적 관광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전남형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형 관광생태계 구축
- 블루투어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균등발전 도모 및 체류형 관광지역으로 조성
 - 전남지역별 관광산업 발전 편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 균등발전 도모를 위해 전남 22개 시·군을 블루투어 트라이앵글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지역 조성
-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하여 에듀테인먼트형 관광지역으로 차별화
 - 선사-삼국-조선-현대시대를 아우르는 역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형 관광개발로 단순 관람형 관광에서 교육·오락적 요소가 가미된 테마형 관광으로 차별화

4 대경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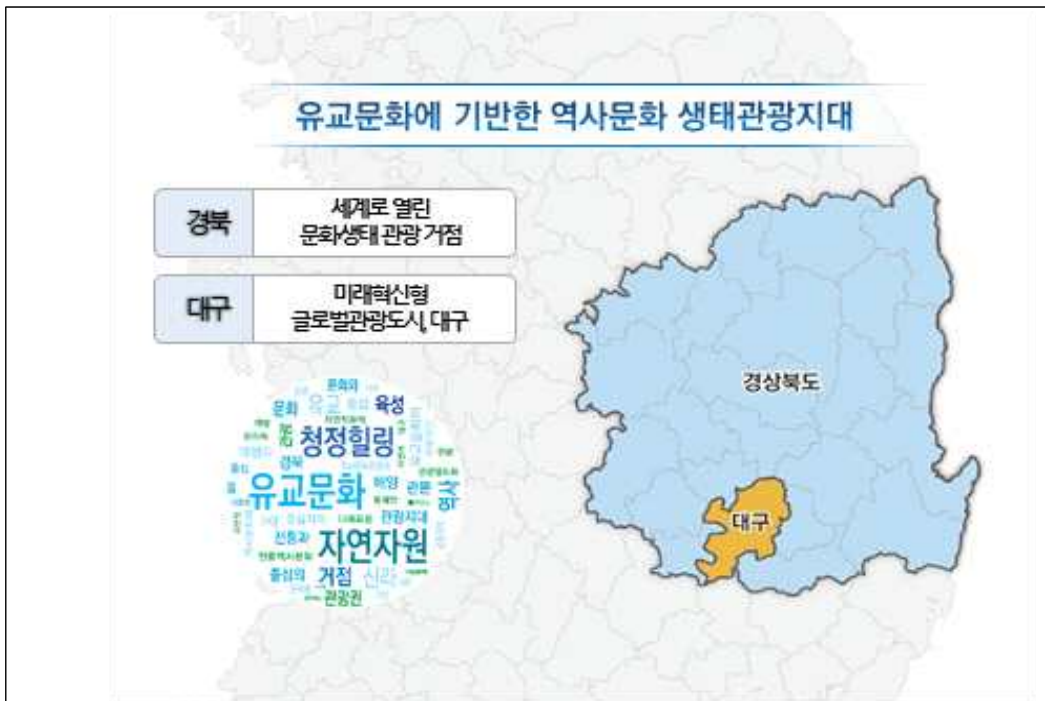
1. 관광권역 방향성

가. 목표

◇ 목표 ◇

유교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대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의 역사문화와 생태관광의 거점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향후 10년간의 목표 및 비전을 유교문화에 기반한 역사문화 생태관광지대 조성
 - 대구·경북권은 청정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세계문화유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통적 역사·문화, 생태자원 등을 통해 글로벌 관광을 위한 기반 마련
-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조사결과 대구·경북권을 연상하는 주요 키워드는 유교문화, 청정힐링, 자연자원, 거점/중심, 해양문화 순으로 조사됨



[그림 29] 대경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 유교, 신라, 가야 문화 등 3대 문화에 기반한 한국 역사문화관광 거점 조성
 - 신라 불교·유교·가야 문화권이 공존하고, 수많은 문화유적, 인물스토리 등을 간직하고 있어 ‘한국 속의 한국(Korea in Korea)’으로서 역사문화관광 거점 조성
 - 특히, 유교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문화와 역사, 자연의 고유가치가 어우러져 있는 안동 관광거점도시와 주변 도시의 상생발전을 통해 역사문화관광 확산
 -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해 내외국인 관광객이 대구·경북의 세계문화유산 등과 주변 명소를 연계하여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백두대간 생태축, 동해안 해안축, 낙동강 문화권을 연계한 생태관광 실현
 - 백두대간과 낙동강의 생태·문화 자원 관광콘텐츠와 동해안의 해안경관 등이 인문기행, 예술치유, 모험 레포츠 등 감성콘텐츠의 융복합으로 힐링과 감성프로그램이 있는 생태관광 실현
 - 백두대간 힐링여행, 낙동강 로컬푸드여행, 삼색(三色)문화여행, 동해안 식(食)여행, 해안 경관로드 등 다양한 생태관광 상품개발 및 연계
 - 또한 문경시(습지), 청송군(지질공원), 영양군(생태경관), 성주군(국립공원), 칠곡군(도립공원), 울진군(지질공원)등에 산재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립공원,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을 제공
 - 친환경 지역브랜드와 함께 생태관광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기여

- 도심과 역사문화권을 잇는 체류형 생활관광 육성
 - 도심속 다양한 콘텐츠와 역사문화권을 잇는 생활관광을 육성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하고 주/야간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시간 증대
 - 대구는 도시민이 직접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현대 생활문화와 공연문화 인프라, 도심의 야간투어, 낭만여행, 대구 중구 골목투어 등을 활용한 생활자원의 관광자원화
 - 경북의 한복체험, 선비체험, 템플스테이 등 전통적인 문화체험을 중심의 콘텐츠를 연계하여 다양한 경험 유도

2. 시·도별 전략

가. 대구

1) 비전 및 전략

<p>◇ 대구광역시 비전 ◇</p> <p>미래혁신형 글로벌 관광도시, 대구</p>
<p>◇ 전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대표 내륙관광 중심도시 2. 디지털 관광 선도도시 3. 매력적인 에코관광도시 4. 창의적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도시

2) 전략별 발전방향

■ 대한민국 대표 내륙관광 중심도시

- 대구시는 공항과 역사, 터미널 등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영남내륙권 환승거점으로 관광객이 밀집한 공간 내 관광정보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기능강화 필요

■ 디지털 관광 선도도시

- 디지털화 증가 추세와 변화하는 관광 흐름에 맞춰 실감형 가상현실(VR, AR 등), ICT, 스마트 기술, 메타버스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생태계 조성

■ 매력적인 에코관광도시

- 낙동강과 금호강은 대구시의 대표 수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심 강변 자원의 명품화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수 분포하여 고분군을 테마로 한 차별화 및 매력적인 기반조성 필요

■ 창의적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도시

- 대구시는 근대골목을 시작으로 근대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산재된 근대산업 유산의 발굴로 산업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참여 유도

나. 경북

1) 비전 및 전략

<p>◇ 경상북도 비전 ◇</p> <p>세계로 열린 문화·생태 관광 거점</p> <p>◇ 전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글로벌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 2. 권역별 명품 관광(단지) 개발 추진 3. 지역 기반의 새로운 관광매력 발굴 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마케팅 전개 5. 지속가능한 관광혁신체계 마련
--

2) 전략별 발전방향

■ 글로벌 수준의 관광도시 조성

- 3대 문화권, 중부내륙권 등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인프라 조성과 함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개항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관광기반 조성 and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조성

■ 권역별 명품 관광(단지) 개발 추진

- 기존 관광(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 보완과 통합신공항 개항에 대응하여 기존 관광(단지)의 재생방안과 민자유치 콘텐츠 발굴에 집중하는 정책 추진

■ 지역 기반의 새로운 관광매력 발굴

- 경북이 보유한 문화·생태 관광자원과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 등을 융복합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관광콘텐츠 발굴에 기반하여 이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와 혁신형 관광창업을 지원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집중마케팅 전개

- 경북만의 차별화된 힐링상품, 열차관광, 자전거여행, 섬 관광 등을 집중 추진하고, 상품과 공간을 연결하면서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수용태세 개선과 국내외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추진

■ 지속가능한 관광혁신체계 마련

- 백두대간과 낙동강의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힐링, 산림, 캠핑, 농촌, 강나루 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관광콘텐츠를 발굴하고, 전통 관광비즈니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관광두레, 1인 크리에이터, 관광스타트업 등의 신규 관광일자리 창출 추진

5 부울경권

1. 관광권역 방향성

가. 목표

◇ 목표 ◇
산업기반 해양레저문화관광지대

- 부산·울산·경남권은 해양리조트, 해양레포츠, 연안크루즈, 섬 등 해양자원을 중심으로 낙동강·태화강 생태 투어, 영남 알프스 산악레저·휴양, 선사·가야·유교문화 및 근현대 역사문화 자원 풍부하여 산업기반 해양레저문화 관광지대로 조성
-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조사결과 부산·울산·경남권을 연상하는 주요 키워드는 해양레저, 국제관광, 거점/중심, 휴양관광, 스포츠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30] 부울경권 개발방향

나. 발전방향

■ 바다·산·문화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

- 남부권의 해양, 역사·문화, 생태(영남 알프스, 낙동강)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 테마, 지리적 여건, 교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규 관광벨트 조성
- 부울경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해양형 웰니스, 산악형 웰니스(항노화) 등 휴양·건강·힐링이 융합된 체험·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바다·산·문화를 연계하는 웰니스형 관광벨트 조성

■ 산업관광 활성화로 관광 저변 확대

-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영화, 음악, 영상, 모빌리티, 항공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관광 저변 확대
- 비대면 문화 확산과 새로운 관광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관광 콘텐츠 개발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며, 산업시찰 및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전략을 통해 지역특화 산업관광 활성화

■ 해양문화를 선도하는 남부권의 국제관문 도시 조성

- 부산·울산·경남 해양권은 남부권의 국제관문 도시로써 동북아 대표 크루즈 항만으로 조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크루즈관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크루즈 관련 인프라 확충 뿐만 아니라 내륙연계 관광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부산·울산·경남에서만 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테마를 통해 다양한 경험 유도

■ 해양레저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수준의 해양 엔터테인먼트 메가 관광지대 육성

-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강점인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해양레저 중심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해양레저의 거점형 관광지 구축
- 4계절 해양레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도심 속 문화예술 및 쇼핑, 온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형 관광목적지로 조성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해양’을 통해ダイ나믹한 경관과 체험, 일상과 비일상적인 여행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양 레포츠, 마리나 등 엔터테인먼트 휴양지대 육성

2. 시·도별 전략

가. 부산

1) 비전 및 전략

<p>◇ 부산광역시 비전 ◇</p> <p>모두의 일상이 여행이 되는 도시, 부산</p> <p>◇ 전략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의 열린 관광 2. 시대를 잇는 관광 3. 자연 속 하나되는 관광 4.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관광

2) 전략별 발전방향

■ 해양의 열린 관광

- 국내 제1의 해양문화도시로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도시라는 입지적 특성을 활용한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 구축과 세계로 열린바다와 부산도심과 특화 산업자원 등을 연결할 수 있는 관광테마 웨이브(Wave) 구축

■ 시대를 잇는 관광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담고 있는 부산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역사문화예술 자산을 모두(all)가 공유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그린 스마트관광 환경 조성

■ 자연 속 하나되는 관광

- 모두(all)가 건강한 삶을 부산의 자연과 도심에서 정주하며 누릴 수 있도록 부산이 가진 바다, 산, 강, 호수 등의 자연자원을 보존하며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책임관광·생태 관광 환경 조성 및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관광

- ‘부산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부산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관광수용태세 고도화를 비롯한 고품격 국제 허브관광도시로의 역할 및 브랜드 강화

나. 울산

1) 비전 및 전략

<p>◇ 울산광역시 비전 ◇</p> <p>어울림 생태관광도시, 울산</p>
<p>◇ 전략 ◇</p> <p>1. 해양과 산악이 어우러진 대표 관광체류도시 도약</p> <p>2. 생태와 산업이 조화로운 관광특화도시 구축</p> <p>3. 관광객과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친화도시 조성</p>

2) 전략별 발전방향

■ 해양과 산악이 어우러진 대표 관광체류도시 도약

- 영남알프스, 대운산 등의 산악자원 및 강동관광단지·간절곶 등 동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체류형·테마형 관광 인프라 확충
- 2021년 4월 준공한 울산전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울산 산업 발전의 신성장동력인 글로벌 MICE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생태와 산업이 조화로운 관광특화도시 구축

- 도심에 위치한 태화강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울산의 생태관광과 도시문화를 활용한 경쟁력 있는 도심형 관광 인프라 확충
- 울산의 태화강·영남알프스·해안경관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울산의 산업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상품 발굴로 관광 매력 확보

■ 관광객과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친화도시 조성

-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용편의 증가와 관광하기 좋은 도시 울산의 인지도 정립을 위해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스마트 관광수용태세 확충
- 관광약자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 등 울산을 찾는 관광객 누구나 쉽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

다. 경남

1) 비전 및 전략

<p>◇ 경상남도 비전 ◇</p> <p>세계로 열린 문화생태 관광거점</p>
<p>◇ 전략 ◇</p> <p>1. 관광거점 육성 및 5대 광역관광벨트 조성</p> <p>2.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활용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p> <p>3. 도민의 삶과 문화를 연계한 경남형 생활밀착형 공간 창출</p>

2) 전략별 발전방향

■ 관광거점 육성 및 5대 광역관광벨트 조성

- 역사문화자원, 자연자원 등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숙박, 식음, 쇼핑 등 인프라, 수용태세를 보유하여 관광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
- 낙동강관광벨트,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등 기존 관광벨트 외 지역의 특화 관광자원, 테마, 지리적 여건, 교통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규 관광벨트 발굴 및 육성

■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활용한 경남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축제, 영상, 공연 등 K-문화 기반을 연계한 광역 메가이벤트 개최 및 경남형 한류관광 패키지 상품 운영, K-pop 명예의 전당 기념관 건립 등을 통한 남부권 K-문화 메카 조성
- 스포츠, 웰니스 등 경남의 산업 기반과 재할, 해양 웰니스, 산림 치유 등 테마의 융복합 관광 인프라 조성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 도민의 삶과 역사·문화가 관광이 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

- 경남의 특색 있는 마을을 숙박·음식·문화·쇼핑 등이 가능한 주민참여형·체류형 마을호텔로 개발하고, 인근 관광지·시설을 MaaS로 연계하는 신개념 관광거점으로 조성
- 가야, 실천유교 등 경남의 역사·문화를 연계한 가야 오픈스마트테마파크, 가야실감관광 스튜디오, 경남 선비 풍류체험장 등 융복합 앵커시설 조성



제6장

계획 추진 체계



1.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 미래 관광수요 예측을 통한 관광자원의 선제적 발굴 및 관광자원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유연한 관광개발 추진

〈표 40〉 전략1. 매력적 관광자원 발굴 추진 주체 설정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주관 부처	협력 부처
1. 미래유망 기술이 집약된 관광자원 발굴	첨단기술을 접목한 실감콘텐츠 관광상품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메타버스 관광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저, 우주 등 미지의 공간을 활용한 신규 관광자원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2.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자원화	문화산업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적 한류관광 테마공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관광도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3. 관광트렌드 주도형 관광개발 추진	일과 관광의 경계를 초월한 워케이션 관광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휴양 치유 중심의 비대면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
4. 세대별(고령, 청소년, 청년 등) 특화 관광자원 개발	고령관광시장 특화 실버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미래세대인 청소년 대상 교육관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남다름을 추구하는 MZ세대(청년) 대상 관광 특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5. 융복합을 통한 산업 및 종교관광 활성화	복합관광 기능을 담은 산업형 융합관광 클러스터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관광매력 요인을 갖춘 산업단지를 활용한 산업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종교 및 순례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

2.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 혁신적인 지속가능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관광개발의 사회적 기여 확대를 통해 관광객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

〈표 41〉 전략2. 지속가능 관광개발 가치 구현 추진 주체 설정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주관 부처	협력 부처
1.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관광개발 추진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탄소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관광(단)지 개발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
	노후 관광(단)지 시설의 그린 리모델링	문화체육관광부	-
	신재생 에너지 단지의 지역 관광자원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2.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생태관광 육성	생태복원형 관광지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생태관광 광역루트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자연친화적 관광모델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3. 유휴자원 재생을 통한 관광자원화	디자인 기반 지역 관광명소 재생	문화체육관광부	-
	유휴시설 관광자원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유휴시간 활용형 관광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유휴자원 재생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4. 오버투어리즘 효율적 관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오버투어리즘 관리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
	지자체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객이 실천할 수 있는 책임관광 문화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

3.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 관광자원의 스마트한 이용,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제공 및 관광약자 관광편의 개선으로 모두가 누리는 관광편의 기반 조성

〈표 42〉 전략3. 편리한 관광편의기반 확충 추진 주체 설정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주관 부처	협력 부처
1. ICT 활용 관광교통체계 구축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 연계 체계 강화	문화체육 관광부	국토교통부
	공유형 개인 이동수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국토교통부
	신개념 교통서비스 확충	문화체육 관광부	국토교통부
2. 숙박시설의 관광명소화	숙박과 체험이 가능한 마을형 숙박 조성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이색 테마형 숙박시설 확충	문화체육 관광부	-
	숙박시설 재생 모델 개발 및 명소화 전환	문화체육 관광부	-
3. 식음·쇼핑 시설의 명소화	K-푸드의 글로벌 관광자원화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 대표 이미지를 활용한 관광명품 자원화	문화체육 관광부	-
	쇼핑시설을 지역문화체험 및 복합공간으로 육성	문화체육 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4. 안전·안심 관광환경 구현	관광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대면 관광 서비스 및 기반 강화	문화체육 관광부	-
	무장애관광 활성화를 위한 열린관광지 및 열린관광도시 육성	문화체육 관광부	-
5. 스마트 관광안내체계 구축	스마트관광 플랫폼 및 서비스 기반 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관광도시의 지속적인 확대	문화체육 관광부	국토교통부
	스마트 관광안내체계 및 시스템 구축	문화체육 관광부	-

4.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 관광개발 효과가 지역관광 생태계로 이어지고, 지역관광 주체의 관광역량을 강화하여 관광을 통한 자립적 지역발전 구조 확립

〈표 43〉 전략4. 건강한 관광산업생태계 구축 추진 주체 설정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주관 부처	협력 부처
1. 주민참여형 지역관광추진 확대	주민사업체의 권역별 관리를 강화한 관광두레 2.0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주민참여형 관광자원개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마을관광전략회의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
2. 자립형 지역관광주체 육성	지역관광활동가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관광 혁신조직 양성(DMO)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관광연합 조직의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3. 관광개발과 지역산업간 연계 강화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확대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광서비스 거점으로서 지역 관광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 관광지 활력 증진	문화체육관광부	-
4. 지역관광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지역관광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관광 R&D 기능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민-관-산-학 네트워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지자체와 지역주민 역량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5.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 공동 자원에 대한 국가·부처간 연계협력 강화와 공간위계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점·선·면적인 관광개발을 넘어 입체적 관광공간 구축

〈표 44〉 전략5. 입체적 관광 연계·협력 강화 추진 주체 설정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주관 부처	협력 부처
1. 지역관광거점 중심 관광개발 확산	광역연합관광권별 메가관광권 개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
	다극다핵(多極多核) 연계 기반 4(자원 중심) × 3(이동통신 중심) 관광축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
2. 지역관광 육성사업 추진체계 구축	광역연합관광권-광역권-소권-도시-지구-지점을 연결하는 지역관광 육성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광거점도시 확대 및 내실화	문화체육관광부	-
	강소형 유망관광도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
	마을 단위의 생활관광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
3. 남북한 다자간 연계협력 관광개발 추진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관광거점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남북관광 연계 및 공동개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부
	공동관광권 형성을 위한 한·중·일 관광개발협의체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4. 관광자원 영역 확장에 따른 범부처 공유관광자원 개발	항공, 육상, 해양에서 즐기는 레저스포츠관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지역 생활SOC자원의 관광자원화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범부처 지역관광융합개발사업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합동

6.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 관광자원 개발, 이용, 보호, 관리의 균형적 추진을 위해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광개발의 정책효과를 제고하며 관광자원 관리 최적화 유도

〈표 45〉 전략6. 혁신적 제도·관리 기반 마련 추진 주체 설정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주관 부처	협력 부처
1. 관광지등 관광개발 관련 제도 개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광지 지정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활성화를 위한 등급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특구 평가체계 내실화 및 관광 거점 기능화	문화체육관광부	-
2. 관광개발 위상을 강화하는 법률 체계 정비	독립적 관광개발 법률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관광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관광진흥법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
3. 관광개발 정책 지원 확대	관광개발 표준지침 보급	문화체육관광부	-
	맞춤형 지역관광 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부문 관광개발계획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계획 평가제도 도입	문화체육관광부	-
4.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광자원 관리	과학적 증거 기반 지역관광 진단지표 고도화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관광통계 생산 및 관리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관광분야 거대자료 활용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5. 관광자원의 통합 관리	TDSS 기반 관광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 협력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부처 합동